

연구보고서 2018-13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 신승배

| 문순덕

| 김선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신 승 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문 순 덕(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선 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젠더의식이나 성평등 고정관념에 대해 당연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정 내에서 오랫동안 굳어져 왔던 성역할은 제사 의례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되며, 특히 명절 때만 되면 ‘명절증후군’ 이라 해서 제사가 즐거운 축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스트레스 증상이 되어 버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제례분야에서의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는 마을제나 명절, 제사 등 다양한 제례에서 성역할이 재현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는 있지만, 방향성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개별 가정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제례 형식이 있어 이 형식의 변화가 내용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제주 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제례의 실태 및 도민 의식조사를 통해 제례문화의 변용을 진단하고자 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고 성평등한 제례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제례의 실태 및 의식 조사에서는 제주지역 제례의 절차와 방법, 제례에 관한 인식,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제례에 대한 만족도, 제례의 지속가능성, 제례시행의 의미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적 제언으로 역사 속 제례문화의 성평등 사례 소개하기,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남성 시니어를 위한 제례음식 요리교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 노력, 제주지역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등에 대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에 주저 없이 응해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의 자문을 맡아주신 한라일보사 교육문화부 진선희 부장, 제주교육박물관 양종렬 부장, 제주문화예술재단 고희송 본부장, 세계문화유산본부 김나영 학예연구사님과 익명의 평가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자로 참여해주신 제주연구원의 문순덕 박사와 제주학연구센터의 김선필 박사, 연구 책임을 맡은 신승배 연구위원에게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많은 분의 노력을 담아 마련된 본 보고서가 제주지역에 적합하고 성평등한 제례문화가 확산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은 희

연구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는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제례의 실태와 도민 의식조사를 통해 제례문화의 변용을 진단하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고 성평등한 제례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주의 대표적 제례 현주소에 대한 문헌 고찰
- 제주지역 제례에 대한 도민 의식, 참여 및 갈등 경험, 개선점 등 조사·분석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제례(기제사(忌祭祀), 명절 차례 등)의 절차와 방법, 제례에 관한 인식,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제례에 대한 만족도, 제례에서 성역할 갈등, 제례의 지속가능성, 제례 시행의 의미, 제례문화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등
- 제례문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성평등한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제주지역 제례의 의의와 변천에 대한 문헌검토
- 설문조사: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 약 400명 대상
- 심층면접: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민 약 10명 대상

다.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관련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4단계	조사 실시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5단계	조사 결과 분석	⇔	• 조사결과 분석·집필

라.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1) 연구의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지역 제례의 일반적인 모습과 이에 관한 제례 주례자와 참례자의 인식을 현재적 관점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례의 변화 양상과 방향에 관한 제주도민의 의견도 상세히 담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자료를 모두 구현하여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제주다운 성평등 제례문화 방향을 모색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제례문화 확산 및 건전생활문화 실천운동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한계점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
 - 조사범위의 한계 : 이 연구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변화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다양한 가가례의 특성이 모두 담긴 것은 아님. 따라서 개별 가문의 풍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대상의 한계 : 본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30세 미만의 제례 의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또한 제사의 주례자와 참례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제사의 주례자와 참례자 개별적 특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님. 따라서 결과를 확대·해석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앞으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

- 조사기간의 한계 : 이 연구는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변화와 그 양상에 관한 인식을 현재적 관점에서 잘 담고 있지만 특정시점에 대한 횡단면적 연구로 시계열적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함.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제례의 사회적 기능

- 오늘날 한국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유교식 제례의 시원은 공동체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
 - 과거 조선시대의 유교식 제례는 백성들이 조선왕조의 일원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수단이자, 가족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실천이었음.
- 그러나 의례는 사회통합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 권력 관계의 투영 혹은 지배·피지배 관계의 정당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옴.
 - 제례 역시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인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
- 이점에서 의례를 주관하는 집단은 일종의 종교권력(Religious power)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제하게 됨.

2.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제례에 관한 연구들은 제례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가족의례이며,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성역할을 강제함으로써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

트레스를 여성들에게 유발시키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여성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친교를 해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제례를 둘러싼 남녀 간 성역할 문제를 검토하고, 보다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작업은 제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제례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 체험을 통한 안정감 확보와 가족 간의 화합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례의 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3.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과 변화

가.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

- 제주유맥육백년사(濟州儒脈六百年史)(1997)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의 제례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중시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그 특징으로는 집에서 제사나 명절의 제의를 지낼 때에 문전제(門前祭)라 하여 문신(門神)에게 약식 제사를 지내고, 부엌의 신인 조왕에게 고사를 지내는 점, 명절 때의 제의가 차례가 아니라 제사 때의 제의와 꼭 같이 지내는 점, 축문(祝文)이 없는 점, 주부가 아헌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남성 자손만이 제관이 된다는 점 등임.
- 또한, 친족 집단은 제사 집단이라 해도 좋을 만큼 그 임무에 제사 명절을 공동으로 지낸다는 특징이 있음. 친족의 최소 집단은 고조부모를 정점으로 한 자손의 집단으로서 흔히 '당내(堂內)'라고 불러왔음. '당내(堂內)'란 '집안'이라는 한자어인데, 제주에서는 '방상' 또는 '방답'이라고 함. '방상'은 고조부모의 자손들 집단이니만큼 고조부모 이하의 자손들이 제사 명절을 같이 지냄(제주유맥육백년사(濟州儒脈六百年史), 1997).
- 제주지역 제례의 두드러진 특징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첫째, 제주지역 제례문화에는 무속신앙과 유교식 의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 둘째, 제주지역에서는 제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는 관습이 존재함. 이것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김혜숙·김은희·김항원·유철인, 2005). 셋째, 제주지역 제례의 계승방식은 장남 봉사(奉祀) 위주의 일반적인 제사 계승방식보다는 형제 분할계승방식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쓰하 다카시, 2007).
- 유교식 제례문화가 전면적으로 제주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도 19세기 이후라

고 추정할 수 있음.

- 제주지역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기도 함. 현승환(1997)은 제주지역 제례에서 남성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지만, 여성은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만을 해왔다고 주장하여 제례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조적으로 해석한 것에 반해 문순덕(2011, 2013)은 제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주체자, 조력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하여 제례의 전승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더 주도적으로 해석함.
- 제사의 절차와 형식적 측면에서는 현승환(1997)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지만 제사의 절차와 형식이 실현되는 구체적 과정이 여성의 주도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문순덕(2011, 2013)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짐.
- 또한 이러한 여성의 참여는 제례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기여도가 큼.

나. 제주지역 제례의 변화

- 도내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으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상당수 유입되고 있고, 제례를 추도식의 형태로 이해하는 그리스도교 인구의 증가와 전통적인 유교식 제례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불교·유교 인구의 감소는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그리고 그것은 제례 수행형태의 간소화와 이에 따른 공동체 결속력의 약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제례를 둘러싼 성역할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제주지역에서도 가가례(家家禮)에 따라 제례형식이 변하고 있고 그 방향과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음. 다만 앞서 살펴본 『예기(禮記)』의 법도에 가장 어긋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제사 참례임.
- 제사는 조상에 대한 추모행사이며 특히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친족이 한데 모여 유대 관계를 결속시키는 기회가 되므로 남녀가 함께 제사를 준비하고 참례하는 것은 좋은 풍속이라 여길 수 있음. 다만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제사 준비는 여성들의 몫이고 제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여성들로 하여금 ‘제사·명절 증후군’ 같은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음. 따라서 제례가 미풍양속으로 전승되어야 할 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적인 제사의 의미와 역할 분담에 대해 바른 인식과 실천이 절실할 때임.

제3장 제주지역 제례 의식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 조사대상 :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
 - 표 본 수 : 401명(제주시 286명, 서귀포시 115명)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2일~11월 18일(17일간)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 표집방법 : 성별, 연령, 지역 체계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pm 4.9%Point

나.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대상자 401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성별로는 여성 50.9%(204명), 남성 49.1%(197명)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음.
 - 연령별로는 30대 20.0%(80명), 40대 25.2%(101명), 50대 24.2%(97명), 60대 이상 30.7%(123명)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음.
 - 며느리 순위별로는 맏며느리 48.0%(98명), 둘째 며느리 33.8%(69명), 셋째 며느리 11.3%(23명), 기타 6.9%(14명) 순으로 맏며느리가 가장 많음.
 - 형제 순위별로는 장남 41.6%(82명), 둘째 아들 37.6%(74명), 셋째 아들 15.2%(30명), 기타 5.6%(11명) 순으로 장남이 가장 많음.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42.6%(171명), 전문대졸 이상 57.4%(230명)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조금 더 많음.
 -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29.4%(118명), 사무직 20.2%(81명), 관리·전문직 14.5%(58명), 단순 노무·생산직, 기타 13.5%(54명), 전업주부·무직 12.0%(48명), 농·축·수산업 10.5%(42명) 순으로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많음.

2. 제례 절차와 방법

-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평균 횟수는 연 2.37회, 다른 곳(형제·자매나 친척)에 참가하는 제사는 연 2.75회로 나타났으며, 제사의 형식은 주로 유교식이며, 제사와 함께 이뤄지는 동반의례는 문전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봉사 대수는 주로 3대조 또는 2대조로 나타났고, 제사는 망자의 사망 전날이나 사망 당일에 해당하는 일자에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제사 시간은 저녁 9~11시에 가장 많이 지내지만 밤 11~1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도 많음.
 - 그러나 봉사 대수가 2대조 이하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제사 시간도 자시(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서 벗어나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사는 주로 장자가 맡아서 하며, 제사 방법은 합제 또는 분제가 혼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제월전은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제사는 주로 본가(시가)의 조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제사의 복장은 정장이 가장 많지만 평상복을 입는 경우도 많았으며, 제기용 그릇은 전용 그릇을 따로 사용하거나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과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복장의 착용과 제기의 사용이 다소 유연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는 주로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축문작성과 제사 의례의 주도는 주로 남성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 수행을 위한 남녀의 역할이 다소 경직되어 있지만 다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남.
 - 다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30대에서 다소 유연하게 나타난 반면 남성과 60대 이상은 다소 경직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상 차림 방식은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주로 전통제례 음식으로 올리지만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함께 올리거나 가족을 위한 음식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많아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 그러나 제사음식 대부분을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회 제사의 제수 비용으로는 주로 30만 원대 또는 20만 원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수 비용의 부담은 전적으로 제사를 맡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현금으로 상호 부조하는 경우도 많음.

3. 제례에 대한 의식과 태도

가. 제례에 대한 인식

- 제례와 관련하여 남성과 60대 이상이 더 경직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30대는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과 변화에 유연한 태도를 가짐.
 - 제사에 관한 인식 중 제사의 장남 승계,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주부가 관장을 하고 며느리·딸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은 남성과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현대생활에서의 제사의 필요성과 제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조상의 추모, 제사 음식의 교육과 계승, 사망 후 자손의 봉사 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 여성인 자손의 제사 참석에 대해서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봉사해도 된다’, ‘참여해도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특히 여성과 30대가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와 여성인 자손의 제사 참석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기능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이 더 많지만 부정적 인식도 다수 존재함. 구체적으로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제사의 교육적 기능,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제사의 기복적 기능, 집안의 친목도모 기능, 친족공동체의 결속 기능에 대하여 남성과 60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변화기대는 봉사 대수의 감소, 더 이른 제사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사의 지속을 원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많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50대 이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40대 이하는 제사의 지속을 원

하지 않는 비율도 40% 이상 나타나 여성과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제사의 변화가 필요함.

- 더구나 제사의 가장 힘든 점이 제사 음식 준비로 나타났고,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37.7%였으며,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 또는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아 제례의 전승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합의는 물론 성역할 인식을 포함하여 제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나.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 다른 한편으로 제사를 성불평등한 문화로 바라보는 인식이 29.7%로 나타났고,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 청소 및 설거지가 지목되어 주로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인식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일과 가정에 대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음.
 - 특히 남성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하면서도 이러한 공감이 실질적 참여나 성불평등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조사결과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인식이 다소 약화되었고,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적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제례문화 내의 역할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며, 특히 주로 여성이 부담해왔던 가사노동을 남녀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함.

4. 제례에 대한 만족도

- 제례에 관한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제수 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남. 특히 가사노동 부담은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남성과의 만족도 격차 역시 가장 큰 항목이었으며, 연령별로도 만족도 순위가 매우 낮은 항목이었음.

- 이는 제사준비를 위한 가사노동 분담의 필요성을 성별 및 세대별로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제례문화 속에서는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은 주로 제사 형식과 절차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음식준비와 제수 비용, 가사노동 분담 등 가사노동과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가 특히 더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만족도에서도 여성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제사 준비를 위한 가사노동과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또한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가사노동 분담 외에도 제사 횟수, 제사 시간, 제수 비용, 봉사 대수 등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항목과 음식의 종류, 음식준비 방법, 음식처리 방법 등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목들이 만족도 순위 하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5. 소결 및 시사점

-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례문화의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제사 횟수, 제사 시간, 봉사 대수 등에 대한 변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제사의 수행 과정에서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 조사가 제례문화 전통의 고수 또는 변화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줌.
 - 제사가 가정의례라는 점에서 제례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근간은 가족구성원들 모두의 행복임. 즉 제사는 가족구성원인 남과 여, 세대와 세대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함. 실제 제사의 수행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참여에 의해서 구현되며, 제사의 전승이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위에 기댄 전통의 강요는 제례문화의 존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례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성불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제례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임.

제4장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례 및 의식 심층면접

1. 조사개요

가. 조사방법 및 내용

- 심층면접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사의례 절차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 정도,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제사의례 시행의 의미 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대상 : 제사의례를 집행하고 있는 5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하고, 30대와 40대의 제사의례 태도 등은 간접 질문 방식을 택하였음.
- 조사내용 : 질문지는 크게 제사의례 이행 현황, 제사의례와 성역할의 변화,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면담자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사전에 면담자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화로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방문 일자를 조정하였음.
- 조사기간 : 2018년 10월 31일~11월 27일(28일간)

나. 면접대상자 일반적 특성

구분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성별	여성 : 7명(50대 : 3명, 60대 : 4명) 남성 : 3명(50대 : 2명, 80대 : 1명)
연령	50대 : 5명, 60대 : 4명, 80대 : 1명
지역	제주시(노형동, 도두동, 구좌읍(김녕리), 성산읍(오조리), 남원읍(태흥리), 표선면(신흥리, 세화리), 서귀포시(효돈동), 안덕면(화순리), 대정읍(신도리, 신평리), 한림읍(수원리), 애월읍(광령리, 애월리)

2. 조사 내용 및 분석결과

- 제주지역의 제사의례 절차와 그에 따른 주례자들의 인식, 의례의 지속 여부와 변형 요인 등을 살펴보았음.
 - 전반적으로 제례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면서 계승되고 있으나 사회변화와 삶의 조건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통과의례 지속의 의미가 약화되고, 의례 이행의 의무감이 줄어들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부모가 70대로 접어들고 제례를 집행할 여력이 없게 되면 자식에서 넘겨주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제례와 그에 필요한 재산 상속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재산이 없더라도 제례의 계승은 필연적으로 이어져 왔음.
 - 제사는 제관을 기준으로 2대부터 3대까지 지내는 것이며, 제주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합제(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같은 날 지내는 것)가 정착되고 있음.
 - 제사는 남성 집안의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역할론은 배제된 채 여성이 머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함.
- 제례를 이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의례를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제사 지내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제삿날을 친척이 모이는 공동체 화합의 날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화는 유지될 것임.
- 현대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제삿날을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날로 삼고 제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3. 소결 및 시사점

- 이 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제주지역 제사의례에 내재되어 있는 성역할과 향후 성인지 관점에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음.

- 제사의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통과의례이며 지금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유지될지 아니면 소멸될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달려 있다고 봄.
 - 따라서 여성과 젊은이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집안은 의례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결국은 의례 주체자와 참여자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풍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봄.
- 제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혈연공동체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이고 친척들을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삿날을 가족 모임의 날로 정하면 의미가 있고 변형되더라도 제사의례는 유지될 것임.
 - 반면 제삿날이라고 해도 가족과 친척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하여 굳이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제사는 폐지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제삿날을 가문의 결속력을 다지는 날로 인식하게 되면 절차와 방법이 축소되고 변형되면서도 지속될 것임. 60대 이상 사람들은 부모들의 행례를 보고 거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그 이하 세대로 내려가면 이러한 전통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편임.
- 제례 이행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성역할론이 대두되는 것은 의례 시작에서 마침까지 여성의 참여와 관여가 두드러지기 때문임.
- 여성이 제례 주체자의 중심에 서게 되는 시기는 결혼 이후에 해당됨. 즉 결혼 후 시가 제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제례 이행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 공유가 필요함.

제5장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방향 모색

1. 제주지역 제례의 현대적 의미

가. 조상에 대한 추모

- 제주지역은 제례의 절차나 형식 및 구성요소에 있어서 전통 지향적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탈전통적 변용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전통사회에서 제례는 효의 의미가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추모의 의미가 더욱 강조됨. 제주지역 제례에 나타난 추모의 의미는 조상을 기리는 것 외에도 조상숭배, 종교적 관념, 친목 도모의 관념, 친족 공동체 결속의 관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사후 자손의 봉사를 원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자손의 봉사가 효의 실천으로 이어지던 전통적 인식이 다소 희박해짐.

- 또한 제례의 전승적 의미에서도 제례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전통적 성역할 인식과 제사절차 및 형식의 고수는 성과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사의 절차와 형식의 전승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나. 가족 및 친족공동체 유대 강화

- 제례의 전승은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의 참여를 통해서 구현됨. 따라서 조상제사를 가족과 친족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 혈통에 대한 의식이 점차 미약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결속의 기회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음. 따라서 제사와 같은 가족의례는 혈연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성과 세대 간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또한, 제례는 반복적 집합의식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전통을 형성, 지속,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즉, 가족단위의 제례는 가족 공동체의 행동 양식과 가치를 형성시키고 이를 규칙적으로 행함으로서 자녀들의 가치체계를 사회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다. 제례의 주체자로서 성평등 인식 변화

- 제례 주체자로서 여성의 성역할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유교가 뿌리내리기 이전,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및 중기 무렵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자녀균분상속이 행해졌으며, 조상제사에 있어서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고, 제사준비뿐만 아니라 아헌을

비롯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법이었음.

- 따라서 조상제사의 의례에 관한 남성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함. 의례와 더불어 제사의 준비에도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2.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례의 기본방향

1)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의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 유지, 변화되므로 제례의 절차나 형식 등은 가능한 모든 가족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례의 가장 기본적 성격은 형식성과 규칙적 반복성임. 따라서 지나치게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제례 본연의 기능이나 의미가 미약해질 수 있음. 특히 제례의 절차와 형식은 가족의례인 동시에 사회적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례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제례의 현대적 조화

- 전통적 성역할 인식의 변화와 성평등 인식의 확산은 사회의 발전에 따른 필요적 요구일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조류임.
- 일하는 여성의 증가와 함께 가사에 있어서도 남녀의 동등한 역할이 강조됨.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동의하고 있지만 실질적 분담의 실행은 인식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여성이 제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제례의 절차와 형식을 포함하여 제례의 전 과정을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은 제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3) 전통과 현대의 조화

- 제례의 변화 수용은 현재적 관점에 제한될 필요는 없음. 전통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와의 소통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는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재산의 구분상속, 여성의 아헌, 딸의 부모 봉사 등 성평등적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를 통하여 제사 과정의 역할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제사의 절차와 형식에 대한 변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 정책적 제언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제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가. 역사 속 제례문화의 성평등 사례 소개하기

- 오늘날의 유교식 제례문화는 오랜 변화를 거쳐 안착됨.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제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서(禮書)에서는 제사 준비 및 행례과정에서 여성도 남성들과 똑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등 가례서에도 헌작, 진찬, 유식 등 의례절차에서 모두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역사 속 성평등 사례는 제사 과정의 역할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제사의 절차와 형식에 대한 변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역사 속 성평등 사례의 발굴과 소개는 관 주도 형식의 홍보를 통해서 파급력을 확대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아직 제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세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년층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직접 역사 속 제례문화의 성평등 사례를 찾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파급력은 관 주도 홍보보다 다소 느리겠지만 인식의 변화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임.

나.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지금까지 제사문화에 대한 지식은 남성 중심으로 전달되어 온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성평등 제례문화 담론의 확산을 위해 남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캠페인 활동 강화가 필요함.

- ‘우리 집 제사 이야기(가칭)’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 공모전을 통해 현재 제주도 남성들의 제사 참여 방식과 성평등 인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 참여형 캠페인과 선도적인 남성 모임 등을 통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성평등을 실천하도록 함.
-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들로 구성된 실천 모임 지원 및 활성화
- SNS를 통한 홍보 및 온라인 기반 참여형 캠페인 진행
- 제주지역 제례문화 사이트 개설을 통해 제례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제례에 대한 여성과 남성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

다. 남성 시니어를 위한 제례음식 요리교실

-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제례의 주례자와 참례자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례의 전승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례의 참여경험은 주로 절차적 형식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강하여 여성의 제례준비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임.
- 남성 시니어들에게 제례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제례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례 전승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음식 만들기의 기쁨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남성 시니어들의 성역할 인식의 변화와 이해는 가정 내 성역할 인식의 변화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 특히 이들이 가정 내 가부장적 권위의 실현체였다면 가정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의 추동체로 기능할 수 있음.

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 노력

- 제례를 둘러싼 성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제주지역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TF) 구성

- 각계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도정이 함께 제례문화 속 성평등 실천과제를 발굴·확산하여 성평등에 대한 도민 제감도 제고
- 공모사업을 통한 여성단체 지원 및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 태스크포스 운영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제례문화 관련 토크콘서트 등 소통프로그램 시행

마. 제주지역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 제주지역 제례문화는 제주 여성들의 지식과 기술이 체계화되어 있는 무형의 문화로서 가치가 있음. 따라서 제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 지식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사해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승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사와 제례문화를 접목한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양화하여 제주지역 여성의 문화유산 계승·발전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 및 집단에 대한 제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성평등 제례문화 현장체험기관으로서의 민속자연사박물관 활용 추진
- 제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제주지역 제례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제주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산물임. 따라서 제주 여성의 지혜가 체계화되어 있는 제례 관련 유형 및 무형의 유산을 발굴·조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지역 제례 음식은 타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 제례 음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오롯이 제주 여성들만이 계승하고 있는 유산임. 이에 대한 고증을 통해 문화 콘텐츠 개발 후 자원화 타당성 검토가 적극 필요함.
 - 개발된 문화 콘텐츠는 여성 역사문화 교육과도 연계되어 제주지역 인문학 강좌나 각종 교양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될 수 있음.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5
다. 연구절차	6
라.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6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9
1. 제례의 사회적 기능	11
2.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3
3.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과 변화	16
가.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	16
나. 제주지역 제례의 변화	19
제3장 제주지역 제례 의식 실태조사	21
1. 조사개요	23
가.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23
나. 조사대상자 특성	24
2. 제례의 절차와 방법	27
가. 평균 제사 횟수	27
나. 제사 형식	27
다. 동반 의례	28
라. 봉사 대수	30
마. 제사를 지내는 날짜	31
바. 제사를 지내는 시간	32

사. 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	32
아. 제사 방법	33
자. 제월전의 승계	33
차. 제사 대상	34
카. 제사 복장	35
타. 제기	35
파. 제사의 수행	36
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39
거. 제사음식 준비 방법	39
너. 제사상 차림 방식	40
더. 제수 비용	41
러. 제사비용의 부담	42
3. 제례에 관한 인식	42
가. 제사에 관한 인식	42
나. 제사의 기능	56
다. 제사의 변화방향	61
라. 제사에 대한 갈등	66
4.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72
가. 제례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72
나. 성역할 인식	74
다. 성역할 인식과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77
5. 제례에 대한 만족도	81
가. 성별 제례 만족도	81
나. 연령별 제례 만족도	83
6. 소결 및 시사점	84
가. 제사의 절차와 방법의 변화	85
나. 제례 의식의 변화	85
다. 성역할과 성불평등 인식의 변화	86
라. 제례문화 지속을 위한 만족도의 개선방안 마련	88

제4장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례 및 의식 심층면접 91

1. 조사개요	93
가. 조사방법	93

나. 조사 내용	93
다. 면접대상자 일반적 특성	93
2. 조사 내용 및 분석결과	94
가. 제사의례의 이행 현황	94
나. 제사의례와 성역할의 변화	107
다.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110
3. 소결 및 시사점	116
가. 소결	116
나. 시사점	117
제5장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방향 모색	119
1. 연구결과의 요약	121
가. 선행연구를 통한 제례의 변화 방향 모색	121
나. 제주지역 제례 의식 실태조사 결과	121
다.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례 및 의식 심층면접조사 결과	123
2. 정책적 시사점	124
가. 제주지역 제례의 현대적 의미	126
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례의 기본방향	128
3. 정책적 제언	128
가. 역사 속 제례문화의 성평등 사례 소개하기	128
나.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129
다. 남성 시니어를 위한 제례음식 요리교실	129
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 노력	130
마. 제주지역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130
부록.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도민 의식 조사」 설문지 ...	137

표 목 차

<표 3-1> 조사의 내용	23
<표 3-2> 평균 제사 횟수	27
<표 3-3> 제사 형식과 동반 의례	28
<표 3-4> 제사 형식과 절차	30
<표 3-5> 제사에 대한 인식 1 -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44
<표 3-6> 제사에 대한 인식 2 - 여성은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	45
<표 3-7> 제사에 대한 인식 3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47
<표 3-8> 제사에 대한 인식 4 -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48
<표 3-9> 제사에 대한 인식 5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	49
<표 3-10> 제사에 대한 인식 6 -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50
<표 3-11> 제사에 대한 인식 7 -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52
<표 3-12> 제사에 대한 인식 8 -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53
<표 3-13> 제사에 대한 인식 9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	54
<표 3-14> 제사에 대한 인식 10 -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	56
<표 3-15> 제사의 기능 1 -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57
<표 3-16> 제사의 기능 2 -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58
<표 3-17> 제사의 기능 3 -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60
<표 3-18> 제사의 기능 4 -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61
<표 3-19> 변화 방향 - 봉사 대수	63
<표 3-20> 변화 방향 - 제사 시간	64
<표 3-21> 변화 방향 - 향후 제사의 지속	65
<표 3-22> 제사의 가장 힘든 점	67
<표 3-23>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경험	68
<표 3-24>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내용	69
<표 3-25>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경험	70

<표 3-26>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횟수	71
<표 3-27>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73
<표 3-28>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74
<표 3-29> 성역할 인식 1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75	
<표 3-30> 성역할 인식 2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77
<표 3-31> 성역할 인식 1과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78
<표 3-32> 성역할 인식 1과 제사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79
<표 3-33> 성역할 인식 2와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80
<표 3-34> 성역할 인식 2와 제사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81
<표 3-35> 제례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5점) - 성별	82
<표 3-36> 제례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5점) - 연령	84
<표 4-1> 심층면접 조사 영역	93
<표 4-2>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94

그 립 목 차

<그림 3-1> 조사대상자 특성 - 성별, 연령	24
<그림 3-2> 조사대상자 특성 - 며느리·형제 순위	25
<그림 3-3> 조사대상자 특성 - 학력, 직업	25
<그림 3-4> 조사대상자 특성 - 월평균 소득, 가족형태	26
<그림 3-5> 조사대상자 특성 - 종교, 고향, 거주지역	26
<그림 3-6> 제사 형식	27
<그림 3-7> 봉사 대수	31
<그림 3-8> 제사 일자	31
<그림 3-9> 제사 시간	32
<그림 3-10> 제사 주관자	33
<그림 3-11> 제사 방법	33
<그림 3-12> 제월전의 승계	34
<그림 3-13> 제사의 대상	34
<그림 3-14> 제사 복장	35
<그림 3-15> 제기	36
<그림 3-16> 제사의 수행 - 시장 보기	37
<그림 3-17> 제사의 수행 - 음식 만들기	37
<그림 3-18> 제사의 수행 - 축문 작성	38
<그림 3-19> 제사의 수행 - 의례 수행 주도	38
<그림 3-20>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39
<그림 3-21> 제사음식 준비 방법	40
<그림 3-22> 제사상 차림 방식	41
<그림 3-23> 제수 비용	41
<그림 3-24> 제사비용의 부담	42
<그림 3-25> 제사에 대한 인식 1 -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43
<그림 3-26> 제사에 대한 인식 2 -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	45
<그림 3-27> 제사에 대한 인식 3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46

<그림 3-28> 제사에 대한 인식 4 -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47
<그림 3-29> 제사에 대한 인식 5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	49
<그림 3-30> 제사에 대한 인식 6 -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50
<그림 3-31> 제사에 대한 인식 7 -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51
<그림 3-32> 제사에 대한 인식 8 -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52
<그림 3-33> 제사에 대한 인식 9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54
<그림 3-34> 제사에 대한 인식 10 -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55
<그림 3-35> 제사의 기능 1 -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57
<그림 3-36> 제사의 기능 2 -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58
<그림 3-37> 제사의 기능 3 -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59
<그림 3-38> 제사의 기능 4 -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60
<그림 3-39> 변화 방향 - 봉사 대수	62
<그림 3-40> 변화 방향 - 제사 시간	63
<그림 3-41> 변화 방향 - 향후 제사의 지속	65
<그림 3-42> 제사의 가장 힘든 점	66
<그림 3-43>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경험	67
<그림 3-44>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내용	68
<그림 3-45>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경험	70
<그림 3-46>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횟수	71
<그림 3-47>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72
<그림 3-48>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74
<그림 3-49> 성역할 인식 1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75
<그림 3-50> 성역할 인식 2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77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이 연구는 제주지역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하는 성평등한 제례문화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여 제주다운 제례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에 의하면 “제례(祭禮)”란 기제사(忌祭祀) 및 명절에 지내는 차례(이하 “차례”라 한다)의 의식절차를 말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례의 범위를 ‘기제사’와 ‘차례’로 한정하고자 함.
- 우리나라 제례문화의 논의는 역사를 통해 변천해 왔음. 과거에는 우상 숭배라는 종교논쟁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현재에는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축이 바뀌고 있음.
- 유교가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조선시대, 그리스도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박해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상 제사에 대한 거부 때문임. 그러나 요즘은 제례가 남성 중심의 의례로서 여성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음. 나아가 가족의 소통을 목표로 하지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인 의무로 여겨지고 있기도 함.
- 제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일신을 인정하여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로 바라보는 신앙적 선택의 문제에 따른 갈등, 상당수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지나치게 많은 제사 횟수에 따른 피로감, 가부장주의 문화와 각종 상속문제 등으로 장남 집안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각종 허례허식, 구시대의 규범과 섞여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와 동떨어진 특성을 가졌다는 점 등 제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
- 제사의 긍정적 관점에서는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상의 덕을 기리는 아름다운 미풍양속, 가족구성원간의 소통과 화목의 의식, 가족사를 후손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가부장적 전통 속에 제례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은 마을제, 명절, 제사 등 다양한 제례에서 고정된 성역할이 재현되고 있음.

- 제주지역은 제삿날이 오면 제물준비, 제기와 제방 관리 등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제례의 주관자는 남성이고 이를 무사히 추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은 여성이었음. 이로 인해 여성들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신종 증후군인 제사증후군,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제례를 위한 장보기부터 뒷설거지까지 온통 여성들의 몫이기 때문임.
- 1999년 추석부터 2003년까지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명절과 제사 때의 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웃어라, 명절!, 명절과의 평등한 만남’이라는 지침서에는 좋은 명절 만드는 5가지 방법으로 “①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쉰다. ② ‘조상 모시기’ 딸도 할 수 있다. ③ 시집과 친정을 번갈아 방문한다. ④ 제사 때 여자도 절을 한다. ⑤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명절 금기(禁忌)를 없앤다” 등을 제안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경우, 1994년 서귀포시 생활개혁운동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가정의례 간소화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 이 운동은 상례(喪禮)에서 소상(小祥 : 사망한 지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을 간소하게 치르거나 가족들만 모여 제사를 지내는 야제(夜祭)로 전환한 시민 자율운동으로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제주지역에서도 남성 중심 사회의 실체를 바로 보고 제주 여성들의 성차별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운동이 ‘제주여민회’를 중심으로 있었음. 특히, 2007년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일상경험 사례 속에는 기제사나 명절 때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차별, 가부장 중심문화로 인한 차별, 남성우선 규범으로 인한 차별 등이 다수 발견됨.
- 사회의 변화와 가가례(家家禮)에 따라 제례형식이 변하고 있지만, 개선의 방향과 내용적 측면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임. 따라서 제례의 본래적 의미를 고찰하고, 성평등한 제례문화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여 제주다운 제례문화 확산이 필요함.
 - 특히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여성은 일과 가정에 대한 부담을 이중으로 지고 있는 한편 남성은 여성의 이중고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 분담은 기피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성역할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제례문화의 변화 방향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제례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주지역 제례

의 실태와 개인의 의식조사를 통해 제례문화의 변용을 진단하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시대에 적합하고 성평등한 제례문화가 전승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주의 대표적 제례 현주소에 대한 문헌 고찰
- 제주지역 제례에 대한 도민 인식, 참여 및 갈등 경험, 개선점 등 조사·분석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제례(기제사(忌祭祀), 명절 차례 등)의 절차와 방법, 제례에 관한 인식,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제례에 대한 만족도, 제례에서 성역할 갈등, 제례의 지속가능성, 제례 시행의 의미, 제례문화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등
- 제례문화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성평등한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제주지역 제례의 의의와 변천에 대한 문헌검토
- 설문조사: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 약 400명 대상
- 심층면접: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민 약 10명 대상

다. 연구절차

○ 본 연구의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관련 자료 수집 및 내용 분석
3단계	전문가 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4단계	조사 실시	⇔	•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5단계	조사 결과 분석	⇔	• 조사결과 분석·집필

라.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점

1) 연구의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제주지역 제례의 일반적인 모습과 이에 관한 제례 주례자와 참례자의 인식을 현재적 관점에서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제례의 변화 양상과 방향에 관한 제주도민의 의견도 상세히 담고 있음.
- 또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자료를 모두 구현하여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제주다운 성평등 제례문화 방향을 모색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제례문화 확산 및 건전생활문화 실천운동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제한점

-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
 - 조사범위의 한계 : 이 연구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일반적 특성과 변화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다양한 가가례의 특성이 모두 담긴 것은 아님. 따라서 개별 가문의 풍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대상의 한계 : 본 연구 대상의 표집에 있어서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30세 미만의 제례 의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또한 제사의 주례자와 참례자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제사의 주례자와 참례자 개별적 특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님. 따라서 결과를 확대·해석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앞으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

- 조사기간의 한계 : 이 연구는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변화와 그 양상에 관한 인식을 현재적 관점에서 잘 담고 있지만 특정시점에 대한 횡단면적 연구로 시계열적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함.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제례의 사회적 기능
2.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3.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과 변화

1. 제례의 사회적 기능

- 의례(ritual)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신앙, 신념 등)을 표현하는 실천 형태를 의미함. 따라서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됨.
 - 공동체는 의례를 통해 서로 공유하는 가치관이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구성원들은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확인하게 됨(뒤르켐, 1992).
 - 의례는 공동체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주요 기제가 되었음(홉스봄 외, 2004). 따라서 의례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속과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에 동참하게 만듦으로써 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게 됨.
- 오늘날 한국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유교식 제례 역시 그 시원은 공동체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
 -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孔子)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스러웠던 중국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예(禮)’를 강조했다. 특히 ‘예’에 대한 공자와 초기 제자들의 가르침을 모은 『예기(禮記)』에서는 의례 가운데 제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음(이욱, 2011).
 - 『예기』의 「제의(祭義)」편에서는 예의 기능을 내가 “말미암아 나온 바로 되돌아가는 것(反其所自生)”이라고 함(이욱, 2011: 478 재인용). 따라서 제사의 목적은 시원(始原), 즉 나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임.
 - 결국 사회의 안정과 통합은 자신을 나아준 부모를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유교식 제례의 근본적인 가르침임.
- 이러한 유교식 제례가 한반도에 일부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였음. 그리고 고려 말 송(宋)나라의 주희(朱熹)가 저술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사대부들에 의해 도입되고, 신유교라고 할 수 있는 주자학이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유교식 제례는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음.
 - 특히 조선왕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등을 반포하여, 국가 및 가정에서 이뤄지는 유교식 제례의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는 등 백성들의 제례 행위 전반을 통제하고자 하였음.
 - 그것은 유교적 가르침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는 집권자들의 사상적 신념이 국가 통치제도에 반영된 것이었음. 이점에서 유교식 제례는 백성들이 조

선왕조의 일원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받는 수단이자, 가족과 마을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실천이었음.

- 그러나 의례는 사회통합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 권력관계의 투영 혹은 지배-피지배 관계의 정당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옴.
 -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신앙, 신념 등)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실천인 의례는 물적 토대에서 형성된 권력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의식으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임(마르크스, 1992; 1998).
 - 제례 역시 한국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인 지배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 예를 들어 조선후기에 들어 부계 중심의 가부장적 대가족 질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상속제도의 변화로 인해 적장자가 제사를 계승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음(피터슨, 2000; 미야지마 히로시, 2014). 즉, 적장자가 제사를 주관하게 됨으로써 장자·남성 중심의 상속제도와 가부장적인 지배질서가 동시에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임.
- 이점에서 의례를 주관하는 집단은 일종의 종교권력(Religious power)을 가지게 되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제하게 됨.
 - 이러한 의례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조선 후기 벌어진 천주교 박해였음. 당시 천주교인들은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제사를 폐지하려고 하였고, 조선왕조는 그들을 국사범(國事犯)으로 처형함으로써 제사 폐지가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임을 극단적으로 알렸음.
 - 그것은 단순한 제사 폐지가 아니라 국가의 지배이념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임.
- 이처럼 제례는 사회통합과 사회통제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점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과제는 제례를 둘러싼 성역할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함으로써 제례가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통제의 장이 아니라 평등한 남녀관계가 실현되는 사회통합의 장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제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서(禮書)에서는 제사 준비 및 행례과정에서 여성도 남성들과 똑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예기(禮記)』 제25편 제통(祭統)에 “대체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친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것이 밖과 안의 제관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제관이 갖추어지면 제물도 갖추어지게 된다(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具備.)”고 명시되어 있고,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 등 가례서에도 헌작(獻爵), 진찬(進饌), 유식(侑食) 등 의례절차에서 모두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남성이 초헌(初獻)을 하고 나면 여성이 아헌(亞獻)을 하는 것은 물론, 진찬 때에 어육과 미면식, 그리고 메와 갯을 올릴 때에도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번갈아 올림. 유식례에서도 남성이 침작을 하면 여성이 삼시정저(搯匙正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사 참례도 완전히 남녀평등하게 참여했음이 확인됨(김경선, 2008).
- 제례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우선 제례의 형식과 의미를 다룬 연구들이 있음(이육, 2011; 최규홍, 2016).
 - 이들은 특히 유교식 제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기(禮記)』, 『논어(論語)』 등 유교 경전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음. 이 연구들은 제례의 순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제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음. 결국 이 연구들은 제례의 사회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례를 둘러싼 남성과 여성이라는 주체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즉, 이 연구들은 성 중립적인 주체를 설정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반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례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례를 둘러싼 성평등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상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제례의 변화양상을 검토한 연구가 있음(박종천, 2010; 김주희, 2014).
 - 박종천(2010)은 한국사 속에서 제례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어왔는가를 추적하고 있음. 이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제례문화가 어떤 과

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과제에 일정한 의미가 있음.

- 특히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1969)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1973)의 제정 이후, 유교적 생활의례의 간소화가 추진되면서 제례문화 역시 현대인의 삶에 맞게 간소화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익함.
 - 이 법률은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1998년 해당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98헌마168)을 받았음. 그 결과 1999년 2월 8일에는 기존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여 2008년에 일부 개정 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김주희(2014)는 오늘날 농촌사회를 배경으로 제례문화의 변화양상을 검토하였음. 농촌사회 역시 도시화의 영향에 따라 제례 수행형태가 간소화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제주지역 또한 도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유교식 제례와 그리스도교와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존재함.
- 그것은 주로 그리스도교 계통의 학자들로부터 수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스도교 선교 관점에서 제례문화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한경호, 2004, 이정순, 2012).
 - 이 연구들은 유교식 제례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례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교화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들을 펼치고 있음.
- 또한 현대 한국사회에 도입된 그리스도교 문화가 제례문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음(문옥표, 1998).
- 이 연구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는 제례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추도식이 한국사회 제례형태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또한 그리스도교 문화의 확산은 보조적 역할에 불과했던 여성들의 제례 참여방식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음.
-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주류 문화로 성장한 그리스도교 문화가 제례문화를 바라보는 방식과 그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성평등적 관점에서 제례를 직접 분석한 연구로는 김미정·최선영(2005)의 연구가 있음. 이 연구는 고프만(E. Goffman)의 연기이론을 통해 기혼여성들이 접하는 명절·제사 경험을 분석했음. 이를 통해 명절과 제사가 여성(며느리)들에게 요구하는 경험이 그들의 인격과 자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음.
 - 그들은 그것이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성과 개인의 주체성이 충돌한 결과라고 주장하였음.
-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로는 강동수 외의 연구(2010)가 있음. 그들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며느리가 동거하는 며느리에 비해 명절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 그것은 보다 성평등한 문화(여성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문화) 속(핵가족)에 살아가던 며느리가 그렇지 않은 문화(여성의 주체성이 부정되는 문화) 속(시부모 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문화 충격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앞선 연구와 비슷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명절을 두고 남성과 여성이 겪는 스트레스 차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 김순중(2014: 77)의 연구에 의하면, 명절 차례와 관련하여 가사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고, 기혼 남녀의 명절 스트레스를 비교한 조세정 외(2016)의 연구에 따르면, 명절은 기혼 남녀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었으며,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평등한 성역할이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점이 추정 가능함.
 -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제례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 제례 수행정도가 높은 맏며느리가 다른 며느리보다 더 많은 명절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강동수 외, 2010).
 - 결국 장남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구조가 제례 수행과정에 반영됨으로써 맏며느리를 정점으로 하는 여성들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임.
 - 김미동·김해란(2018: 108)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화병 환자는 설 명절 직후인 3

월, 추석 즈음인 9월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또한 2015년 이혼율은 명절 전 달에 비해 18%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연구들은 제례가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가족의례이며,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성역할을 강제함으로써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여성들에게 유발시키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여성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친교를 해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제례를 둘러싼 남녀 간 성역할 문제를 검토하고, 보다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작업은 제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제례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 체험을 통한 안정감 확보와 가족 간의 화합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례의 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3.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과 변화

가. 제주지역 제례의 특징

- 제주유맥육백년사(濟州儒脈六百年史)(1997) 기록에 의하면 제주도의 제례는 사례편람(四禮便覽)을 중시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그 특징으로는 집에서 제사나 명절의 제의를 지낼 때에 문전제(門前祭)라 하여 문신(門神)에게 약식 제사를 지내고, 부엌의 신인 조왕에게 고사를 지내는 점, 명절 때의 제의가 차례가 아니라 제사 때의 제의와 꼭 같이 지내는 점, 축문(祝文)이 없는 점, 주부가 아헌관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남성 자손만이 제관이 된다는 점 등임.
- 또한, 친족 집단은 제사 집단이라 해도 좋을 만큼 그 임무에 제사·명절을 공동으로 지낸다는 특징이 있음. 친족의 최소 집단은 고조부모를 정점으로 한 자손의 집단으로서 흔히 ‘당내(堂內)’라고 불러왔음. ‘당내(堂內)’란 ‘집안’이라는 한자어인데, 제주에서는 ‘방상’ 또는 ‘방답’이라고 함. ‘방상’은 고조부모의 자손들의 집단이니만큼 고조부모 이하의 자손들이 제사·명절을 같이 지냄(제주유맥육백년사(濟州儒脈六百年史), 1997).
- 제주지역 제례의 두드러진 특징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첫째, 제주지역

제례문화에는 무속신앙과 유교식 의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

- 현승환(1997)은 그 근거로 문전제(門前祭)를 들고 있음. 문전제는 제사를 시작하면서 문신(門神)을 위해 제를 지내는 것인데, 문신은 조왕신과 함께 집안을 지키는 가택신으로서 심방에 의해 행해지는 무속의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신임. 현승환은 이러한 무속신앙이 유교식 제례절차에 섞이게 되면서 문전제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함.
- 이렇듯 제주지역에서는 문신과 조상을 위해 두 개의 제사상을 올리는데, 그것은 제주도에서만 나타나는 제례문화라고 할 수 있음.
- 둘째, 제주지역에서는 제사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는 관습이 존재함. 이것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주도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김혜숙·김은희·김항원·유철인, 2005).
 - 현승환(1997)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은 제사를 단순한 조상 추모의례가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 조상신을 모시는 의례라고 생각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양자를 들이는 관습은 조상신을 모셔줄 후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식(조상신이 될 자신을 불러줄 후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렇듯 양자를 들이는 관습은 제주지역 제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길잡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제주지역 제례의 계승방식은 장남 봉사(奉祀) 위주의 일반적인 제사 계승방식보다는 형제 분할계승방식의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쓰하 다카시, 2007). 이러한 제사 계승방식은 재산 균등분할 방식의 형태로 함께 드러나고 있음(김혜숙·김은희·김항원·유철인, 2005).
 - 이처럼 형제간 제사 균등분할 방식의 제주지역 제례문화는 장남봉사 방식의 타 지역 제례문화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제례를 둘러싼 성역할에서도 제주지역과 타 지역 간에 일정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예를 들어 큰며느리에게 가중되는 것으로 보이는 제례준비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제례가 균등분할 됨에 따라 가부장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족 내의 압력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제례 균등분할에 따른 재산 균등분할 문화는 제례

- 에 임하는 가족구성원 특히 여성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
- 이상의 세 가지 특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유교 문화가 일부 변형되고 있다는 점임.
 - 문전제는 제주 무속신앙이 습합된 모습이며, 양자를 들이는 관습은 조상신이라는 무속 신앙이 반영된 것이고, 제례 균등분할 방식 역시 육지부의 유교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임.
 - 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는 제주지역에 유교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시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늦다는 점임.
 - 예를 들어 1702년부터 1년간 제주목사로 재임한 이형상 목사는 제주지역의 신당들을 파괴하고, 무속신앙 형태의 토착의례들을 유교식을 바꾸는 정책을 펼쳤음(조성윤·박찬식, 1998). 그러한 이형상 목사의 행보는 역설적으로 조선후기까지 제주지역에 무속신앙이 강하게 남아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그리고 그것은 조선후기까지 유교적 가부장 체제가 제주사회에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줌.
 - 그것은 18-19세기 제주지역 분재기(分財記) 자료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음. 당시 제주지역에서는 17세기에 이미 육지에서 나타났던 재산상속 방식 즉, 딸을 제외한 재산상속과 제사봉행 방식이 뒤늦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임(문숙자, 2006).
 - 하지만 19세기 이후 제주사회에 유교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가부장적 질서 역시 자리를 잡아갔음. 19세기에 가장 많은 열녀가 정표되었다는 점은 이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임(김지혜, 2009).
 - 유교식 제례문화가 전면적으로 제주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도 19세기 이후라고 추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유교문화가 제주사회에 정립되려는 시점에 발생한 조선왕조의 멸망은 유교적 가치관을 주류 가치관에서 밀려나게 만들었음.
 - 그 결과 제주지역의 문화는 무속신앙으로 대표되는 토착문화와 유교문화가 뒤섞인 상태로 공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제주지역의 제례문화라고 할 수 있음.
 - 제주지역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해석되기도 함. 현승환(1997)은 제주지역 제례에

서 남성이 모든 절차를 주도하지만, 여성은 제물을 준비하는 역할만을 해왔다고 주장하여 제례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조적으로 해석한 것에 반해 문순덕(2011, 2013)은 제례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주체자, 조력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여성이었다고 주장하여 제례의 전승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더 주도적으로 해석함.

- 제례의 절차와 형식적 측면에서는 현승환(1997)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지만 제사의 절차와 형식이 실현되는 구체적 과정이 여성의 주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는 문순덕(2011, 2013)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짐.
- 또한 이러한 여성의 참여는 제례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기여도가 큼.

나. 제주지역 제례의 변화

- 제주지역의 제례문화 역시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겪고 있음.
 - 현혜경(1999)에 따르면, 결혼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봉사 대수가 줄어들고 있고, 수놓음 공동협력 노동 체제에서 임노동 체제로 노동시장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동네 이웃들이 제례에 함께 참여하던 관습도 점차 사라지고 있음. 또한 제례의 종교적 성격 역시 감소하여, 조상신을 모시는 의미에서 추모의 의미로 제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정희중(2009)의 연구가 있음. 그는 제주도 농촌지역의 상례 문화를 분석하면서, 1990년대 이후 제주지역의 상례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상례절차가 간소화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것임.
- 이들의 연구가 10년에서 20년 전 제주지역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제주사회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의 제례문화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일례로, 강경숙(2010)은 제주지역 제례에서 여성에게 과중하게 부과된 역할을 남성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과 의례의 시장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비해 성별 역할 분리의 변화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도내 이주민의 급격한 유입으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상당수 유입되고 있고,

제례를 추도식의 형태로 이해하는 그리스도교 인구의 증가와 전통적인 유교식 제례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불교·유교 인구의 감소는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그리고 그것은 제례 수행형태의 간소화와 이에 따른 공동체 결속력의 약화 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것은 가부장적 가족 질서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제례를 둘러싼 성역할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제주지역에서도 가가례(家禮)에 따라 제례형식이 변하고 있고 그 방향과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음. 다만, 앞서 살펴본 『예기(禮記)』의 법도에 가장 어긋나고 있는 것이 여성의 제사 참례임.
- 제사는 조상에 대한 추모행사이며 특히 핵가족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친족이 한데 모여 유대 관계를 결속시키는 기회가 되므로 남녀가 함께 제사를 준비하고 참례하는 것은 좋은 풍속이라 여길 수 있음. 다만,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제사 준비는 여성들의 몫이고 제사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여성들로 하여금 ‘제사명절 증후군’ 같은 심리적·육체적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음. 따라서 제례가 미풍양속으로 전승되어야 할 문화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적인 제사의 의미와 역할 분담에 대해 바른 인식과 실천이 절실할 때임.

제주지역 제례 의식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제례의 절차와 방법
3. 제례에 관한 인식
4.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5. 제례에 대한 만족도
6.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방법

- 조사대상 :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
 - 표 본 수 : 401명(제주시 286명, 서귀포시 115명)
 - 조사방법 : 1:1 면접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11월 2일~11월 18일(17일간)
 - 조사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
 - 표집방법 : 성별, 연령, 지역 체계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 $\pm 4.9\%$ Point
-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3-1〉 조사의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대상자 특성	- 성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형제/자매 또는 며느리/사위 순위, 가족형태, 고향, 종교, 거주지역
제사의 일반적인 현황	- 1년에 지내는 제사 횟수, 제사의 형식, 봉사 대수,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시간, 제사 주관자, 제사 방법, 제월전 승계여부, 제사 대상, 제사와 함께 지내는 의례, 제사 내용, 제사 의복, 제기, 제사 수행자(시장 보기, 음식 만들기, 축문작성, 의례수행 주도),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제사상 차림 방식, 1회 제사의 제수 비용, 제사비용의 부담
제사에 관한 인식과 기능	- 제사에 관한 인식 : ①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②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워 도와야 한다, ③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④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⑤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⑥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⑦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⑧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⑨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⑩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 제사의 기능 : ①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②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③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④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 제사의 변화방향 : 봉사 대수, 제사를 지내는 날짜와 시간, 제사의 지속
제사에 대한 갈등 및 성불평등 인식	- 제사의 가장 힘든 점, 제사 수행 후 가족과의 갈등 경험 및 갈등 내용,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경험 및 횟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 및 성역할 인식	-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 : ①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②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③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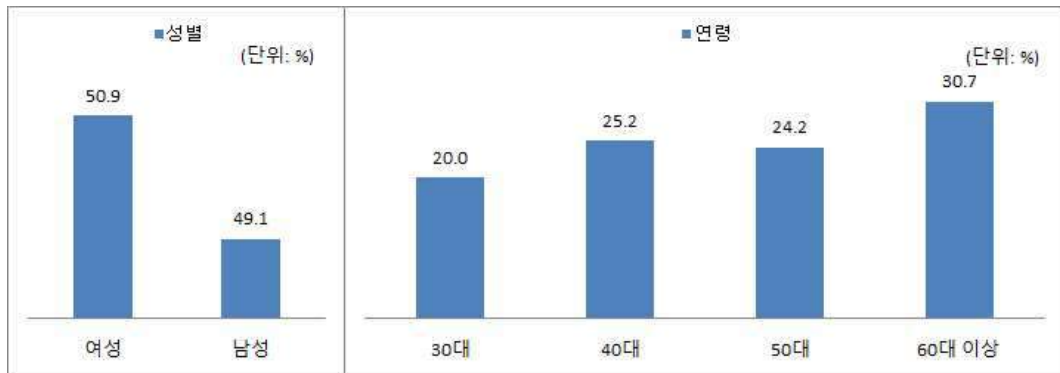
제사에 대한 만족도	<p>어려움을 겪게 된다, ④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⑤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p> <p>- 성역할 인식 : 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②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p>
	<p>- 만족도 항목 : ①제사를 지내는 것, ②제사 형식(방법), ③제사 절차(순서), ④제사의 음식상 차리는 방법(진설법), ⑤제사를 맡아서 지내는 사람, ⑥제사 횟수, ⑦제사 시간, ⑧제사를 지내는 조상님의 봉사 대수 범위, ⑨제사 때 신위(사잔지방)모시는 방법, ⑩제사 때 쓰는 제기(그릇), ⑪제사 지낼 때 직접 참여하는 사람(성별, 세대), ⑫제사 장소, ⑬제사에 참석하는 친척범위, ⑭제사 때 입는 옷(복장), ⑮제사 때 들어가는 제수 비용, ⑯제사 때 준비하는 음식종류, ⑰제사 때 음식준비 방법, ⑱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 처리 방법, ⑲제사 때 가사노동 분담, ⑳제사 때 나의 역할과 지위(위치), ㉑제사 때 가족 간 친목</p>

나. 조사대상자 특성

○ 조사대상자 401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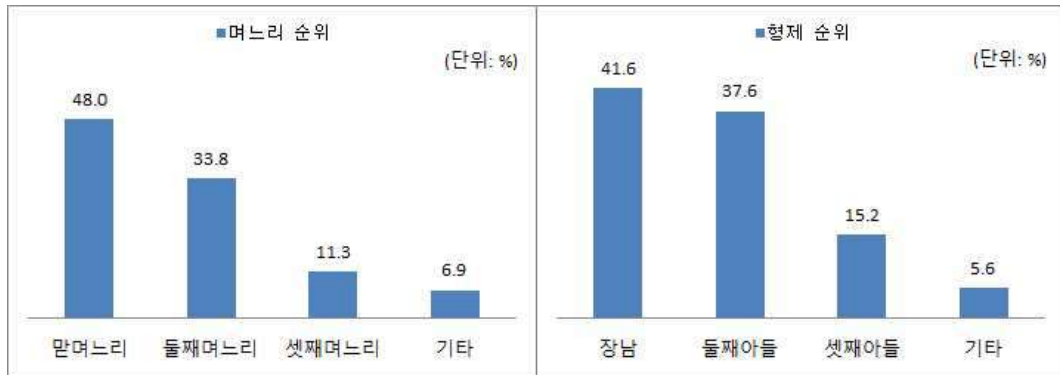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 50.9%(204명), 남성 49.1%(197명)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음.
- 연령별로는 30대 20.0%(80명), 40대 25.2%(101명), 50대 24.2%(97명), 60대 이상 30.7%(123명)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음.

〈그림 3-1〉 조사대상자 특성 - 성별, 연령



- 며느리 순위별로는 맏며느리 48.0%(98명), 둘째 며느리 33.8%(69명), 셋째 며느리 11.3%(23명), 기타 6.9%(14명) 순으로 맏며느리가 가장 많음.
- 형제 순위별로는 장남 41.6%(82명), 둘째 아들 37.6%(74명), 셋째 아들 15.2%(30명), 기타 5.6%(11명) 순으로 장남이 가장 많음.

〈그림 3-2〉 조사대상자 특성 - 며느리·형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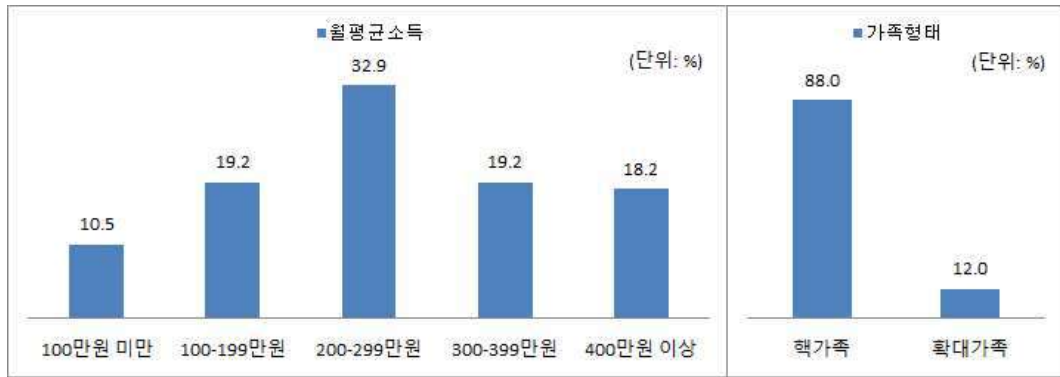
-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42.6%(171명), 전문대졸 이상 57.4%(230명)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조금 더 많음.
-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 29.4%(118명), 사무직 20.2%(81명), 관리·전문직 14.5%(58명), 단순 노무·생산직, 기타 13.5%(54명), 전업주부·무직 12.0%(48명), 농·축·수산업 10.5%(42명) 순으로 판매·서비스직이 가장 많음.

〈그림 3-3〉 조사대상자 특성 - 학력,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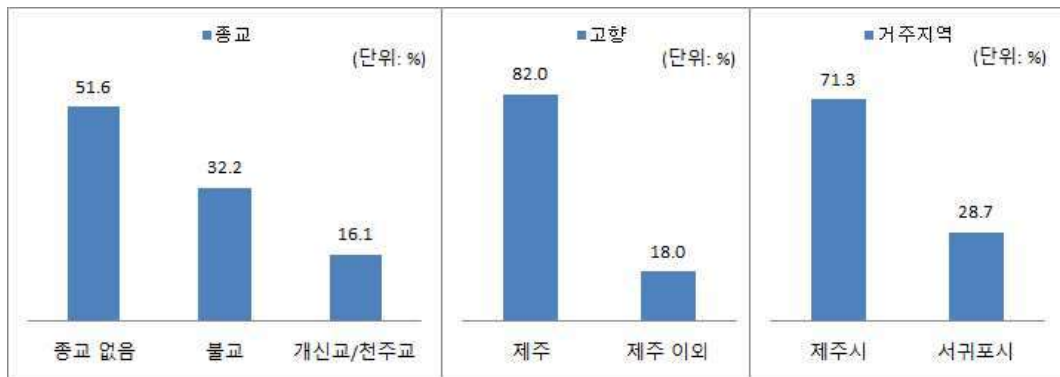
-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 원대 32.9%(132명), 100만 원대 19.2%(77명), 300만 원대 19.2%(77명), 400만 원 이상 18.2%(73명), 100만원 미만 10.5%(42명) 순으로 200만 원대가 가장 많음.
- 가족형태별로는 핵가족 88.0%(353명), 확대가족 12.0%(48명)로 핵가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4> 조사대상자 특성 - 월평균 소득, 가족형태



- 종교별로는 종교없음 51.6%(205명), 불교 32.2%(128명), 개신교/천주교 16.1%(64명) 순으로 종교가 없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음.
- 고향별로는 제주지역 82.0%(329명), 제주 이외 18.0%(72명)로 제주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 71.3%(286명), 28.7%(115명)로 제주시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5> 조사대상자 특성 - 종교, 고향, 거주지역



2. 제례의 절차와 방법

가. 평균 제사 횟수

- 1년에 지내는 평균 제사 횟수는 약 2~3회로 나타남.
 - 1년에 지내는 제사의 평균 횟수를 살펴보면,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평균 2.37회, ‘다른 곳(형제자매나 친척)에 참가하는 제사’는 평균 2.75회로 나타남.
 - 다만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최대 10회, ‘다른 곳(형제자매나 친척)에 참가하는 제사’는 최대 17회로 나타나 가정마다 차이를 보임.

〈표 3-2〉 평균 제사 횟수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제사 횟수_집에서 지내는 제사	401	0	10	2.37	1.949
제사 횟수_다른 곳(참가)	401	0	17	2.75	2.740

나. 제사 형식

- 제사의 형식은 대부분 유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교식을 제외한 형식 중에서는 불교식이 조금 더 많음.
 - 제사의 형식은 유교식 81.5%, 불교식 10.3%, 기독교(개신교)식 5.5%, 천주교식 2.8% 순으로 유교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교식을 제외한 형식 중에서는 불교식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6〉 제사 형식



다. 동반 의례

- 제사와 함께 지내는 의례로는 문전제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사 형식별로는 유교식 제사와 함께 이뤄지는 문전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제사 동반 의례로는 문전제가 305건, 조왕제가 6건, 토신제가 16건으로 다른 의례에 비해 문전제가 압도적으로 많음.
 - 제사 형식별로는 유교식과 불교식에서 동반의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교식으로 지내는 제사에서는 문전제 98.5%, 토신제 5.1%, 조왕제 1.8%로 나타났으며, 불교식으로 지내는 제사에서는 문전제 97.5%, 토신제 5.6%, 조왕제 2.8%로 나타나 문전제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현승환(1997)에 의하면, 문신(門神)에게 올리는 문전제는 무속신앙과 유교식 의례가 공존하는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임. 제사 동반 의례로 유교식 제사와 함께 이뤄지는 문전제의 높은 비율은 문신과 조상을 위해 2개의 제사상을 준비하는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음.

〈표 3-3〉 제사 형식과 동반 의례

단위 : 명(%)

구분	제사 형식		계	
	유교식	불교식		
동반 의례 ¹⁾	문전제	270(98.5)	35(97.2)	305
	조왕제	5(1.8)	1(2.8)	6
	토신제	14(5.1)	2(5.6)	16
계 ²⁾	274	36	310	

주 : 동반의례는 복수응답항목이며, 응답 퍼센트(%)는 제사 형식별 계에 대한 응답자 수의 백분비임.

- 유교식 제사의 절차에서는 삼헌작과 절을 이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밖에 신위(지방), 사진, 축문을 이행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축문은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 응답자들의 20.0%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교식 제사 절차의 이행은 절 94.2%, 삼헌작(술잔을 3번 올림) 94.2%, 신위(지방) 67.1%, 사진 55.1%, 축문 20.0%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교식 제사에서 절과 삼헌작을 이행하고 있으며, 신위(지방)와 사진은 절반 이상이 이행하고 있는 반면

축문은 그 비율이 20%에 그쳐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기독교(개신교)식 절차에서는 기도 이행이 100%로 가장 많고 성서봉독과 찬송도 부분 이행하고 있지만 사진은 절반정도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독교(개신교)식 절차의 이행은 기도 100.0%, 성서봉독 81.0%, 찬송 71.4%, 사진 52.4% 순으로 나타나 모든 기독교(개신교)식 제사의례에서 기도를 이행하고, 성서봉독과 찬송도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반면 사진은 절반정도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천주교식 절차에서는 기도를 가장 많이 이행하고 있으며, 사진도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만 성서봉독을 절반정도, 찬송은 27.3%에 그쳐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천주교식 절차의 이행은 기도 90.9%, 사진 72.7%, 성서봉독 54.5%, 찬송 27.3% 순으로 기도를 이행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사진도 대부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서봉독은 절반정도 이행하고 있으며, 찬송은 27.3%만 이행하고 있어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불교식 절차에서는 불교식 절차로 분류되는 삼귀의례와 불경독경의 이행 비율은 매우 낮는데 비해 통상 유교식으로 분류되는 절과 삼헌작, 신위(지방)의 이행 비율이 더 높아 불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교식 제사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불교식 절차의 이행은 절 78.0%, 삼헌작(술을 3번 올림) 75.6%, 신위(지방) 68.3%, 사진 56.1%, 삼귀의례 7.3%, 불경독경 4.9% 순으로 나타나 불교식 제사이지만 통상 유교식 절차로 분류되는 절과 삼헌작을 이행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신위와 사진은 절반이상 이행하고 있으며, 불교식 절차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삼귀의례나 불경독경은 이행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 따라서 불교식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교식 절차를 더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제사 형식과 절차¹⁾

단위 : 명(%)

구분	제사 형식				계	
	유교식	기독교(개신교)식	천주교식	불교식		
유교식 절차	축문	65(20.0)	-	-	-	65
	신위(지방)	218(67.1)	-	-	28(68.3)	246
	사진	179(55.1)	11(52.4)	8(72.7)	23(56.1)	221
	절	306(94.2)	-	-	32(78.0)	338
	삼헌작	306(94.2)	-	-	31(75.6)	337
기독교(개 신교)식 절차	기도	-	21(100.0)	10(90.9)	-	31
	성서봉독	-	17(81.0)	6(54.5)	-	23
	찬송	-	15(71.4)	3(27.3)	-	18
불교식 절차	불경독경	-	-	-	2(4.9)	2
	삼귀의례	-	-	-	3(7.3)	3
계 ²⁾	325	21	11	41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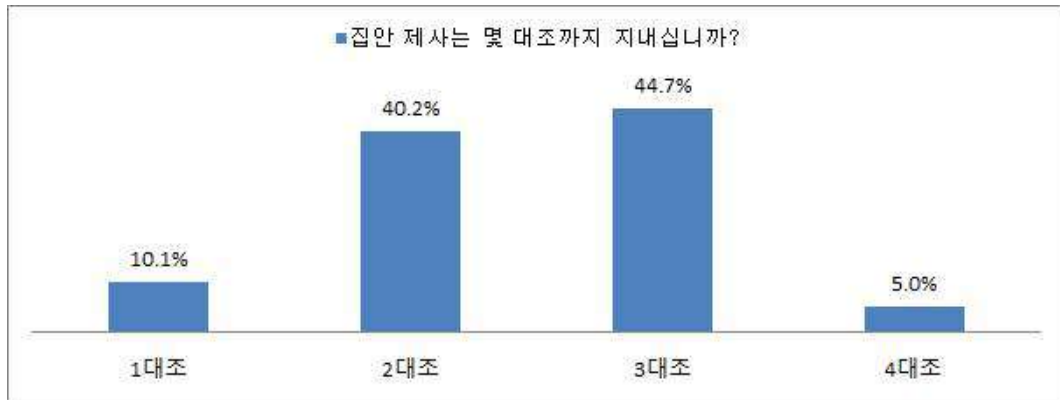
주 : 제사의 절차는 복수응답 항목이며, 응답 퍼센트(%)는 제사 형식별 계에 대한 응답자 수의 백분비임.

라. 봉사 대수

○ 제사는 3대조 또는 2대조까지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제사의 봉사 대수는 3대조 44.7%, 2대조 40.2%, 1대조 10.1%, 4대조 5.0% 순으로 3대조 또는 2대조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조선 전기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년)』의 반포와 함께 신분제에 따라 차등을 두어 봉사 대수를 달리했지만,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까지 4대봉사가 확산되었고, 이후 가정의례준칙(1969년 제정)은 조부모까지의 제사를 권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대조 이상의 봉사는 조선 후기, 특히 신분철폐가 이루어진 갑오경장(1894년) 이후의 영향이 더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2대조 이하까지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3대조 이상 제사를 지내는 경우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사의 봉사 대수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 대수는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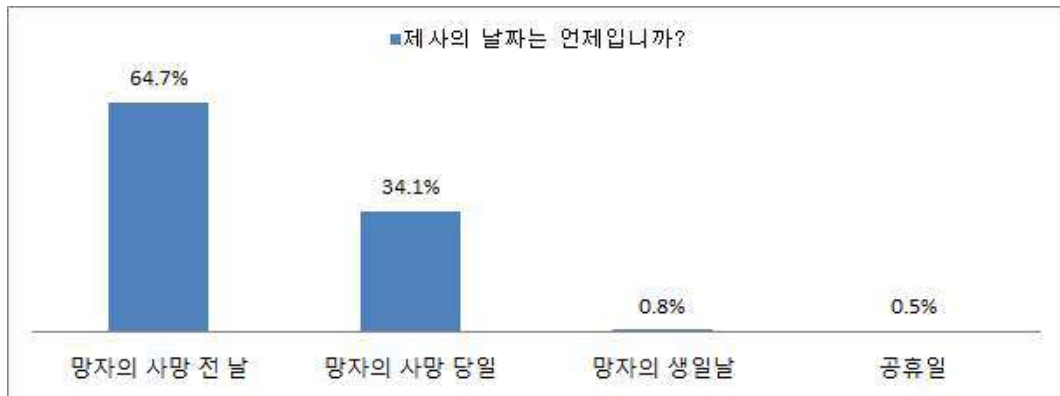
〈그림 3-7〉 봉사 대수



마. 제사를 지내는 날짜

- 제사는 주로 망자의 사망 전 날(64.7%)이나 사망 당일(34.1%)에 지내고 있음.
 - 제사를 지내는 날짜는 망자의 사망 전 날 64.7%, 망자의 사망 당일 34.1%, 망자의 생일날 0.8%, 공휴일 0.5% 순으로 망자의 사망 전 날에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망자의 사망 당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음.
 - 공휴일에 지내는 경우는 단 2건(0.5%)만 나타나 망자의 제사일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경향을 잘 보여줌. 따라서 평일에 지내는 제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에 제사를 지내는 일은 현실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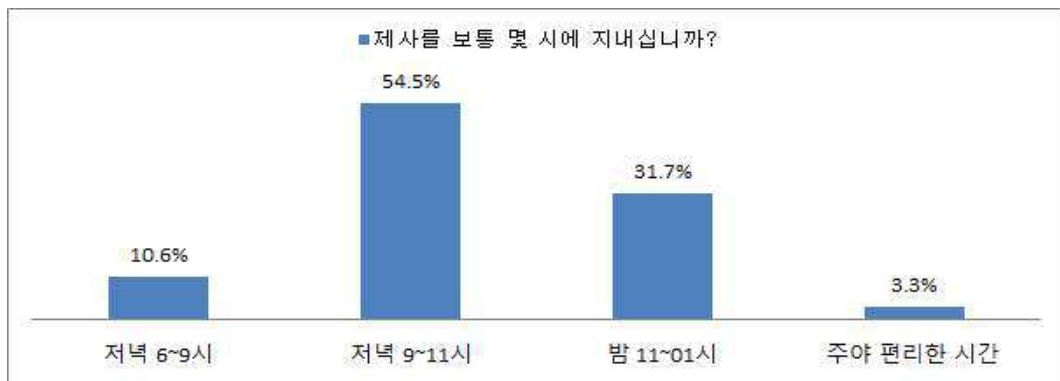
〈그림 3-8〉 제사 일자



바. 제사를 지내는 시간

- 제사는 보통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54.5%)에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며,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지내는 비율이 31.7%에 그쳐 제사 시간에 대한 통념에 변화가 있었음.
 -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저녁 9~11시 54.5%, 밤 11시~새벽 1시 31.7%, 저녁 6~9시 10.6%, 주야 편리한 시간 3.3% 순으로 나타나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주야 편리한 시간에 지는 경우는 13건(3.3%)에 불과함.
 - 그러나 과거 제사를 지내는 시간으로 통용된 자시(子時,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제사를 지내는 비율을 31.7%에 그쳤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도 10.6% 수준으로 제사 시간에 대한 통념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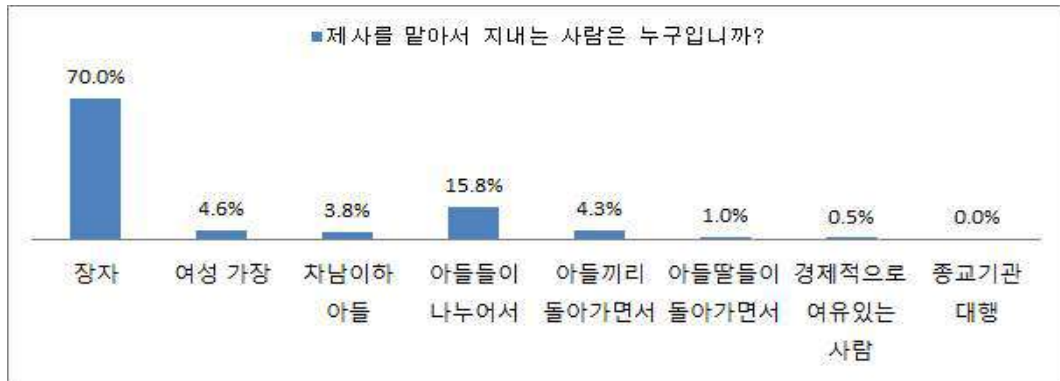
〈그림 3-9〉 제사 시간



사. 주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

- 대부분의 제사는 장자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아들들이 나누어서 지내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낮음.
 - 제사의 주관자는 장남 70.0%, 아들들이 나누어서 15.8%, 여성 가장 4.6%, 아들끼리 돌아가면서 4.3%, 아들·딸들이 돌아가면서 1.0%,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 0.5% 순으로 제사는 대부분 장남이 맡아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의 주관 책임이 장남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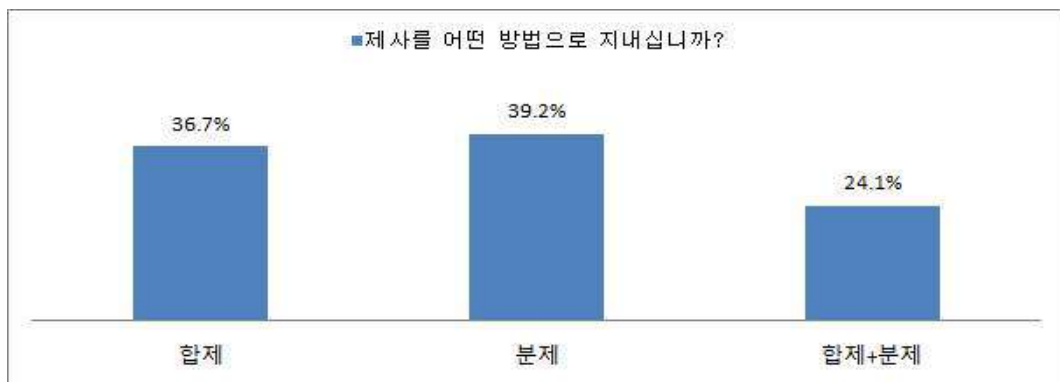
〈그림 3-10〉 제사 주관자



아. 제사 방법

-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분제가 가장 많지만 합제 또는 합제와 분제가 혼합된 형식이 모두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분제 39.2%, 합제 36.7%, 합제와 분제 24.1%로 분제로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3-11〉 제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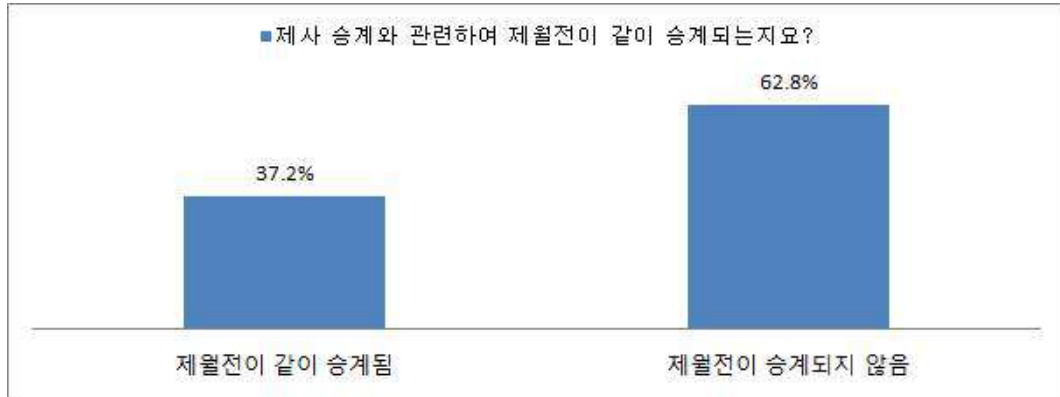


자. 제월전의 승계

- 조상 제사를 모시기 위해 상속했던 제월전은 제사와 함께 승계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제월전은 승계됨 37.2%, 승계되지 않음 62.8%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2> 제월전의 승계



차. 제사 대상

- 제사는 본가(시가) 조상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지만 양가 모두 지내는 경우도 나타남.
-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본가(시가) 조상만 89.9%, 양가 조상 9.0%, 처가(친정) 조상만 1.0% 순으로 본가(시가) 조상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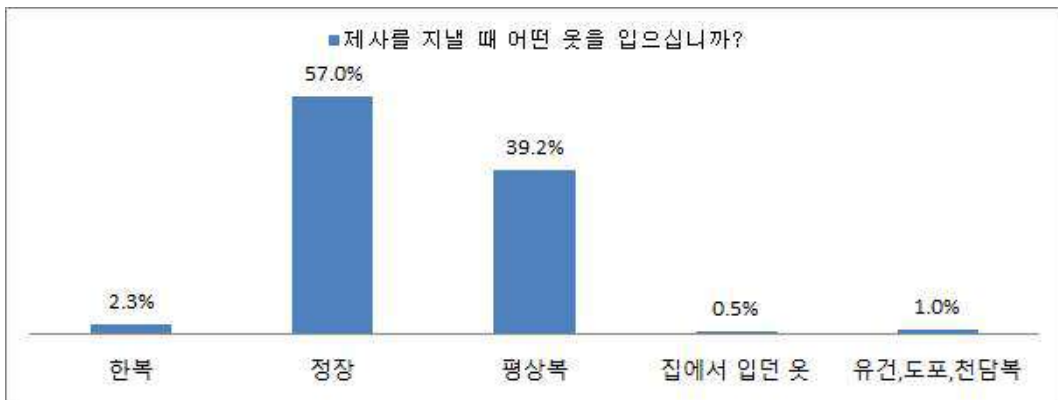
<그림 3-13> 제사의 대상



카. 제사 복장

- 제사를 지낼 때 한복이나 유건, 도포, 천담복을 착용하는 경우는 3%수준으로 매우 적으며, 주로 정장(57.0%)을 착용하거나 평상복(39.2%)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 복장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은 정장 57.0%, 평상복 39.2%, 한복 2.3%, 유건, 도포, 천담복 1.0%, 집에서 입던 옷 0.5% 순으로 나타나 정장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평상복을 입는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나 제사 복장에 대한 제약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 복장은 남녀 모두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평상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음.
- 연령별로도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50대는 평상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제사 복장에 대한 제한은 50대가 가장 유연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14〉 제사 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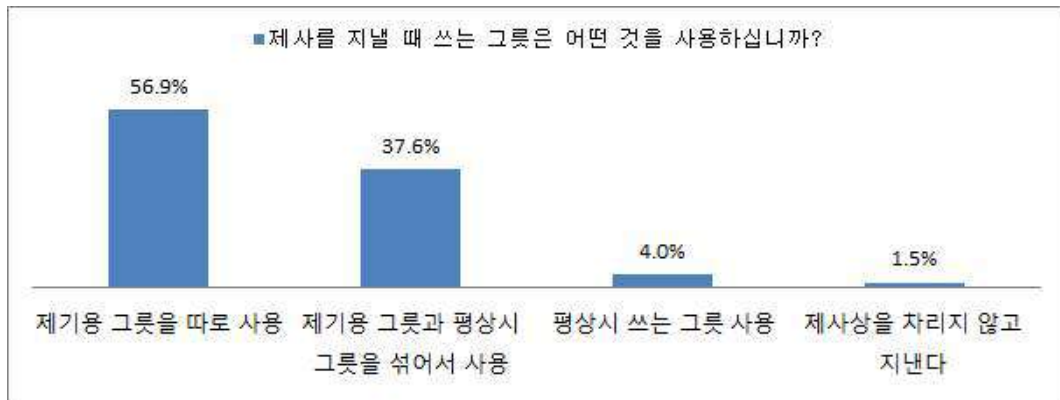


타. 제기

-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은 별도의 제기용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56.9%)가 가장 많고, 다음은 제기용 그릇과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을 혼용하는 경우(37.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제사를 위한 전용 제기를 보유하고 있음.

-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그릇은 ‘제기용 그릇을 따로 사용’ 56.9%, ‘제기용 그릇과 평상시 그릇을 섞어서 사용’ 37.6%,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 사용’ 4.0%, ‘제사상을 차리지 않고 지낸다’ 1.5% 순으로 별도의 제기용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별도의 제기용 그릇을 사용하는 경우와 별도의 제기용 그릇과 함께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을 혼용하는 경우를 합하면 응답자의 94.5%가 제기용 그릇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제사를 위한 전용 제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5〉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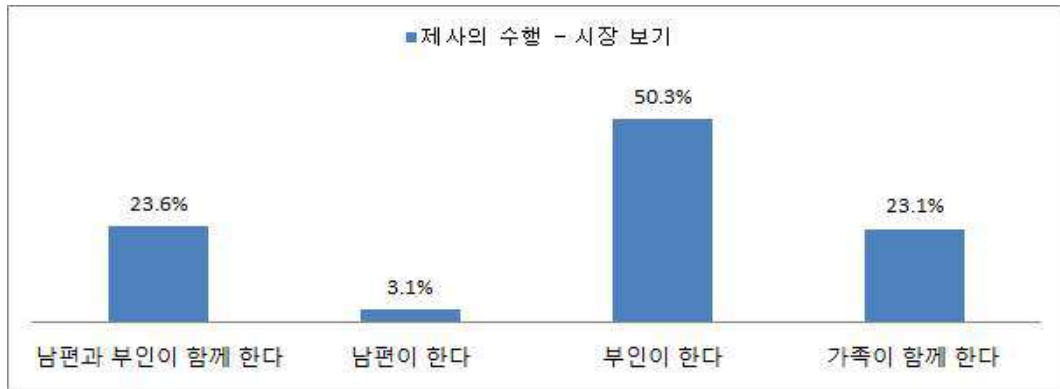
파. 제사의 수행

- 제사를 위하여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는 부인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고, 축문 작성과 의례 수행의 주도는 남편이 수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제사의 절차적 형식 수행을 담당하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1) 시장 보기

- 제사를 위한 시장 보기는 응답자의 50.3%가 ‘부인이 한다’고 응답하여 가족구성원 중 부인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사를 위한 시장 보기는 부인 50.3%, 남편과 부인 23.6%, 가족이 함께 23.1%, 남편 3.1% 순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가족구성원 중 부인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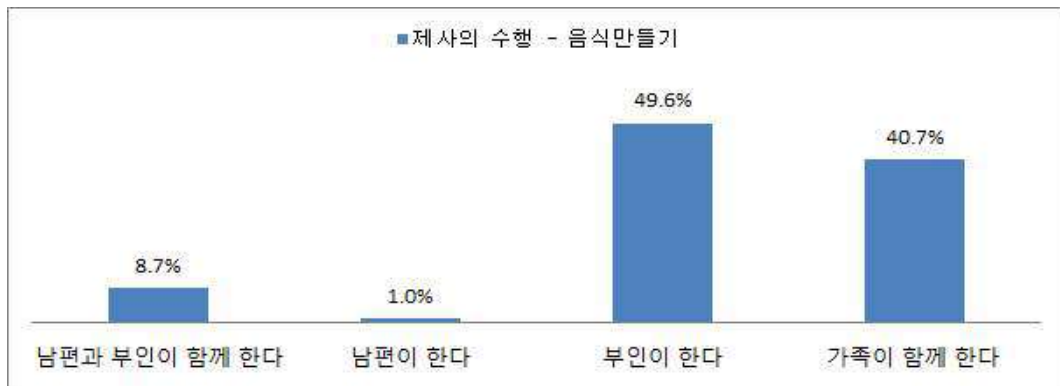
〈그림 3-16〉 제사의 수행 - 시장 보기



2) 음식 만들기

- 제사를 위한 음식 만들기는 주로 부인이 하거나 가족이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를 위한 음식 만들기는 부인 49.6%, 가족이 함께 40.7%, 남편과 부인이 함께 8.7%, 남편 1.0% 순으로 부인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가족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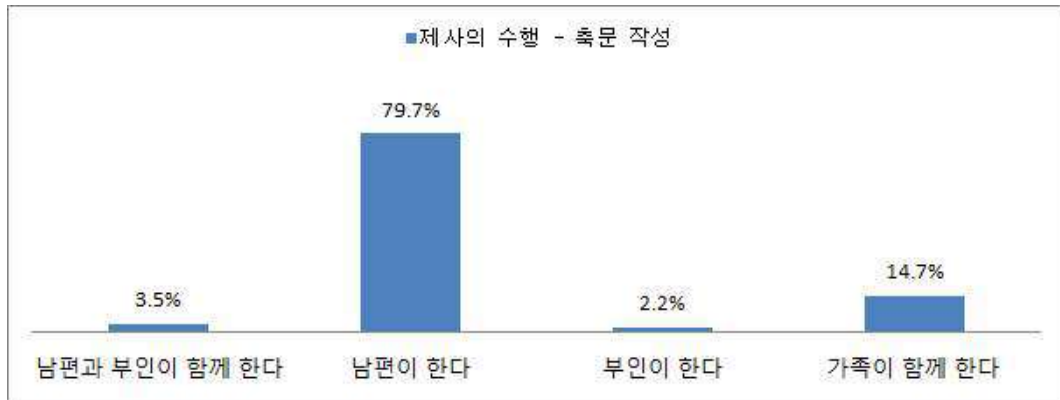
〈그림 3-17〉 제사의 수행 - 음식 만들기



3) 축문 작성

- 축문은 대부분 남편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축문의 작성은 남편 79.7%, 가족이 함께 14.7%, 남편과 부인이 함께 3.5%, 부인 2.2% 순으로 축문은 주로 남성인 남편이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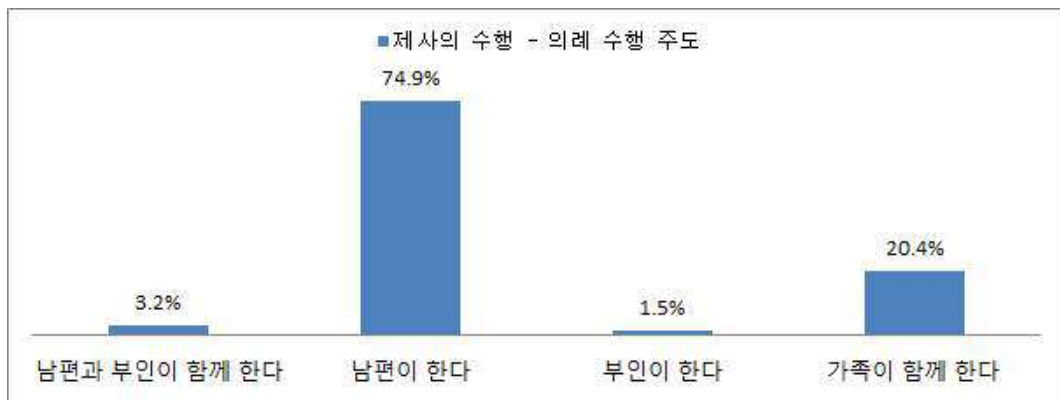
<그림 3-18> 제사의 수행 - 축문 작성



4) 의례 수행 주도

- 의례 수행 주도 역시 축문 작성과 마찬가지로 주로 남성인 남편에 의해서 수행됨.
 - 의례 수행 주도는 남편 74.9%, 가족이 함께 20.4%, 남편과 부인 3.2%, 부인 1.5%로 대부분 남편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9> 제사의 수행 - 의례 수행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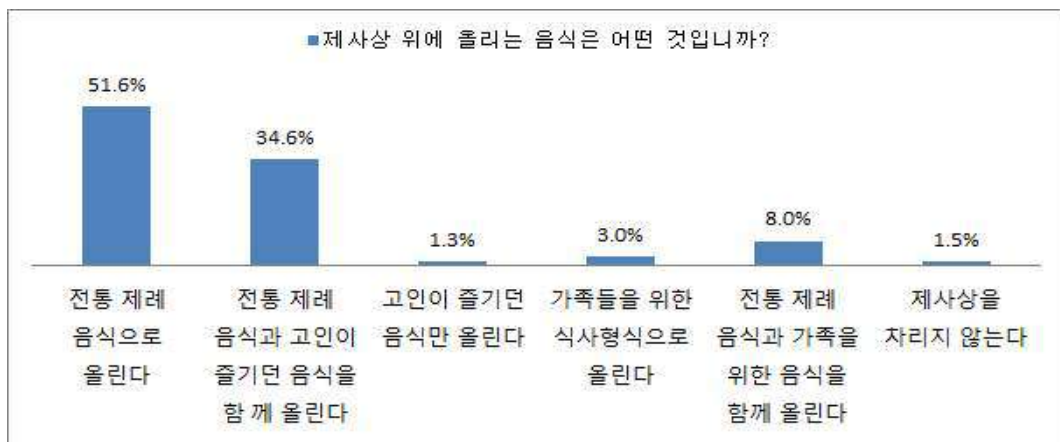


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전통 제례 음식’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전통 제례 음식’과 함께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전통제례 음식' 51.6%, '전통제례 음식과 고인이 즐기던 음식' 34.6%, '전통제례 음식과 가족을 위한 음식' 8.0%, '가족을 위한 식사' 3.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통제례 음식'을 올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다만 전통제례 음식과 함께 고인이 즐기던 음식이나 가족을 위한 음식을 함께 올리는 형태도 42.6%로 나타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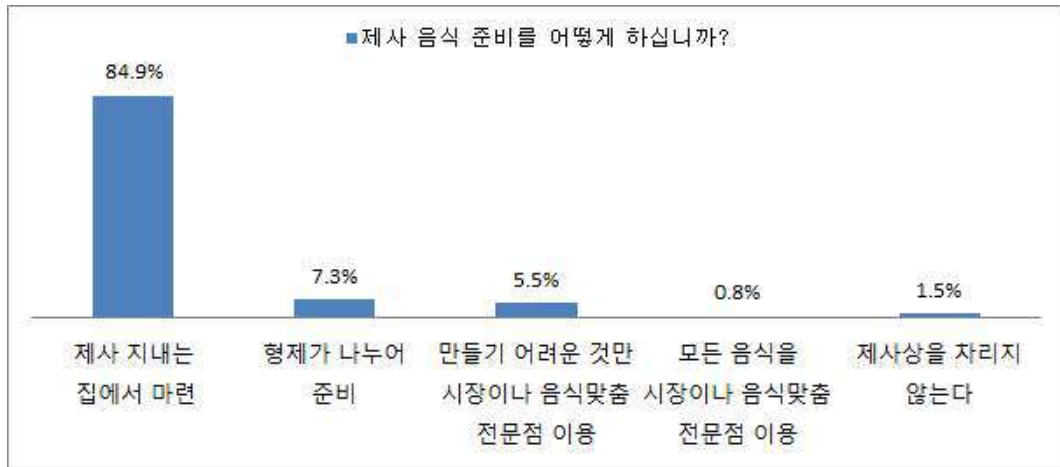
〈그림 3-20〉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거. 제사음식 준비 방법

- 제사음식은 대부분 제사 지내는 집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를 주관하는 가정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음식의 준비는 '제사 지내는 집에서 마련' 84.9%, '형제가 나누어 준비' 7.3%, '만들기 어려운 것만 시장이나 음식맛춤 전문점 이용' 5.5%, 모든 음식을 시장이나 음식맛춤 전문점 이용' 0.8% 순으로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형제가 나누어 준비하거나 시장 또는 음식맛춤 전문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어 제사를 주관하는 가정의 음식준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사 음식을 부인이 만드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여성에게 음식 준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림 3-21> 제사음식 준비 방법



너. 제사상 차림 방식

○ 제사상은 대부분 가문의 전통대로 차리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상 차림 방식은 ‘가문의 전통대로 차린다’ 72.8%, ‘가문의 전통과 책이나 메스컴에서 배운 것을 참고하여 차린다’ 13.6%, ‘이웃이나 지인의 조언을 참고하여 차린다’ 3.5%, ‘책이나 메스컴에서 배운대로 차린다’ 3.0%, ‘편한대로 차린다’ 5.3%,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다’ 1.8% 순으로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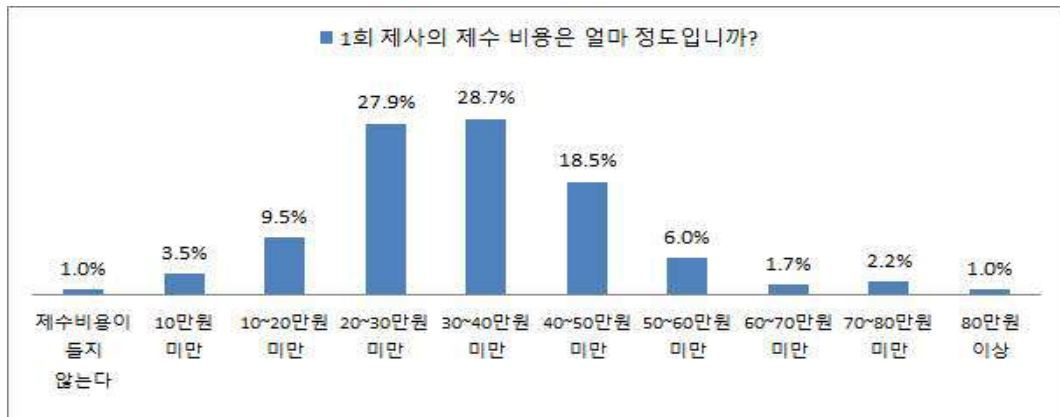
<그림 3-22> 제사상 차림 방식



더. 제수 비용

- 1회 제사의 제수 비용은 주로 30만 원대 내지는 20만 원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 1회 제사의 제수 비용은 30만 원대 28.7%, 20만 원대 27.9%, 40만 원대 18.5%, 10만 원대 9.5%, 50만 원대 6.0%, 10만 원대 3.5%, 70만 원대 2.2%, 60만 원대 1.7%, 80만원 이상과 제수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각각 1.0% 순으로 30만 원대가 가장 많고 다음은 20만 원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제수 비용으로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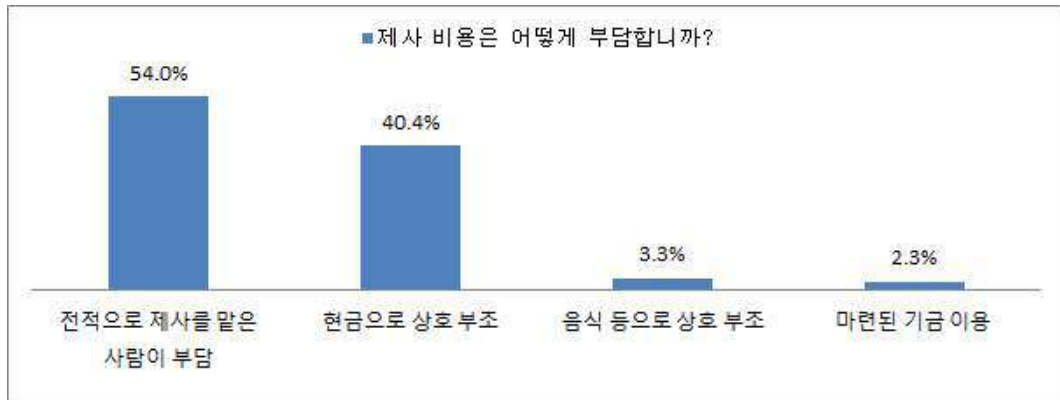
〈그림 3-23〉 제수 비용



러. 제사 비용의 부담

- 제사비용은 전적으로 제사를 맡은 사람이 부담하거나 현금으로 상호 부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중 ‘제사를 맡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담방식임.
 - 제사비용의 부담은 ‘전적으로 제사를 맡은 사람이 부담’ 54.0%, ‘현금으로 상호 부조’ 40.4%, ‘음식 등으로 상호 부조’ 3.3%, ‘마련된 기금 이용’ 2.3% 순으로 전적으로 제사를 맡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은 현금으로 상호 부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4〉 제사 비용의 부담



3. 제례에 관한 인식

가. 제사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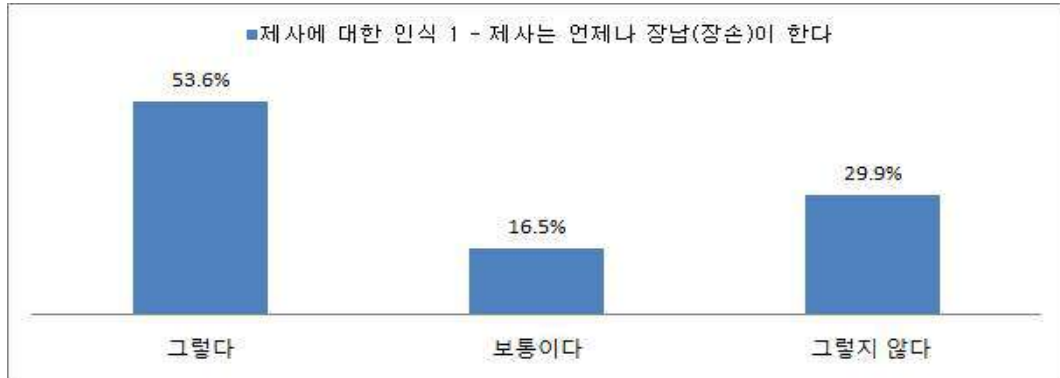
- 제사에 관한 인식 중 제사의 장남 승계,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배우고 도와야 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주부가 관장을 하고 며느리·딸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 등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은 남성과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현대생활에서의 제사의 필요성과 제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조상의 추모, 제사음식의 교육과 계승, 사망 후 자손의 봉사 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 여성인 자손의 제사 참석 제한에 대해서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반대 의견(해도 된다)이 가장 많았지만 특히 여성과 30대의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여성과 30대가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와 여성인 자손의 제사 참석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1)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지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다 53.6%, 그렇지 않다 29.9%, 보통이다 16.5% 순으로 나타나 제사는 장남이 지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30% 가량 나타나 제사의 장자 계승 원칙에 변화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음.

〈그림 3-25〉 제사에 대한 인식 1 -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 제사의 장자 승계에 대해 남성과 60대 이상의 찬성 비율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나 남성과 60대 이상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도 남녀 모두 제사의 장자 계승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이는 남성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제사의 장자 계승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으나 제사의 장자 계승을 찬성하는 의견이 60대(66.7%)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40대(37.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제사의 장자 승계는 형제 순위가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많아져 며느리 순위보다는 형제 순위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제 순위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며느리 순위별로도 모두 제사의 장자 계승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으나 만며느리는 반대하는 의견과 큰 차이가 없었고 기타는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동률로 나타남.
 - 반면 형제 순위별로는 순위가 높아질수록 제사의 장자 계승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져 맏아들의 찬성 의견이 76.8%로 가장 많고, 형제 순위가 낮아질수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져 기타의 반대 의견이 63.6%로 가장 많음.

〈표 3-5〉 제사에 대한 인식 1 -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단위 : 명(%)

구분	제사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성	여성	97(47.5)	35(17.2)	72(35.3)	204(100.0)	6.974*
	남성	118(59.9)	31(15.7)	48(24.4)	197(100.0)	
	계	215(53.6)	66(16.5)	120(29.9)	401(100.0)	
연령	30대	41(51.3)	15(18.8)	24(30.0)	80(100.0)	15.559*
	40대	49(48.5)	14(13.9)	38(37.6)	101(100.0)	
	50대	43(44.3)	20(20.6)	34(35.1)	97(100.0)	
	60대 이상	82(66.7)	17(13.8)	24(19.5)	123(100.0)	
	계	215(53.6)	66(16.5)	120(29.9)	401(100.0)	
며느리 순위	만며느리	43(43.9)	14(14.3)	41(41.8)	98(100.0)	6.565
	둘째며느리	35(50.7)	13(18.8)	21(30.4)	69(100.0)	
	셋째며느리	13(56.5)	6(26.1)	4(17.4)	23(100.0)	
	기타	6(42.9)	2(14.3)	6(42.9)	14(100.0)	
	계	97(47.5)	35(17.2)	72(35.3)	204(100.0)	
형제 순위	장남	63(76.8)	9(11.0)	10(12.2)	82(100.0)	23.888**
	둘째아들	38(51.4)	15(20.3)	21(28.4)	74(100.0)	
	셋째아들	14(46.7)	6(20.0)	10(33.3)	30(100.0)	
	기타	3(27.3)	1(9.1)	7(63.6)	11(100.0)	
	계	118(59.9)	31(15.7)	48(24.4)	19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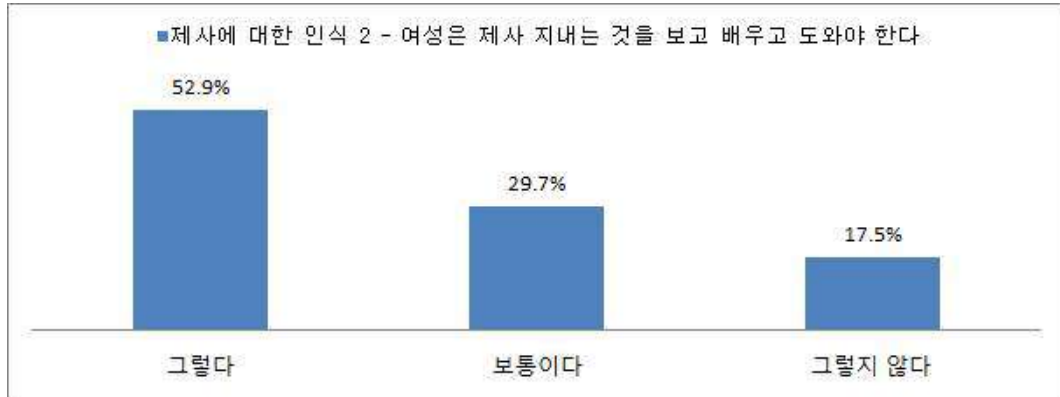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여성이 제사를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52.9, 보통이다 29.7%, 그렇지 않다 17.5%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여성이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찬성 비율은 남성이 조금 더 높고 반대 비율은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만 찬성 비율은 60

대에서 특히 더 높게 나타났고, 반대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하여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보임.

<그림 3-26> 제사에 대한 인식 2 -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표 3-6> 제사에 대한 인식 2 - 여성은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여성은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94(46.1)	63(30.9)	47(23.0)	204(100.0)	11.239**
	남성	118(59.9)	56(28.4)	23(11.7)	197(100.0)	
	계	212(52.9)	119(29.7)	70(17.5)	401(100.0)	
연령	30대	32(40.0)	21(26.3)	27(33.8)	80(100.0)	22.779**
	40대	55(54.5)	28(27.7)	18(17.8)	101(100.0)	
	50대	50(51.5)	34(35.1)	13(13.4)	97(100.0)	
	60대 이상	75(61.0)	36(29.3)	12(9.8)	123(100.0)	
	계	212(52.9)	119(29.7)	70(17.5)	401(1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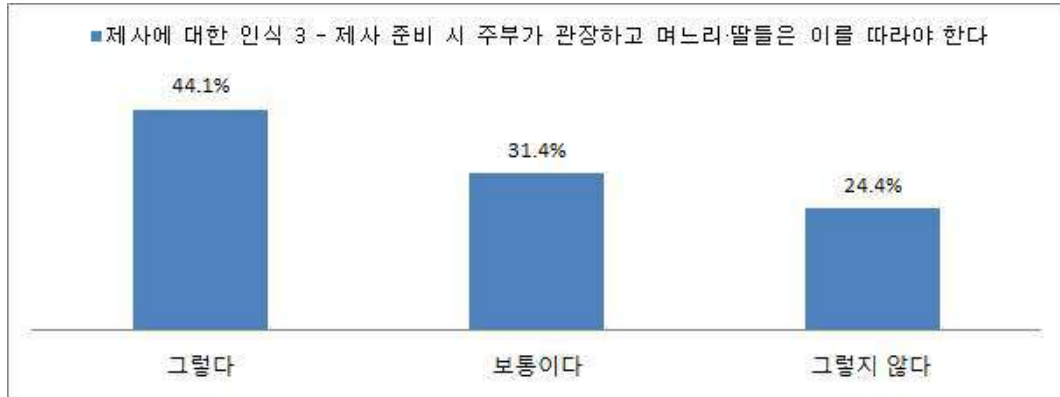
3)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 ‘제사를 준비할 때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나타남.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44.1%, 보통이다 31.45, 그렇지 않다 24.4%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함.

<그림 3-27> 제사에 대한 인식 3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남성은 여성보다 찬성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반대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에 따라 의견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그렇다 35.8%, 보통이다 30.4%, 그렇지 않다 33.8%로 찬성, 보통, 반대 의견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남성은 그렇다 52.8%, 보통이다 32.5%, 그렇지 않다 14.7%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 60대 이상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30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은데 비해 40대 이상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여 60대 이상의 찬성 의견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60대 이상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3-7〉 제사에 대한 인식 3 -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제사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성	여성	73(35.8)	62(30.4)	69(33.8)	204(100.0)	21.672***
	남성	104(52.8)	64(32.5)	29(14.7)	197(100.0)	
	계	177(44.1)	126(31.4)	98(24.4)	401(100.0)	
연령	30대	22(27.5)	25(31.3)	33(41.3)	80(100.0)	37.448***
	40대	37(36.6)	33(32.7)	31(30.7)	101(100.0)	
	50대	42(43.3)	33(34.0)	22(22.7)	97(100.0)	
	60대 이상	76(61.8)	35(28.5)	12(9.8)	123(100.0)	
	계	177(44.1)	126(31.4)	98(24.4)	40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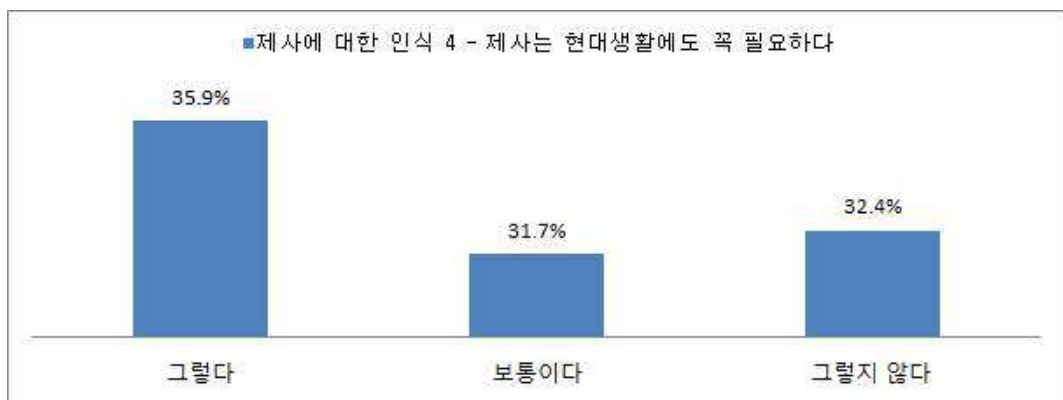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4)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 제사가 현대생활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반대하는 의견과 큰 차이가 없음.

—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35.9%, 보통이다 31.7%, 그렇지 않다 32.4%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보통이나 반대하는 의견과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3-28〉 제사에 대한 인식 4 -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반대 의견이 44.6%로 가장 많고 남성은 찬성 의견이 45.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 의견에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이 제사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는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아 연령대에 따라라도 의견에 차이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이 제사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

<표 3-8> 제사에 대한 인식 4 -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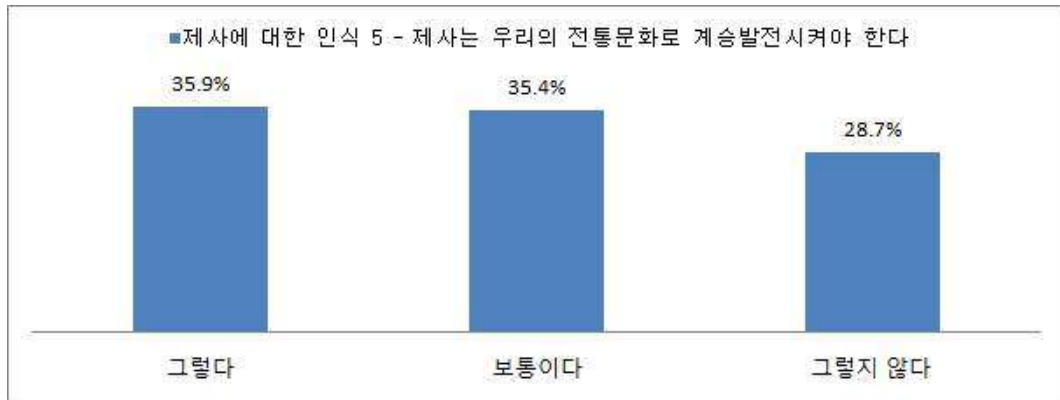
구분	제사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54(26.5)	59(28.9)	91(44.6)	30.325***
	남성	90(45.7)	68(34.5)	39(19.8)	
	계	144(35.9)	127(31.7)	130(32.4)	
연령	30대	21(26.3)	27(33.8)	32(40.0)	40.662***
	40대	20(19.8)	31(30.7)	50(49.5)	
	50대	37(38.1)	34(35.1)	26(26.8)	
	60대 이상	66(53.7)	35(28.5)	22(17.9)	
	계	144(35.9)	127(31.7)	130(32.4)	

* p<.05, ** p<.01, *** p<.001

5)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 제사의 계승 발전을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반대 의견과의 차이는 7.2%p에 그침.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35.9%, 보통이다 35.4%, 그렇지 않다 28.7% 순으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반대 의견과 그 차이가 7.2%p에 그쳐 그 차이가 크지 않음.

〈그림 3-29〉 제사에 대한 인식 5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 의견은 남성이 더 많고 반대 의견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제사의 전통문화 계승 인식은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전통문화 계승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함.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반대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여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임.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사의 전통문화 계승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 제사에 대한 인식 5 -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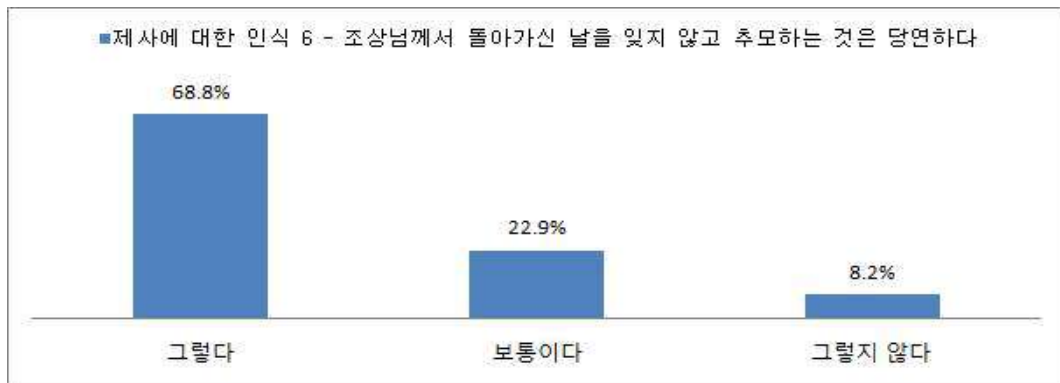
구분	제사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51(25.0)	78(38.2)	75(36.8)	204(100.0)	24.168***
	남성	93(47.2)	64(32.5)	40(20.3)	197(100.0)	
	계	144(35.9)	142(35.4)	115(28.7)	401(100.0)	
연령	30대	20(25.0)	31(38.8)	29(36.3)	80(100.0)	28.212***
	40대	25(24.8)	33(32.7)	43(42.6)	101(100.0)	
	50대	39(40.2)	37(38.1)	21(21.6)	97(100.0)	
	60대 이상	60(48.8)	41(33.3)	22(17.9)	123(100.0)	
	계	144(35.9)	142(35.4)	115(28.7)	401(100.0)	

* p<.05, ** p<.01, *** p<.001

6)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 제사를 통해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68.8%, 보통이다 22.9%, 그렇지 않다 8.2% 순으로 나타나 조상의 추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그림 3-30> 제사에 대한 인식 6 -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찬성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찬성 의견이 증가하고 연령대가 감소할수록 반대 의견이 증가하여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제사를 통한 조상의 추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제사에 대한 인식 6 -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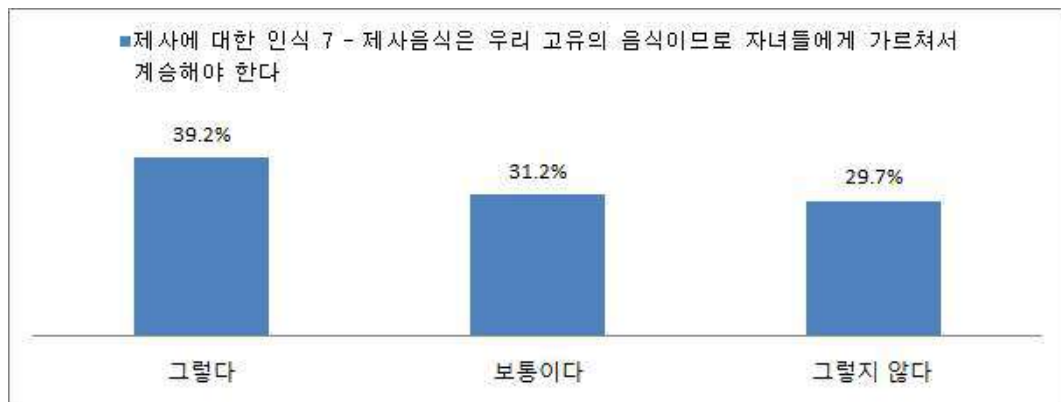
구분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134(65.7)	49(24.0)	21(10.3)	2.956
	남성	142(72.1)	43(21.8)	12(6.1)	
	계	276(68.8)	92(22.9)	33(8.2)	
연령	30대	47(58.8)	22(27.5)	11(13.8)	18.114**
	40대	61(60.4)	27(26.7)	13(12.9)	

50대	70(72.2)	22(22.7)	5(5.2)	97(100.0)
60대 이상	98(79.7)	21(17.1)	4(3.3)	123(100.0)
계	276(68.8)	92(22.9)	33(8.2)	401(100.0)

* p<.05, ** p<.01, *** p<.001

- 7)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 제사 음식을 가르치고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반대 의견과의 차이는 9.5%로 나타남.
-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39.2%, 보통이다 31.2%, 그렇지 않다 29.7% 순으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반대 의견과의 차이는 9.5%p로 나타남.

<그림 3-31> 제사에 대한 인식 7 -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여성은 반대 의견이 가장 많은데 비해 남성은 찬성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의 제사 음식에 대한 교육과 계승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성별 인식의 차이는 남성에게는 축문작성과 제사의례 주도과 같은 제사의 절차적 역할이 주를 이루는 반면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를 비롯한 제사 수행을 위한 가사 노동의 부담은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은 찬성 의견이 가장 많은데 비해 30대와 40대는 반

대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의 제사 음식에 대한 교육과 계승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11〉 제사에 대한 인식 7 -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제사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성	여성	58(28.4)	66(32.4)	80(39.2)	25.111***
	남성	99(50.3)	59(29.9)	39(19.8)	
	계	157(39.2)	125(31.2)	119(29.7)	
연령	30대	29(36.3)	16(20.0)	35(43.8)	18.290**
	40대	30(29.7)	37(36.6)	34(33.7)	
	50대	41(42.3)	33(34.0)	23(23.7)	
	60대 이상	57(46.3)	39(31.7)	27(22.0)	
	계	157(39.2)	125(31.2)	119(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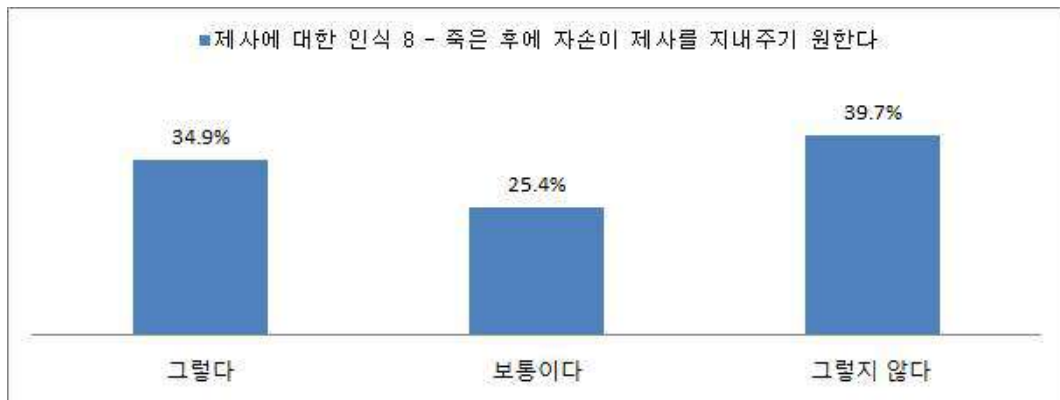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8)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 사망 후 자손의 봉사(奉祀)를 원하지 않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원하는 의견도 다소 높게 나타남.

-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 39.7%, 그렇다 34.9%, 보통이다 25.4% 순으로 나타나 자신의 사망 후 자손의 봉사(奉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2〉 제사에 대한 인식 8 -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자손의 봉사를 원하지 않는 의견이 가장 많고 남성은 봉사를 원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
- 연령별 자손의 봉사를 원하는 의견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원하지 않는 의견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임.

〈표 3-12〉 제사에 대한 인식 8 -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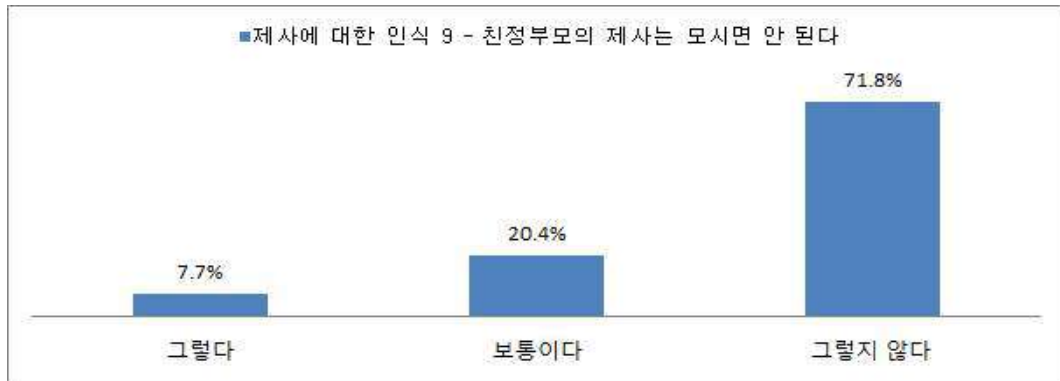
구분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를 지내주기 원한다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성	여성	53(26.0)	47(23.0)	104(51.0)	23.870***
	남성	87(44.2)	55(27.9)	55(27.9)	
	계	140(34.9)	102(25.4)	159(39.7)	
연령	30대	16(20.0)	23(28.8)	41(51.3)	45.081***
	40대	23(22.8)	22(21.8)	56(55.4)	
	50대	33(34.0)	29(29.9)	35(36.1)	
	60대 이상	68(55.3)	28(22.8)	27(22.0)	
	계	140(34.9)	102(25.4)	159(39.7)	

* p<.05, ** p<.01, *** p<.001

9)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 응답자의 대부분은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를 모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 71.8%, 보통이다 20.4%, 그렇다 7.7% 순으로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를 모셔도 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3〉 제사에 대한 인식 9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반대 의견이 가장 많으며, 특히 여성의 반대 의견 더 높게 나타나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를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더 높아져 연령이 낮을수록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제사에 대한 인식 9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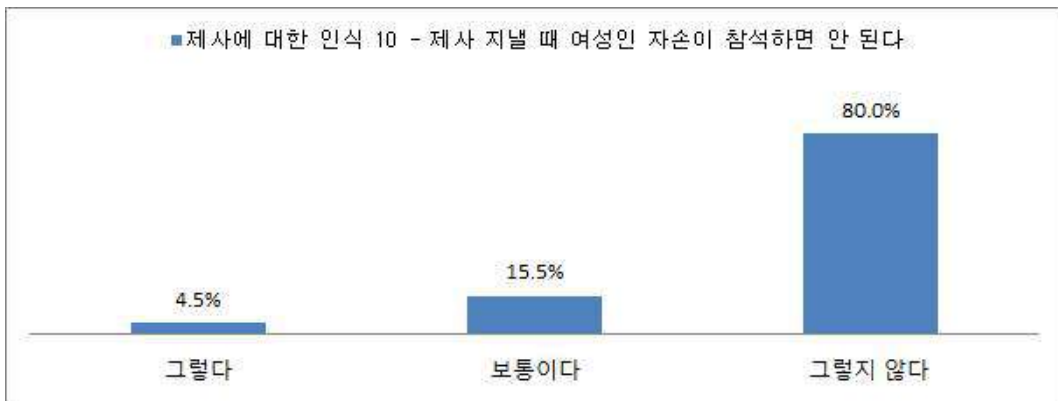
구분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는 모시면 안 된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12(5.9)	27(13.2)	165(80.9)	17.150***
	남성	19(9.6)	55(27.9)	123(62.4)	
	계	31(7.7)	82(20.4)	288(71.8)	
연령	30대	3(3.8)	16(20.0)	61(76.3)	4.867
	40대	10(9.9)	16(15.8)	75(74.3)	
	50대	7(7.2)	21(21.6)	69(71.1)	
	60대 이상	11(8.9)	29(23.6)	83(67.5)	
	계	31(7.7)	82(20.4)	288(71.8)	

* p<.05, ** p<.01, *** p<.001

10)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 제사를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의 참석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를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지 않다 80.0%, 보통이다 15.5%, 그렇다 7.7% 순으로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여성인 자손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4〉 제사에 대한 인식 10 -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 ‘제사를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반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의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가장 많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더 높아져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이 자손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4〉 제사에 대한 인식 10 -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단위 : 명(%)

구분	제사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계	
성	여성	8(3.9)	26(12.7)	170(83.3)	2.838
	남성	10(5.1)	36(18.3)	151(76.6)	
	계	18(4.5)	62(15.5)	321(80.0)	
연령	30대	-	15(18.8)	65(81.3)	6.858
	40대	5(5.0)	12(11.9)	84(83.2)	
	50대	5(5.2)	14(14.4)	78(80.4)	
	60대 이상	8(6.5)	21(17.1)	94(76.4)	
	계	18(4.5)	62(15.5)	321(8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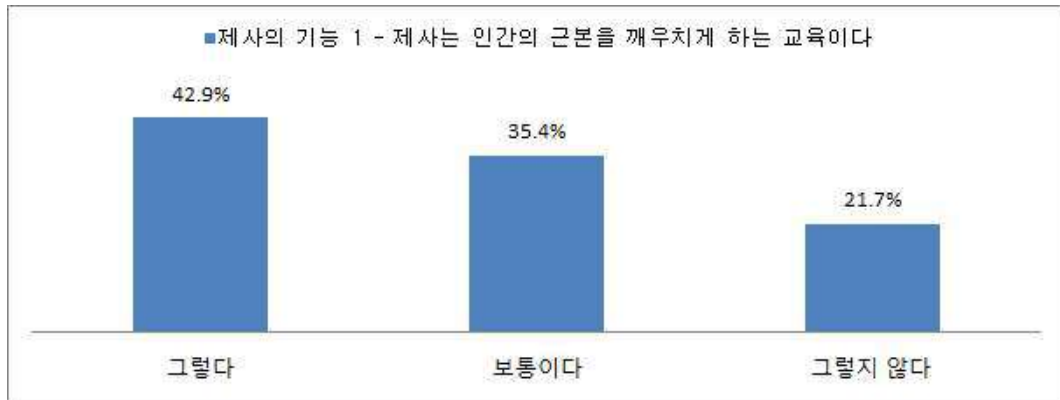
나. 제사의 기능

- 제사의 기능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많지만 부정적 인식도 다수 존재함.
- 다만 제사의 교육적 기능, 기복적 인식, 친목도모, 친족공동체의 결속 기능에 대하여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60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 제사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사를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의견이 그렇지 않은 의견보다 더 많음.
 -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42.9%, 보통이다 35.4%, 그렇지 않다 21.7%로 찬성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사를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5〉 제사의 기능 1 -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의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이 제사의 교육적 기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증가하여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사의 교육적 기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제사의 기능 1 -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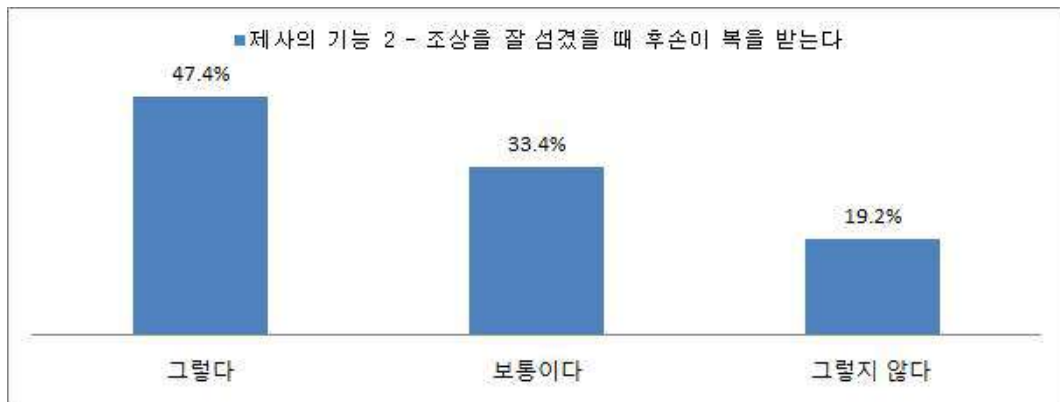
구분	제사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72(35.3)	75(36.8)	57(27.9)	204(100.0)	13.270**
	남성	100(50.8)	67(34.0)	30(15.2)	197(100.0)	
	계	172(42.9)	142(35.4)	87(21.7)	401(100.0)	
연령	30대	19(23.8)	35(43.8)	26(32.5)	80(100.0)	22.819**
	40대	42(41.6)	33(32.7)	26(25.7)	101(100.0)	
	50대	44(45.4)	38(39.2)	15(15.5)	97(100.0)	
	60대 이상	67(54.5)	36(29.3)	20(16.3)	123(100.0)	
	계	172(42.9)	142(35.4)	87(21.7)	401(100.0)	

* p<.05, ** p<.01, *** p<.001

2)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을 복을 받는다는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높게 나타남.
 -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47.4%, 보통이다 33.4%, 그렇지 않다 19.2% 순으로 나타나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6> 제사의 기능 2 -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찬성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기복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6> 제사의 기능 2 -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단위 : 명(%)

구분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여성	94(46.1)	65(31.9)	45(22.1)	204(100.0)	2.214
성 남성	96(48.7)	69(35.0)	32(16.2)	197(100.0)	
계	190(47.4)	134(33.4)	77(19.2)	40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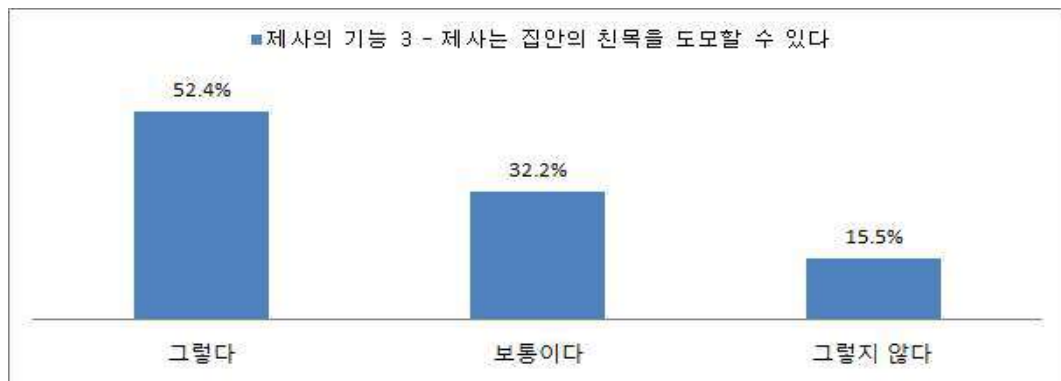
	30대	22(27.5)	38(47.5)	20(25.0)	80(100.0)	
	40대	32(31.7)	39(38.6)	30(29.7)	101(100.0)	
연령	50대	55(56.7)	32(33.0)	10(10.3)	97(100.0)	47.492***
	60대 이상	81(65.9)	25(20.3)	17(13.8)	123(100.0)	
	계	190(47.4)	134(33.4)	77(19.2)	401(100.0)	

* p<.05, ** p<.01, *** p<.001

3)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제사가 집안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제사의 친목도모 기능은 다른 기능에 비해 다소 긍정적 인식이 높음.
 -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문항에 대해 그렇다 52.4%, 보통이다 32.2%, 그렇지 않다 15.5% 순으로 찬성 의견이 가장 많고, 다른 제사의 기능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3-37> 제사의 기능 3 -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남녀 모두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특히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성이 제사의 친목 도모 기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증가하는 반면 반대 의견은 근소한 차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사의 친목 도모 기능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제사의 기능 3 -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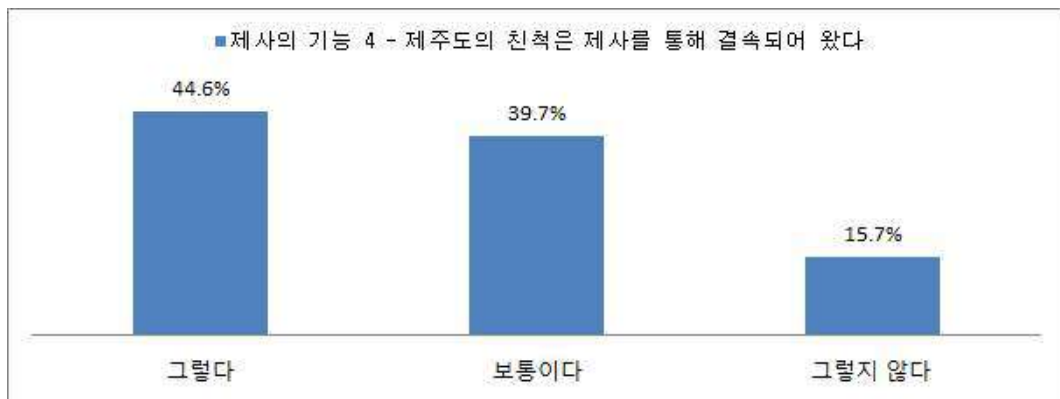
구분	제사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92(45.1)	69(33.8)	43(21.1)	204(100.0)	13.019**
	남성	118(59.9)	60(30.5)	19(9.6)	197(100.0)	
	계	210(52.4)	129(32.2)	62(15.5)	401(100.0)	
연령	30대	30(37.5)	35(43.8)	15(18.8)	80(100.0)	25.336***
	40대	41(40.6)	42(41.6)	18(17.8)	101(100.0)	
	50대	58(59.8)	23(23.7)	16(16.5)	97(100.0)	
	60대 이상	81(65.9)	29(23.6)	13(10.6)	123(100.0)	
	계	210(52.4)	129(32.2)	62(15.5)	401(100.0)	

* p<.05, ** p<.01, *** p<.001

4)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 제사를 통한 친족공동체의 결속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 44.6%, 보통이다 39.7%, 그렇지 않다 15.7% 순으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아 제사를 통한 친족공동체의 결속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8> 제사의 기능 4 -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남성이 더 많고, 반대하는 의견은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제사의 친족공동체 결속 기능을 남성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의견이 증가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 의견이 증가하여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제사의 친족공동체 결속 기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제사의 기능 4 -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단위 : 명(%)

구분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계	χ^2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성	여성	75(36.8)	84(41.2)	45(22.1)	204(100.0)	16.662***
	남성	104(52.8)	75(38.1)	18(9.1)	197(100.0)	
	계	179(44.6)	159(39.7)	63(15.7)	401(100.0)	
연령	30대	21(26.3)	39(48.8)	20(25.0)	80(100.0)	18.166**
	40대	44(43.6)	41(40.6)	16(15.8)	101(100.0)	
	50대	47(48.5)	36(37.1)	14(14.4)	97(100.0)	
	60대 이상	67(54.5)	43(35.0)	13(10.6)	123(100.0)	
	계	179(44.6)	159(39.7)	63(15.7)	401(100.0)	

* p<.05, ** p<.01, *** p<.001

다. 제사의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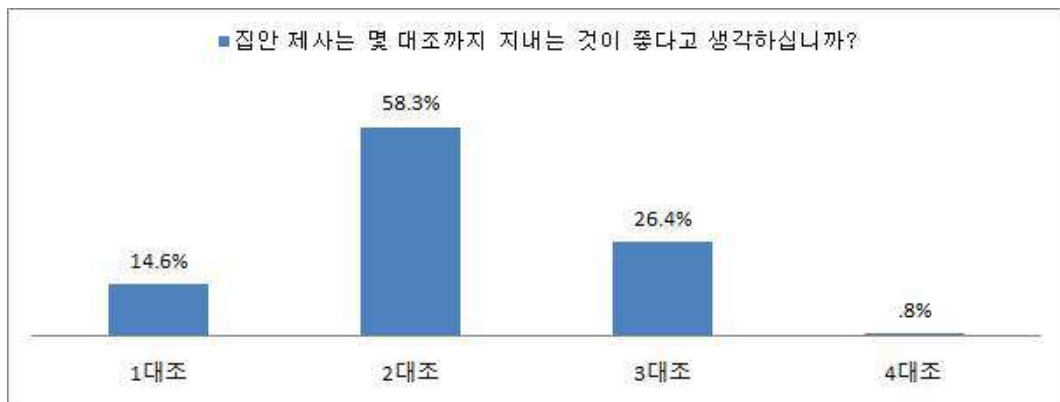
- 제사의 봉사 대수는 2대조, 제사 시간은 밤 9~11시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분석에서 나타난 이미 지내고 있는 제사의 봉사 대수는 3대조가 가장 많고 다음은 2대조가 많았으며, 제사 시간은 밤 9~11에 지내는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밤 9~11시에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시에 해당하는 밤 11~1시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선호 시간이 다른 시간대로 퍼져 나간 점을 감안하면 봉사 대수의 감소와 더 이른 제사 시간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체적으로 제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남성(약 82%)과 50대 이상(약 76%)이 제사의 지속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반면 여성과 40대 이하에서는 제사의 지속을 반대하는 의견도 40% 이상 나타나 여성과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제사의 변화가 필요함.

1) 봉사 대수

- 제사의 봉사 대수는 2대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제사를 3대조까지 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점에 비춰보면 봉사 대수를 조금 더 줄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제사의 봉사 대수는 2대조 58.3%, 3대조 26.4%, 1대조 14.6%, 4대조 0.8% 순으로 나타나 2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39〉 변화 방향 - 봉사 대수



- 선호하는 제사의 봉사 대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2대조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대조 이하(1대조와 2대조)를 선호하는 비율은 여성 78.6%, 남성 67.0%로 나타나 여성이 2대조 이하의 봉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2대조 선호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대조 선호 비율은 50대가 조금 더 높고 4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다만 1대조와 3대조를 선호하는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전통과 탈전통의 경계에 있는 연령임을 감지할 수 있음.

〈표 3-19〉 변화 방향 - 봉사 대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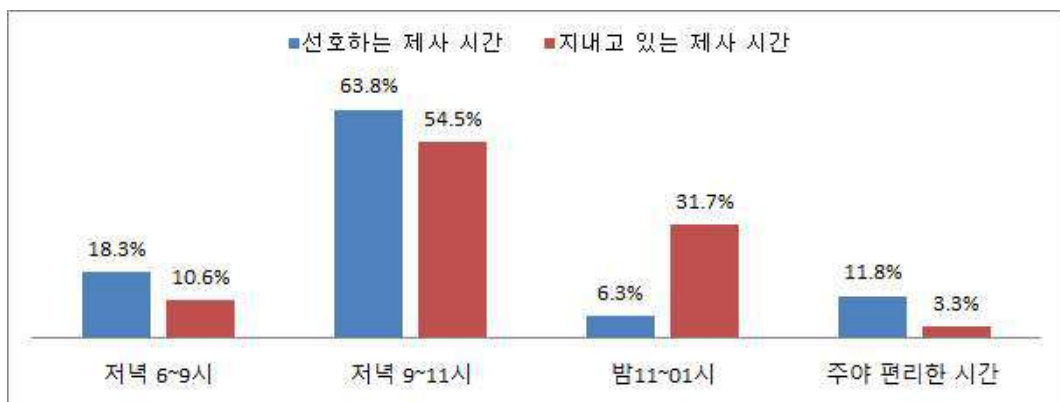
구분	제사는 몇 대조까지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χ^2	
	1대조	2대조	3대조	4대조	계		
성	여성	40(19.9)	118(58.7)	42(20.9)	1(0.5)	201(100.0)	12.908**
	남성	18(9.1)	114(57.9)	63(32.0)	2(1.0)	197(100.0)	
	계	58(14.6)	232(58.3)	105(26.4)	3(0.8)	398(100.0)	
연령	30대	13(16.3)	43(53.8)	23(28.8)	1(1.3)	80(100.0)	10.083
	40대	17(17.0)	49(49.0)	34(34.0)	-	100(100.0)	
	50대	13(13.5)	64(66.7)	18(18.8)	1(1.0)	96(100.0)	
	60대 이상	15(12.3)	76(62.3)	30(24.6)	1(0.8)	122(100.0)	
	계	58(14.6)	232(58.3)	105(26.4)	3(0.8)	398(100.0)	

* p<.05, ** p<.01, *** p<.001

2) 제사 시간

-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제사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미 지나고 있는 제사 시간과 비교해보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지내는 제사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40〉 변화 방향 - 제사 시간



- 선호하는 제사 시간은 저녁 9~11시 63.3%, 저녁 6~9시 18.3%, 주야 편리한 시간 11.8%, 밤 11~1시 6.3% 순으로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지내는 제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지내고 있는 제사 시간과 비교해 보면, 밤 11와 새벽 1시 사이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낮아져 이 시간대에 지내는 제사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제사 시간은 남녀 모두 저녁 9~11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녁 9시~11시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저녁 6~9시와 주야 편리한 시간을 선호하는 비율은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제사 시간의 변화를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가 저녁 9~11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제사 시간의 변화를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녁 9~11시를 선호하는 비율은 50대 72.2%, 60대 이상 64.2%, 40대 62.0%, 30대 55.0% 순으로 50대가 가장 높고 3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저녁 6~9시를 선호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주야 편리한 시간을 선호하는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고 다음은 40대가 높게 나타나 제사 시간의 변화를 30대가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변화 방향 - 제사 시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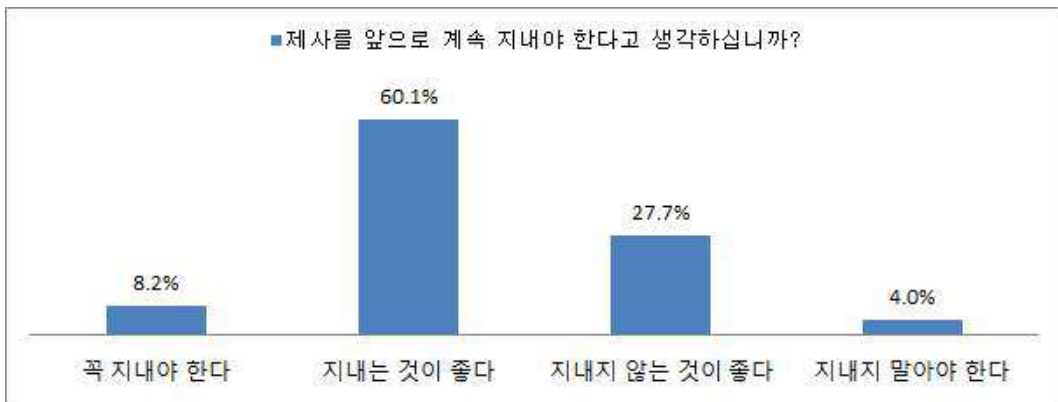
구분	제사를 보통 몇 시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χ^2
	저녁 6~9시	저녁 9~11시	밤11~01시	주야 편리한 시간	계	
성	여성	44(21.7)	122(60.1)	9(4.4)	28(13.8)	7.152
	남성	29(14.7)	133(67.5)	16(8.1)	19(9.6)	
	계	73(18.3)	255(63.8)	25(6.3)	47(11.8)	
연령	30대	17(21.3)	44(55.0)	3(3.8)	16(20.0)	17.591*
	40대	19(19.0)	62(62.0)	4(4.0)	15(15.0)	
	50대	17(17.5)	70(72.2)	6(6.2)	4(4.1)	
	60대 이상	20(16.3)	79(64.2)	12(9.8)	12(9.8)	
	계	73(18.3)	255(63.8)	25(6.3)	47(11.8)	

* p<.05, ** p<.01, *** p<.001

3) 향후 제사의 지속

- 향후 제사의 지속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지만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음.
- ‘제사를 앞으로 계속 지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지내는 것이 좋다’ 60.1%,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27.7%, ‘꼭 지내야 한다’ 8.2%, ‘지내지 말아야 한다’ 4.0% 순으로 나타나 향후 제사의 지속에 대한 긍정적 인식(68.3%)이 부정적 인식(31.7%) 보다 더 높지만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음.

〈그림 3-41〉 변화 방향 - 향후 제사의 지속



- 향후 제사의 지속에 대하여 남녀 모두 긍정적 인식이 더 높지만 남성은 긍정적 인식이 크게 높은데 비해 여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제사의 지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 다만 긍정적 인식은 5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부정적 인식은 40대 이하에서 더 높게 나타남.

〈표 3-21〉 변화 방향 - 향후 제사의 지속

단위 : 명(%)

구분	제사를 앞으로 계속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χ^2
	꼭 지내야 한다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지내지 말아야 한다		
성	여성	10(4.9)	103(50.5)	77(37.7)	14(6.9)	35.751***
	남성	23(11.7)	138(70.1)	34(17.3)	2(1.0)	
	계	33(8.2)	241(60.1)	111(27.7)	16(4.0)	

	30대	4(5.0)	44(55.0)	26(32.5)	6(7.5)	80(100.0)	
	40대	5(5.0)	53(52.5)	40(39.6)	3(3.0)	101(100.0)	
연령	50대	9(9.3)	65(67.0)	19(19.6)	4(4.1)	97(100.0)	20.791*
	60대 이상	15(12.2)	79(64.2)	26(21.1)	3(2.4)	123(100.0)	
	계	33(8.2)	241(60.1)	111(27.7)	16(4.0)	401(100.0)	

* p<.05, ** p<.01, *** p<.001

라. 제사에 대한 갈등

1) 제사의 가장 힘든 점

○ 제사의 가장 힘든 점은 제사 음식의 준비로 나타남.

- 제사를 지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 48.9%, ‘횡수가 너무 많다’ 14.2%, ‘힘든 점이 없다’ 10.7%, ‘돈이 너무 많이 든다’ 9.9%, ‘거리나 시간 때문에 참석이 번거롭다’ 9.9%,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6.4% 순으로 나타나 제사 음식의 준비가 가장 힘든 점으로 나타남.

<그림 3-42> 제사의 가장 힘든 점



○ 제사를 지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남녀 모두 제사 음식의 준비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부담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여성은 많은 제사 횡수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많은 제사 횡수와 거리 또는 시간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제사 음식 준비가 가장 힘든 점으로 나타났으며, 제사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이 40대와 50대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30대는 복잡한 절차, 40대는 많은 제사 횟수, 50대는 많은 제사 횟수와 제사 비용, 60대는 많은 제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22〉 제사의 가장 힘든 점

단위 : 명(%)

구분	제사를 지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계	χ^2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	횟수가 너무 많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거리나 시간 때문에 참석이 번거롭다	힘든 점 없다		
성	여성	105(53.3)	28(14.2)	12(6.1)	24(12.2)	12(6.1)	16(8.1)	11.952*
	남성	87(44.4)	28(14.3)	13(6.6)	15(7.7)	27(13.8)	26(13.3)	
	계	192(48.9)	56(14.2)	25(6.4)	39(9.9)	39(9.9)	42(10.7)	
연령	30대	33(44.0)	9(12.0)	12(16.0)	3(4.0)	10(13.3)	8(10.7)	44.984***
	40대	55(55.0)	22(22.0)	3(3.0)	5(5.0)	11(11.0)	4(4.0)	
	50대	52(53.6)	12(12.4)	3(3.1)	11(11.3)	10(10.3)	9(9.3)	
	60대 이상	52(43.0)	13(10.7)	7(5.8)	20(16.5)	8(6.6)	21(17.4)	
	계	192(48.9)	56(14.2)	25(6.4)	39(9.9)	39(9.9)	42(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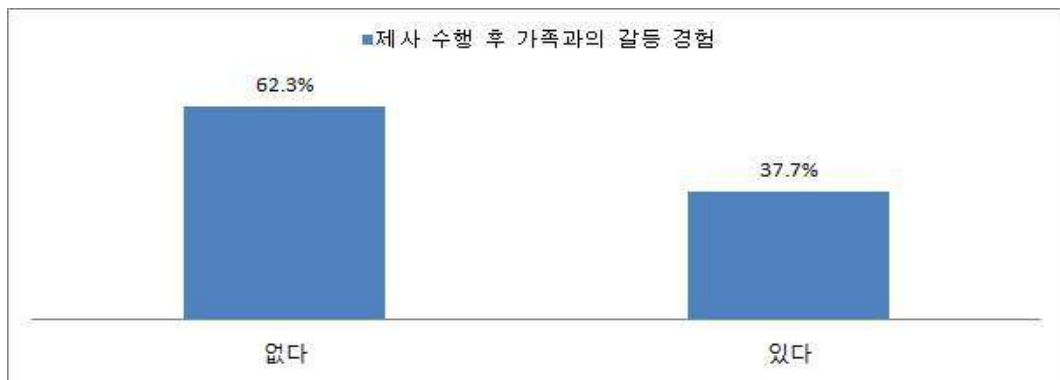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2)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경험

○ 응답자의 37.7%가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경험은 없다 62.3%, 있다 37.7%로 응답자의 37.7%는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3〉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경험



○ 제사 후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3>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경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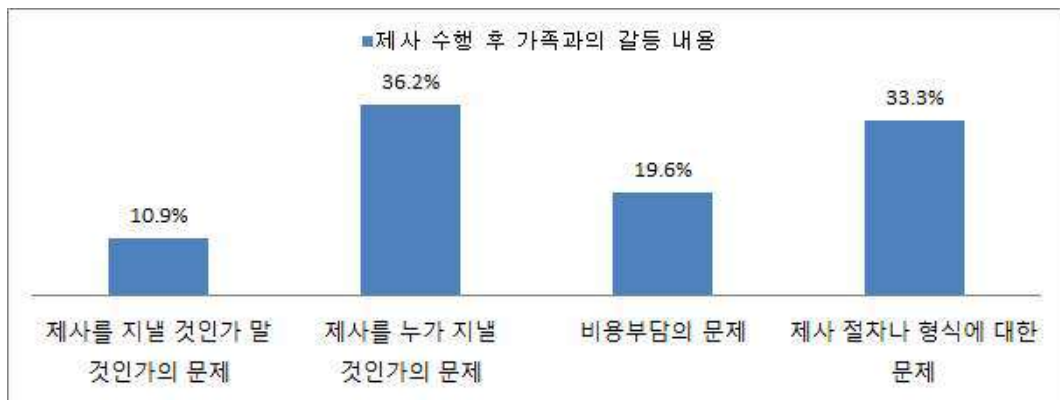
구분	제사를 수행한 후 가족(남편, 부인, 부모)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χ^2	
	없다	있다	계		
성	여성	123(60.3)	81(39.7)	204(100.0)	.743
	남성	127(64.5)	70(35.5)	197(100.0)	
	계	250(62.3)	151(37.7)	401(100.0)	
연령	30대	51(63.8)	29(36.3)	80(100.0)	1.018
	40대	62(61.4)	39(38.6)	101(100.0)	
	50대	57(58.8)	40(41.2)	97(100.0)	
	60대 이상	80(65.0)	43(35.0)	123(100.0)	
	계	250(62.3)	151(37.7)	401(100.0)	

* p<.05, ** p<.01, *** p<.001

3)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내용

○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겪는 주된 이유는 제사 주관자의 지정과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로 나타남.

<그림 3-44>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내용



-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 그 내용은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 36.2%,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 33.3%, ‘비용부담의 문제’ 19.6%,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10.9% 순으로 제사 주관자의 지정과 제사의 절차 또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제사의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고, 남성은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제사의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고, 40대 이상은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 내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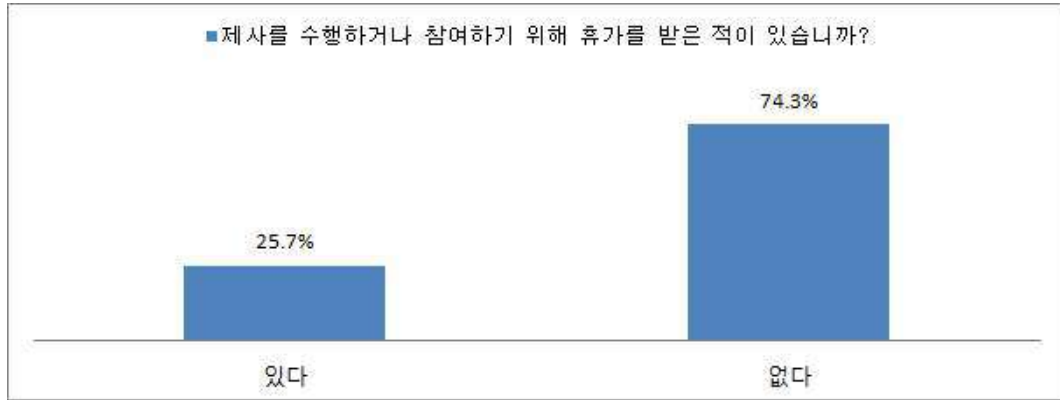
구분	제사 때문에 집안(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계	χ^2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	비용부담의 문제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		
성	여성	8(10.8)	26(35.1)	12(16.2)	28(37.8)	1.939
	남성	7(10.9)	24(37.5)	15(23.4)	18(28.1)	
	계	15(10.9)	50(36.2)	27(19.6)	46(33.3)	
연령	30대	3(10.7)	6(21.4)	4(14.3)	15(53.6)	10.472
	40대	4(11.4)	14(40.0)	10(28.6)	7(20.0)	
	50대	5(14.3)	13(37.1)	6(17.1)	11(31.4)	
	60대 이상	3(7.5)	17(42.5)	7(17.5)	13(32.5)	
	계	15(10.9)	50(36.2)	27(19.6)	46(33.3)	

* p<.05, ** p<.01, *** p<.001

4)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경험 및 횟수

- 응답자의 27.5%는 제사의 수행이나 참여를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5〉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경험



- 제사의 수행이나 참여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이 시장 보기와 제사 음식 만들기과 같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제사의 수행이나 참여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5〉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제사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χ^2	
	있다	없다	계		
성	여성	67(32.8)	137(67.2)	204(100.0)	11.14**
	남성	36(18.3)	161(81.7)	197(100.0)	
	계	103(25.7)	298(74.3)	401(100.0)	
연령	30대	25(31.3)	55(68.8)	80(100.0)	18.507***
	40대	36(35.6)	65(64.4)	101(100.0)	
	50대	27(27.8)	70(72.2)	97(100.0)	
	60대 이상	15(12.2)	108(87.8)	123(100.0)	
	계	103(25.7)	298(74.3)	40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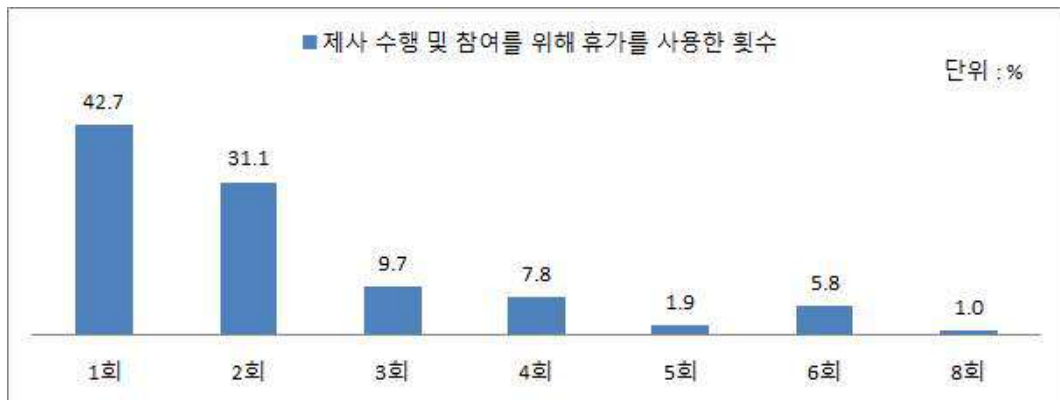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제사의 수행이나 참여를 위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휴가 사용

횟수는 2.17회이며, 1회 내지 2회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수행이나 참여를 위한 휴가사용 횟수는 1회 42.7%, 2회 31.1%, 3회 9.7%, 4회 7.8%, 6회 5.8%, 5회 1.9%, 8회 이상 1.0% 순으로 주로 1회 내지는 2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6>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횟수



- 제사의 수행이나 참여를 위한 휴가사용 횟수는 여성 2.49회, 남성 1.58회로 여성의 사용 횟수가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평균 사용횟수가 증가하여 60대 이상이 3.07회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6> 제사 수행 및 참여를 위한 휴가 사용 횟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또는 F
성	여성	67	2.49	1.561	3.251**
	남성	36	1.58	1.228	
	계	103	2.17	1.511	
연령	30대	25	1.76	1.091	2.720*
	40대	36	2.00	1.331	
	50대	27	2.30	1.877	
	60대 이상	15	3.07	1.534	
	계	103	2.17	1.51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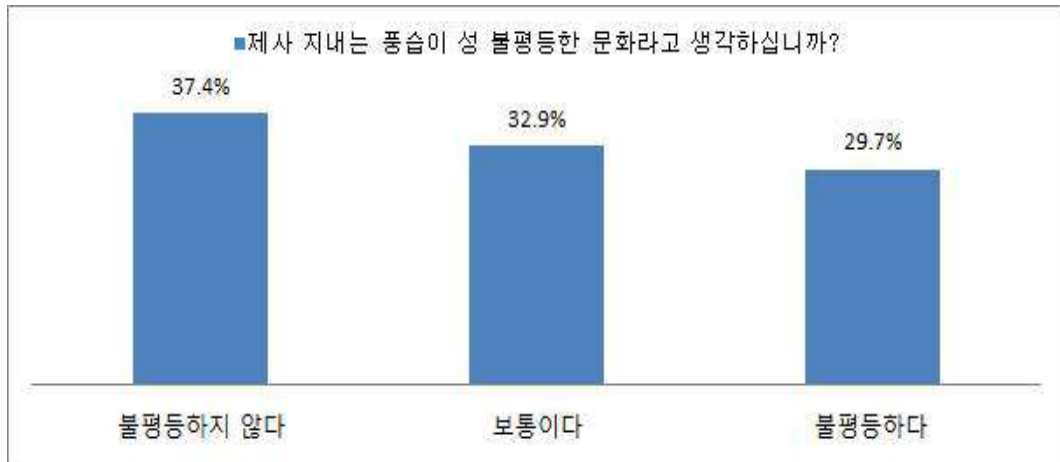
4. 제례와 성불평등 인식

가. 제례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1)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은 불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불평등하다는 인식보다 조금 더 많으며, 그 차이는 7.7%p로 나타남.
 -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 37.4%, 보통이다 32.9%, 그렇다 29.7% 순으로 나타나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그렇다는 인식보다 7.7%p 더 많음.

<그림 3-47>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높고 남성은 불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40대가 가장 높고 불평등하지 않다는 인식은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특히 더 낮게 나타남.

〈표 3-27〉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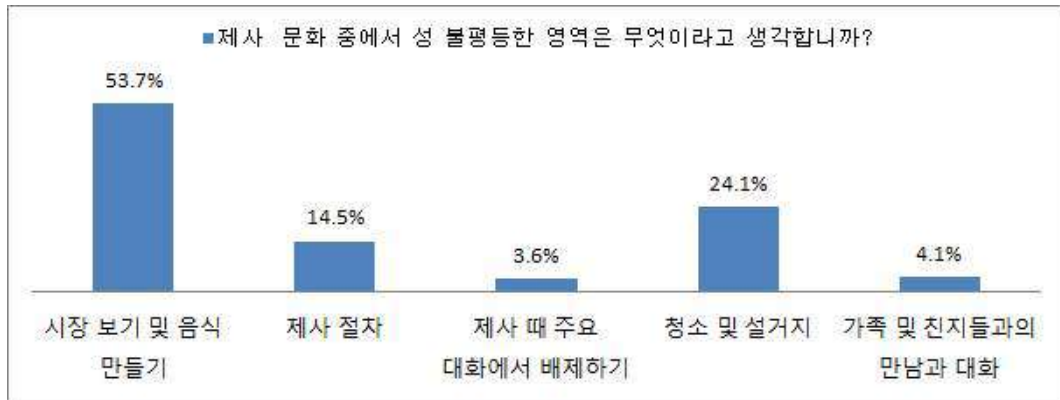
구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χ^2	
	불평등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평등하다	계		
성	여성	54(26.5)	73(35.8)	77(37.7)	204(100.0)	23.424***
	남성	96(48.7)	59(29.9)	42(21.3)	197(100.0)	
	계	150(37.4)	132(32.9)	119(29.7)	401(100.0)	
연령	30대	21(26.3)	32(40.0)	27(33.8)	80(100.0)	25.614***
	40대	28(27.7)	28(27.7)	45(44.6)	101(100.0)	
	50대	42(43.3)	31(32.0)	24(24.7)	97(100.0)	
	60대 이상	59(48.0)	41(33.3)	23(18.7)	123(100.0)	
	계	150(37.4)	132(32.9)	119(29.7)	401(100.0)	

* p<.05, ** p<.01, *** p<.001

2)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한 영역

- 제사 문화 중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청소와 설거지가 높게 나타나 주로 가사노동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한 영역은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 53.7%, ‘청소 및 설거지’ 24.1%, ‘제사 절차’ 14.5%,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과 대화’ 4.1%, ‘제사 때 주요 대화에서 배제하기’ 3.6% 순으로 나타나 시장 보기, 음식 만들기, 청소, 설거지 등과 같은 가사 노동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8〉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한 영역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청소 및 설거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노동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은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는 ‘청소 및 설거지’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제사 절차’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3-28〉 제사 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단위 : 명(%)

구분	제사 문화 중에서 성불평등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χ^2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	제사 절차	제사 때 주요 대화에서 배제하기	청소 및 설거지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과 대화			
성	여성	110(58.8)	25(13.4)	4(2.1)	41(21.9)	7(3.7)	187(100.0)	5.289
	남성	86(48.3)	28(15.7)	9(5.1)	47(26.4)	8(4.5)		
	계	196(53.7)	53(14.5)	13(3.6)	88(24.1)	15(4.1)		
연령	30대	37(50.7)	8(11.0)	4(5.5)	22(30.1)	2(2.7)	73(100.0)	18.426
	40대	48(50.5)	11(11.6)	6(6.3)	24(25.3)	6(6.3)	95(100.0)	
	50대	51(60.7)	18(21.4)	2(2.4)	11(13.1)	2(2.4)	84(100.0)	
	60대 이상	60(53.1)	16(14.2)	1(0.9)	31(27.4)	5(4.4)	113(100.0)	
	계	196(53.7)	53(14.5)	13(3.6)	88(24.1)	15(4.1)	36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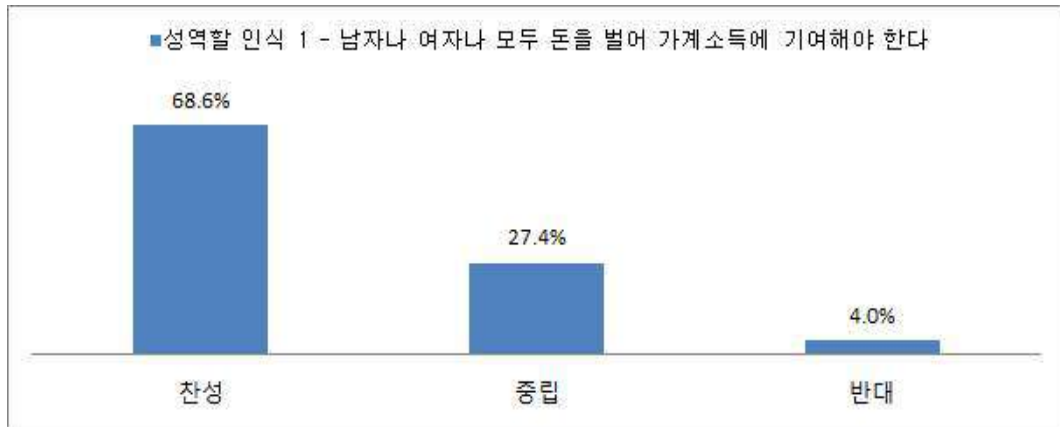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나. 성역할 인식

1)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녀 모두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찬성 68.6%, 중립 27.4%, 반대 4.0% 순으로 남녀 모두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그림 3-49〉 성역할 인식 1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남녀 모두 찬성 의견이 더 많았으며, 특히 여성의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도 모두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문항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 특히 50대의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3-29〉 성역할 인식 1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χ^2
	찬성	중립	반대	계	
여성	150(73.5)	45(22.1)	9(4.4)	204(100.0)	6.039*
남성	125(63.5)	65(33.0)	7(3.6)	197(100.0)	
계	275(68.6)	110(27.4)	16(4.0)	40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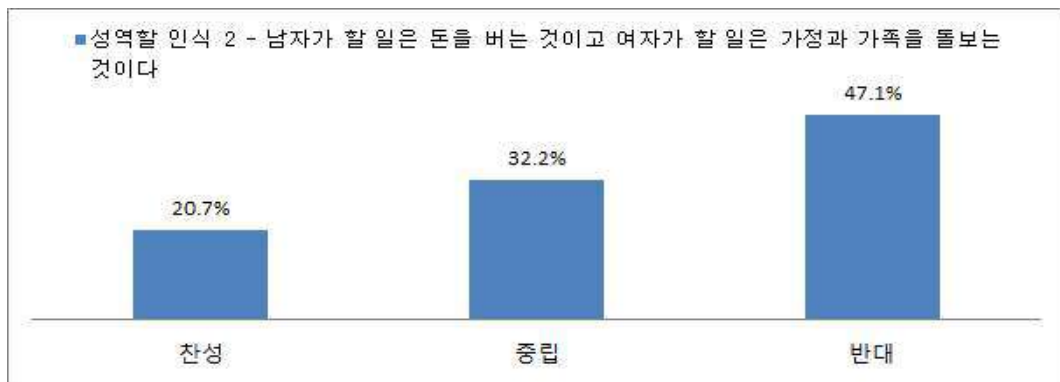
	30대	54(67.5)	26(32.5)	-	80(100.0)	
	40대	67(66.3)	32(31.7)	2(2.0)	101(100.0)	
연령	50대	68(70.1)	22(22.7)	7(7.2)	97(100.0)	10.418
	60대 이상	86(69.9)	30(24.4)	7(5.7)	123(100.0)	
	계	275(68.6)	110(27.4)	16(4.0)	401(100.0)	

* p<.05, ** p<.01, *** p<.001

2)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보다 2배가량 더 많음.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반대 41.7%, 중립 32.2%, 찬성 20.7% 순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반대하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0> 성역할 인식 2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반대 의견이 더 많고, 남성은 중립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하의 반대 의견이 가장 많고 60대 이상은 중립 의견이 가장 많음. 특히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반대 의견이 적고, 찬성 의견은

많아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0〉 성역할 인식 2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χ^2	
	찬성	중립	반대	계		
성	여성	37(18.1)	50(24.5)	117(57.4)	204(100.0)	18.093***
	남성	46(23.4)	79(40.1)	72(36.5)	197(100.0)	
	계	83(20.7)	129(32.2)	189(47.1)	401(100.0)	
연령	30대	9(11.3)	25(31.3)	46(57.5)	80(100.0)	30.951***
	40대	11(10.9)	32(31.7)	58(57.4)	101(100.0)	
	50대	22(22.7)	27(27.8)	48(49.5)	97(100.0)	
	60대 이상	41(33.3)	45(36.6)	37(30.1)	123(100.0)	
	계	83(20.7)	129(32.2)	189(47.1)	401(100.0)	

* p<.05, ** p<.01, *** p<.001

다. 성역할 인식과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 여성은 탈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여성의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았고, 남성은 모든 성역할 인식에서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낮게 나타남.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남성에게서 더 낮게 나타남.
- 제사 문화 중에서 성불평등한 영역은 남녀, 성역할 인식에서 모두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가 가장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노동의 부담을 여성뿐만 아니라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높은 남성도 인지하고 있음.
 - 다만 여성은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높은 경우에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1) 성역할 인식 1(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서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과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 여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성역할 인식이 탈전통적일수록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하는 여성은 제사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는 인식이 가장 높고, 중립적 태도를 가진 여성은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도 중립적이며, 반대하는 여성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모든 인식에서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낮게 나타남. 다만 해당 견해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성불평등 인식이 더 낮아짐.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모든 인식에서 남성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중립이나 반대하는 남성보다 찬성하는 남성이 성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31〉 성역할 인식 1과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χ^2
		불평등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평등하다		
여성	찬성	37(24.7)	54(36.0)	59(39.3)	150(100.0)	4.308
	중립	12(26.7)	17(37.8)	16(35.6)	45(100.0)	
	반대	5(55.6)	2(22.2)	2(22.2)	9(100.0)	
	계	54(26.5)	73(35.8)	77(37.7)	204(100.0)	
남성	찬성	64(51.2)	34(27.2)	27(21.6)	125(100.0)	1.623
	중립	29(44.6)	23(35.4)	13(20.0)	65(100.0)	
	반대	3(42.9)	2(28.6)	2(28.6)	7(100.0)	
	계	96(48.7)	59(29.9)	42(21.3)	197(100.0)	

주 : 성역할 인식 1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p<.05, ** p<.01, *** p<.001

- 여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아짐

- 여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모든 인식에서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가 가장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찬성 56.9%, 중립 59.5%, 반대 87.5%로 나타나 여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높을수록 ‘시장보기 및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더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가사노동 부담을 더 많이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남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모든 인식에서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가 가장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역할 인식이 전통적인 남성이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음.

〈표 3-32〉 성역할 인식 1과 제사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단위 : 명(%)

구분	제사 문화 중에서 성불평등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	χ^2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	제사 절차	제사 때 주요 대화에서 배제하기	청소 및 설거지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과 대화			
여성 성역할 인식 1	찬성	78(56.9)	21(15.3)	1(0.7)	34(24.8)	3(2.2)	137(100.0)	16.117*
	중립	25(59.5)	4(9.5)	3(7.1)	7(16.7)	3(7.1)	42(100.0)	
	반대	7(87.5)	-	-	-	1(12.5)	8(100.0)	
	계	110(58.8)	25(13.4)	4(2.1)	41(21.9)	7(3.7)	187(100.0)	
남성 성역할 인식 1	찬성	56(48.7)	17(14.8)	4(3.5)	34(29.6)	4(3.5)	115(100.0)	6.553
	중립	25(44.6)	10(17.9)	5(8.9)	12(21.4)	4(7.1)	56(100.0)	
	반대	5(71.4)	1(14.3)	-	1(14.3)	-	7(100.0)	
	계	86(48.3)	28(15.7)	9(5.1)	47(26.4)	8(4.5)	178(100.0)	

주 : 성역할 인식 1 -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 p<.05, ** p<.01, *** p<.001

2) 성역할 인식 2(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와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 여성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 탈전통적 인식을 가진 여성의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라는 견해에 대해 찬성 또는 중립적 태도를 가진 여성은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에 대해 중립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하는 여성은 ‘제사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이라는 견해에 대한 모든 인식에서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이 낮게 나타남. 다만 해당 견해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일수록 성불평등 인식이 더 낮아짐.
 - 남성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서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모든 인식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남성보다 중립이거나 찬성하는 남성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가 아니라는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표 3-33> 성역할 인식 2와 제사에 대한 성불평등 인식

단위 : 명(%)

구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성불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χ^2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여성	찬성	10(27.0)	16(43.2)	11(29.7)	12.377*
	중립	14(28.0)	25(50.0)	11(22.0)	
	반대	30(25.6)	32(27.4)	55(47.0)	
	계	54(26.5)	73(35.8)	77(37.7)	
남성	찬성	24(52.2)	14(30.4)	8(17.4)	1.305
	중립	40(50.6)	23(29.1)	16(20.3)	
	반대	32(44.4)	22(30.6)	18(25.0)	
	계	96(48.7)	59(29.9)	42(21.3)	

주 : 성역할 인식 2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p<.05, ** p<.01, *** p<.001

- 여성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하여 찬성, 중립, 반대하는 경우 모두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가 가장 불평등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청소 및 설거지’로 나타남.
-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찬성, 중립, 반대 모두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가 가장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청소 및 설거지’가 나타남.

〈표 3-34〉 성역할 인식 2와 제사문화 중 성불평등 영역

단위 : 명(%)

구분	제사 문화 중에서 성불평등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	χ^2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	제사 절차	제사 때 주요 대화에서 배제하기	청소 및 설거지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과 대화		
여성 성역할 인식 2	찬성	24(66.7)	3(8.3)	-	7(19.4)	2(5.6)	12.986
	중립	25(52.1)	5(10.4)	3(6.3)	11(22.9)	4(8.3)	
	반대	61(59.2)	17(16.5)	1(1.0)	23(22.3)	1(1.0)	
	계	110(58.8)	25(13.4)	4(2.1)	41(21.9)	7(3.7)	
남성 성역할 인식 2	찬성	20(48.8)	7(17.1)	1(2.4)	11(26.8)	2(4.9)	2.687
	중립	31(44.3)	10(14.3)	5(7.1)	20(28.6)	4(5.7)	
	반대	35(52.2)	11(16.4)	3(4.5)	16(23.9)	2(3.0)	
	계	86(48.3)	28(15.7)	9(5.1)	47(26.4)	8(4.5)	

주 : 성역할 인식 2 -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 p<.05, ** p<.01, *** p<.001

5. 제례에 대한 만족도

가. 성별 제례 만족도

- 제례에 관한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며, 남성과의 만족도 격차 역시 가장 큰 항목이었음.
- 여성의 제례 항목별 만족도는 복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로 제사 형식과 절차에 대한 만족도보다

음식준비와 제수 비용, 가사노동 분담 등 가사노동과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가 특히 더 낮게 나타남.

- 여성의 제례 항목별 만족도는 복장이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참석하는 친척의 범위 3.22점, 가족 간 친목 3.17점, 제기 3.15점, 장소 3.15점, 신위 모시는 방법 3.12, 직접 참여하는 사람 3.12 등을 포함하여 주로 제사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만족도는 3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간 값을 상회하는 정도임에 비해 가사노동 분담 2.61점, 제수 비용 2.66점, 음식준비 방법 2.82점, 제사 횟수 2.84점, 상차림(진설법) 2.84점 등처럼 제사 준비를 위한 가사노동과 관련된 항목과 경제적 부담에 관련된 항목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제례 항목별 만족도는 가족 간 친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제사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만족도에서도 여성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제사 준비를 위한 가사노동과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남성은 가족 간 친목이 3.5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복장 3.47점, 장소 3.44점, 직접 참여하는 사람 3.40점, 제기 3.39점, 참석하는 친척 범위 3.39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반면 제사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3.0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밖에 제수 비용 3.06점, 제사 횟수 3.10점, 가사노동 분담 3.13점, 봉사 대수 3.13점, 음식준비 방법 3.19점 등이 다른 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 남성의 만족도에서도 여성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제사준비를 위한 가사노동 및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남.

〈표 3-35〉 제례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5점) - 성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t
제사 지내는 것	3.17	3.02	3.32	-3.862***
제사 형식	3.11	3.00	3.24	-2.921**
제사 절차	3.08	2.97	3.19	-2.587*
진설법(상차림 방법)	3.03	2.84	3.23	-4.710***
제사 주관자	3.15	3.01	3.29	-3.637***
횟수	2.97	2.84	3.10	-3.197**
시간	2.93	2.86	3.01	-1.739
봉사 대수	3.07	3.00	3.13	-1.700

신위 모시는 방법	3.19	3.12	3.27	-2.025*
제기	3.26	3.15	3.39	-3.308**
직접 참여하는 사람(성별·세대)	3.26	3.12	3.40	-3.905***
장소	3.29	3.15	3.44	-3.850***
참석하는 친척 범위	3.30	3.22	3.39	-2.372*
복장	3.38	3.29	3.47	-2.406*
제수 비용	2.86	2.66	3.06	-5.118***
음식종류	3.03	2.87	3.21	-4.550***
음식준비 방법	3.00	2.82	3.19	-4.723***
제사 후 음식처리방법	3.06	2.86	3.26	-5.010***
가사노동 분담	2.87	2.61	3.13	-6.574***
나의 역할과 지위(위치)	3.15	2.95	3.37	-5.617**
가족 간 친목	3.37	3.17	3.58	-5.162**

* p<.05, ** p<.01, *** p<.001

나. 연령별 제례 만족도

- 연령별 제례에 관한 항목별 만족도는 제수 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40대 이하의 만족도 보다 높게 나타남. 즉 거의 모든 제례 항목에 대하여 40대 이하는 50대 이상보다 만족도가 낮아 세대 간 차이를 드러냄.
 - 다만 제수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지만 특히 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제례 만족도 항목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연령대와 가장 만족도가 낮은 연령대의 격차가 큰 항목으로는 제사 시간, 제사 절차, 제사 형식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제사 시간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 순위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 제사 시간에 대한 세대 간 논의와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미 지내고 있는 제사 시간과 선호하는 제사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서도 제사 시간 변화에 대한 요구가 확인된 바 있음.
- 항목별 만족도 중 3점 미만인 항목을 만족도 순서대로 살펴보면, 30대는 제사 횟수, 음식준비 방법, 진설법, 제사 형식, 제사 절차, 가사노동 분담, 제수 비용, 제사 시간 순으로 8개 항목이었으며, 40대는 제수, 진설법, 제수 비용, 음식 종류, 음식준비 방법, 봉사 대수, 제사 후 음식처리 방법, 제사 횟수, 가사노동 분담, 제사 시간 순

으로 10개 항목으로 나타남. 반면 50대와 60대는 가사노동 분담과 제수 비용 순으로 2개 항목으로 나타나 세대 간 만족도의 수준과 항목의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 만족도 순위가 상위인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연령대별로 순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족 간 친목, 참석하는 친척의 범위, 제사 장소, 제사 복장,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성별, 세대), 제기 등이 나타났으며, 만족도 순위가 최하위인 항목들 중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또한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가사노동 분담 외에도 제사 횟수, 제사 시간, 제수 비용, 봉사 대수 등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항목과 음식의 종류, 음식준비 방법, 음식처리 방법 등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목들이 만족도 순위 하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표 3-36〉 제례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5점) - 연령

구분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F
제사 지내는 것	3.17	3.06	3.07	3.20	3.31	2.352
제사 형식	3.11	2.85	3.02	3.22	3.28	5.392**
제사 절차	3.08	2.79	3.02	3.18	3.24	5.318**
진설법(상차림 방법)	3.03	2.86	2.96	3.10	3.14	2.179
제사 주관자	3.15	3.09	2.97	3.24	3.27	3.231*
횟수	2.97	2.93	2.79	3.07	3.05	2.585
시간	2.93	2.64	2.76	3.04	3.18	8.421***
봉사 대수	3.07	3.01	2.91	3.14	3.17	2.761*
신위 모시는 방법	3.19	3.03	3.09	3.35	3.27	4.177**
제기	3.26	3.11	3.24	3.37	3.30	2.000
직접 참여하는 사람(성별·세대)	3.26	3.21	3.13	3.35	3.33	2.063
장소	3.29	3.26	3.08	3.43	3.37	4.216**
참석하는 친척 범위	3.30	3.29	3.16	3.42	3.33	2.313
복장	3.38	3.26	3.33	3.48	3.41	1.483
제수 비용	2.86	2.78	2.94	2.86	2.84	.646
음식종류	3.03	3.00	2.94	3.09	3.09	.954
음식준비 방법	3.00	2.90	2.93	3.05	3.08	1.220
제사 후 음식처리방법	3.06	3.10	2.81	3.13	3.18	4.319**
가사노동 분담	2.87	2.79	2.77	2.95	2.93	1.178
나의 역할과 지위(위치)	3.15	3.01	3.06	3.25	3.25	2.481
가족 간 친목	3.37	3.34	3.32	3.38	3.42	.354

* p<.05, ** p<.01, *** p<.001

6. 소결 및 시사점

가. 제사의 절차와 방법의 변화

- 집에서 지내는 제사의 평균 횟수는 연 2.37회, 다른 곳(형제·자매나 친척)에 참가하는 제사는 연 2.75회로 나타났으며, 제사의 형식으로 유교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사와 함께 이뤄지는 동반의례는 문전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봉사는 주로 3대조 또는 2대조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제사는 망자의 사망 전날이나 사망 당일에 해당하는 일자에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제사 시간은 저녁 9~11시에 가장 많이 지내지만 밤 11~1시 사이에 지내는 경우도 여전히 많음.
 - 그러나 봉사 대수가 2대조 이하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자시(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서 벗어나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에 대한 일반적 통념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는 주로 장자가 맡아서 지내며, 제사 방법은 합제 또는 분제가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월전은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제사의 대상은 주로 본가(시가)의 조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제사의 복장은 정장이 가장 많지만 평상복을 입는 경우도 많았으며, 제기는 전용 그릇을 따로 사용하거나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릇과 혼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복장의 착용과 제기의 사용에서 다소 유연한 변화가 나타남.
-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를 주로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며, 축문작성과 제사 의례의 주도는 주로 남성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사 수행을 위한 남녀의 역할이 다소 경직되어 있지만 다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남.
 - 다만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30대에서 다소 유연하게 나타난 반면 남성과 60대 이상은 다소 경직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상 차림 방식은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주로 전통제례 음식을 올리지만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함께 올리거나 가족을 위한 음식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많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사

음식을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집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1회 제사의 제수 비용으로는 주로 30만 원대 또는 20만 원대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수 비용의 부담은 전적으로 제사를 맡은 사람이 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현금으로 상호 부조하는 경우도 많음.

나. 제례 의식의 변화

- 제례와 관련하여 남성과 60대 이상이 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30대는 성역할 인식의 변화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임.
 - 제사의 관한 인식 중 제사의 장남 승계, 여성은 제사 지내는 것을 배우고 도와야 하며, 제사를 준비할 때 주부가 관장을 하고 며느리·딸들이 이를 따라야 하는 등 전통적 성역할 인식은 남성과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 현대생활에서의 제사의 필요성과 제사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조상의 추모, 제사 음식의 교육과 계승, 사망 후 자손의 봉사 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60대 이상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 여성인 자손의 제사 참석에 대해서는 성과 연령에 관계없이 긍정적 인식이 가장 많음. 특히 여성과 30대의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 여성과 30대가 친정부모(장인·장모)의 봉사와 여성인 자손의 제사 참석을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조금 더 높지만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제사의 교육적 기능,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제사의 기복적 기능, 집안의 친목도모 기능, 친족공동체의 결속 기능에 대하여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별로는 60대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사의 변화방향은 봉사 대수의 감소, 더 이른 제사 시간의 변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사의 지속을 원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60대 이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30대는 제사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따라서 여성과 젊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제사의

변화가 필요함

- 더구나 제사의 가장 힘든 점이 제사 음식 준비로 나타났고,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37.7%였으며,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 또는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아 제례의 전승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합의는 물론 성역할 인식을 포함하여 제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다. 성역할과 성불평등 인식의 변화

- 다른 한편으로, 제사 지내는 풍습을 성불평등한 문화로 바라보는 인식이 29.7%로 나타났고,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 청소 및 설거지가 지목되어 주로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인식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여전히 일과 가정에 대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음.
 - 특히 남성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하면서도 이러한 공감이 실질적 참여나 성불평등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임.
 -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이중적 인식은 다른 국가통계에서도 일관된 경향이 확인되고 있음.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사분담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2010년 36.8%에서 2018년 59.1%(여성 42.2% → 63.4%, 남성 31.2% → 54.6%)로 증가하였지만 2018년의 경우, 실제 가사분담에 대하여 아내는 19.5%, 남편은 20.2%만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14)』에 나타난 가사노동(가정관리, 가족 및 가구원들 보기) 시간을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요일평균 50분, 여성은 요일평균 4시간 19분으로 나타나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이 압도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즉 남성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분담하는 남성은 매우 적음.
- 이 조사의 분석결과는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인식이 다소 약화되었고,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적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제례문화 내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주로 여

성이 부담해왔던 가사노동을 남녀가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필요함.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던 시장보거나 음식 만들기와 같은 과정에 남성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라. 제례문화 지속을 위한 만족도의 개선방안 마련

- 제례에 관한 항목별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제수 비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0대 이하가 50대 이상보다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남. 특히 가사노동 분담은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남성과의 만족도 격차 역시 가장 큰 항목이었으며, 연령별로도 만족도 순위가 매우 낮은 항목이었음.
 - 이는 제사준비를 위한 가사노동 분담의 필요성을 성별로도, 세대별로도 모두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제례문화 속에서는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실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은 주로 제사 형식과 절차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음식준비와 제수 비용, 가사노동 분담 등 가사노동과 관련된 항목의 만족도가 특히 더 낮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만족도에서도 여성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제사 준비를 위한 가사노동 관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 또한 4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가사노동 분담 외에도 제사 횟수, 제사 시간, 제수 비용, 봉사 대수 등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항목과 음식의 종류, 음식준비 방법, 음식처리 방법 등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항목들이 만족도 순위 하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는 제례문화의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제사 횟수, 제사 시간, 봉사 대수 등에 대한 변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제사의 수행 과정에서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이 조사의 분석결과가 제례문화의 전통의 고수 또는 변화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 제사가 가정의례라는 점에서 제례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근간은 가족구성원들 모

두의 행복임. 즉 제사는 가족구성원인 남과 여, 세대와 세대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함. 실제 제사의 수행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참여에 의해서 구현되며, 제사의 전승이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위에 기댄 전통의 강요는 제례문화의 존폐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례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성불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제례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임.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례 및 의식 심층면접

1. 조사개요
2. 주요 조사내용 및 분석결과
3. 소결 및 시사점

1. 조사개요

가. 조사방법

- 심층면접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사의례 절차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 정도,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제사의례 시행의 의미 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대상 : 제사의례를 집행하고 있는 50대부터 80대까지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하고, 30대와 40대의 제사의례 태도 등은 간접 질문 방식을 택하였음.
 - 조사내용 : 질문지는 크게 제사의례 이행 현황, 제사의례와 성역할의 변화,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세부내용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음.
 - 자료수집 방법 :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면담자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사전에 면담자로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화로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방문 일자를 조정하였음.
 - 조사기간 : 2018년 10월 31일~11월 27일(28일간)

나. 조사 내용

〈표 4-1〉 심층면접 조사 영역

영역	세부 내용
1. 제사의례 이행 현황	제사의례 주례자, 제사 의례 절차 및 변화 양상, 제사음식과 제례 참여
2. 제사의례와 성역할의 변화	제사 의례 전승 태도, 제사의례 전승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역할, 제사의례 이행의 의미
3.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혈연공동체의 연대의식, 제사의례 계승의 주체, 제례 계승의 조건 및 한계

다. 면접대상자 일반적 특성

- 심층면접에서는 제주지역 제사의례를 통해 주례자의 역할과 인식, 참여자로서의 태

도,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정도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대상자를 지역과 연령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외 추가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30~40대의 의식변화 등을 보충하였음.

- 피면접자의 인권과 개인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질문 내용에 따라 사례를 제시할 때는 10명의 응답자를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여 ‘사례 1(성별과 연령 포함)’, ‘사례 2’ 등으로 분류하여 이해를 돕고자 함.
-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0명을 대상으로 했으나 가능하면 제주 전 지역의 풍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과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음.
 - 조사지역은 조사대상자의 고향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여성인 경우 친정과 시가의 제사의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조사대상자는 지역, 성별, 나이에 근거하여 제사의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의례 주체자로 질문의 내용에 응답 가능한 면담자를 선정함.

〈표 4-2〉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구분	심층면접 대상자 특성
성별	여성 : 7명(50대 : 3명, 60대 : 4명) 남성 : 3명(50대 : 2명, 80대 : 1명)
연령	50대 : 5명, 60대 : 4명, 80대 : 1명
지역	제주시(노형동, 도두동), 구좌읍(김녕리), 성산읍(오조리), 남원읍(태흥리), 표선면(신평리, 세화리), 서귀포시(효돈동), 안덕면(화순리), 대정읍(신도리, 신평리), 한림읍(수원리), 애월읍(광령리, 애월리)

2. 조사 내용 및 분석결과

-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제례에 남아있는 성역할과 지손들의 역할 등 전통적인 풍속을 통해 성평등한 가족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함.

가. 제사의례의 이행 현황

1) 제례의 주례자

가) 제례 집행 전담

- 제주지역에는 장자에게 제사명절을 전적으로 이양하거나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풍속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자에게 전담하기보다는 아들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는 풍속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
 - 제사와 명절은 아들 수에 따라 분배함. 만약 미혼 아들인 경우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물려주지 않고 어머니나 다른 형제가 미혼인 아들이 기혼이기 전까지 일정 기간 집행함.
- 후손들에게는 제사 계승 의무가 있는 반면 재산 상속의 권한도 부여받음. 일반적으로 제사와 재산이 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장자에게 제사와 재산이 이동된 이후 그 집안이 몰락하면 제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함.
 - 부모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장자는 자신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음.
 - 아버지 제사는 장자가 하고 어머니 제사는 차남(둘째)이 지내는 것이 통상 관례임.
- 자식이 제사를 물려받으면 대다수 사람들은 본인의 집에서 의례를 이행함. 이때 시가의 예법을 준수하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의례 주체자이므로 제사음식을 형편에 맞게 준비할 수 있음.
- 자식이 제사를 직접 주관하게 되어도 부모님 집에서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때 제사 비용은 의례 주례자인 자식이 부담함.
- 자식에 따라 어머니 제사를 맡은 후에 자청해서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남편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제사를 모시려는 뜻이 있음.

[우리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제사도 같이 모셔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 집의 남편은 하나도 모릅니다. 남자들 뭣 몰라.]

- 사례 8(여, 60대)

- 제사는 부모가 이행하다가 적어도 70대 이상이 되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 보편적임. 이때 자식의 나이는 거의 40대~60대에 분포되어 있고, 간혹 30대도 있음.
- 집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나이 들고,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버거워질 때쯤에 자식들에게 물려줌.

[집안마다 다르지만 나이가 70이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어떤 때는 그 전에도 물려주고 나이로 따지면 70이 되면 거의 다 알아서 하라고 물려주는 거. 제사명절은 의례 할 거라고 해서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하는 거로 생각했지 뭐. 재산 따라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 사례 7(남, 80대)

[불편해도 자기네 손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식들 생각해서. 자식들한테 집 안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다행. 제주도 부모들은. 제사명절 힘든 줄 아니까.]

- 사례 3(여, 50대)

- 지금 60대 이상 세대들은 부모에게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본인의 상속 유무와 관계없이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음.
- 큰며느리인 경우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제사명절을 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처음에 시집갈 때 그런 생각 없었고 가서 살다 보니 제사할 생각을 했다.]

- 사례 3(여, 50대)

-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제사를 늦게 물려주었는데, 요즘은 며느리의 입김이 세어서 제사를 가져가라고 하면 아들과 불화가 생길까 염려하여 조심스러워 함.
- 부모가 나이 들면 주로 70대가 넘어서 제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80대가 되어도 부모가 직접 제사명절을 지내는 집안도 있음.

- 60대 이상 세대들은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고 믿고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부모가 제사를 맡아서 지내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음.
- 일반적으로 아들들은 장자든 아니든 적당한 때가 되면 제사명절을 주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음. 이때 며느리가 흔쾌히 동의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함. 아들들은 아내에게 제사를 직접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본인의 자식(특히 아들)에게는 제사 예법을 가르치면서 풍속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있음.

나) 제례 주례자의 의무

- 일반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지내는 것이 보통이고, 집안에 따라 고조부 또는 조부까지만 지내기도 함.
- 제사는 엄숙하게 진행되는 의례이므로 제관은 양복을 입는데, 간혹 제례복(한복)을 갖추어 입는 집안도 있음. 친척집 제사에 참석할 때도 절을 해야 하므로 도복을 입고 가는데 이런 풍속은 아버지 세대에 있었고, 지금은 양복을 입는 정도임.
 - 한 면담자는 2000년 전후까지 제례복을 입었는데, 옷 손질도 힘들고 주변에서 입지 않기 시작하면서 제례복을 착용하는 풍속은 사라졌음.
- 여성들은 제삿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음식 등 절차에 맞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 반면 제사상을 진설하는 것은 남성의 역할로 굳어졌기 때문에 해질녘이 되면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진설하고, 제를 지내는 의식을 담당함.

[그 중에도 착한 며느리 있을 거잖아. 여자들이 좌지우지 해. 제사로는. 준비하는 게 다 여자일이잖아. 남자들은 진짜 제주도 남자들은 제삿날 음식 다 차려 놓으면 상이나 차릴까? 어떤 때는 여자가 상까지 차리고...]

- 사례 8(여, 60대)

- 어른들은 제례 절차 이행 시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조상을 기억하는 날이므로, 아이를 울리지 말고, 가족 간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해 왔음.

[시아머니는 제사가 다가오면 집 청소부터 하더라고. 집 청소하고 ‘큰소리 나면 안 된다.’라는 걸 늘 이야기를 해. 애들 울음소리도 크게 나도 안 되고….]

- 사례 10(여, 60대)

- 여성들은 제사명절을 준비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최근 들어 남성도 휴가를 받아서 같이 의례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저희 애기 아빠는 저희가 물려받으면서는 휴가 내. 자기가 휴가 내겠다고… 오 후에 반가 받고 오면 집 치우고 병풍치고 하는 건 본인이 다 해. 끝나면 정리 다 해 주고….]

- 사례 3(여, 50대)

- 요즘 여성들은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삿날은 당연히 휴가를 받고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임. 며느리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여유가 없을 때 제사의례는 부담스럽게 작용함.

- 사람에 따라 자신이 만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닌데 제사 모시는 의무가 주어지면 하지 않겠다고 불평함. 이럴 때 재산도 상속받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아들로 넘어가는데 제사는 하지 않고 재산 상속에는 관심을 둘 때는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간에 불화가 발생하기도 함.

2) 제사의례 절차 및 변화 과정

가) 단독제사에서 합제로 변화

- 원래 제사는 망자를 온전히 기억하는 날의 의미가 있는데, 제주지역에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의례의 간소화 차원에서 합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합제는 어머니 기일과 아버지 기일을 따로 지내지 않고, 아버지 기일에 한 번만 부모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리킴. 따라서 연 2회 하던 제사가 1회로 줄어들어서 제례주례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음.
- 합제의 제도가 사회적 합의가 되고, 가문의 합의로 귀결되는 과정에는 찬성과 반대

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됨. 합제의 대상은 고조부나 증조부에서 조부와 부모까지 확대되었음.

- 합제와 같은 의례 절차의 변화는 명분과 동의가 중요하므로, 먼저 친척들이 협의하고 주변의 변화도 살피면서 결정하며, 자신이 합부로 의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집안 어른이 먼저 결정하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머니, 아들 등 발언권 순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함.
 - 간혹 제사를 담당하는 아들이 합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아내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음.
- 합제를 지내는 것은 제주 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남성의 제삿날을 기준 삼아 여성의 제삿날을 이동함. 이에 대해 누구도 건의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데, 제례에서도 여성의 위상을 찾아보기 힘든 사례에 해당됨.
 - 다른 지방에서는 먼저 돌아가신 사람의 제삿날로 지내는데, 이는 먼저 돌아가시면 그가 선배라고 인식하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의례의 변화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주요했는데, 자손들이 국내외로 흩어져서 살게 되고,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수차례의 제사 준비는 어려움.
- 모두가 합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개인에 따라 적어도 부모님의 제사는 합제를 원하지 않기도 함.
 - 이는 각자 사망한 날이 다르고 한 번 더 하는 건데 굳이 합제할 의미가 없다는 관점임.

[몇 년 하다가 나 때는 각자 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애들이 하게 되면 합제를 하든지...]

- 사례 8(여, 60대)

나) 제사 지내는 시간의 변경

- 제사를 자시에 지낸 것은 새날이 시작되는 시간에 제사를 지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었음.

[자시를 택한 것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사를 모시고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이다. 다른 거 하기 전에 조상을 먼저 모시고 밭에 일도 하고 해야겠다 한 것인데 세상이 바뀌어지니까 당일 한다고 하면 돌아간 날을 해야 하는 거...]

- 사례 7(남, 80대)

- 합제 시행에도 집안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듯이 제사 시간의 변경 또한 협의와 인내가 필요한 사항임.
 - 집안 어른들이 먼저 제사 시간의 변경을 추진하면 빠르게 추진이 되는데, 이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몇 년간 논의만 하게 되고 자식 세대들은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임.
 - 합제는 돌아가신 날로 제사를 지내므로 주로 저녁 8시-9시에 제를 지내는 것을 의미함.
- 의례 절차의 변화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누가 먼저 변화의 주인공이 되느냐가 중요함. 주변에서 합제를 하고 당일제를 하는 것이 좋으면 이웃으로 전파되는데, 의례 절차는 사람들의 생활에 맞게 더디지만 변하고 있음.
- 당일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족들의 편리함을 고려한 것이므로, 여성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반영해야 함.

[머느리도 합리적이어야 하는 게 당일제하면서 음식 차릴 때 요즘 음식도 시장 가면 세트로 나오고. 여자들이 저녁 두 번 차리는 게. 이걸 손님 와서 차려주고 제 파제하면 준비하고. 그래서 당일제가 좋다는 뜻이다.]

- 사례 6(남, 50대)

다) 제사 참석 범위

- 일반적으로 결혼한 딸은 조부모와 부모제사에 참석하는 정도임. 친정제사는 부모와 조부모 제사까지 참석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 제사는 참석하지 않음.
 - 여성의 입장에서 제사 대상자는 시가의 조상들이고, 결혼한 여성의 친정 제사 참

석은 선택 사항임.

- 과거에는 친척과 이웃집 제사에 거의 참석했는데 각자 일상이 바빠지고, 거주 공간이 달라지면서 부모제사도 겨우 참석하는 정도임.
- 요즘은 친척집 제사에 참석하는 범위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서로 돌아보지 않아도 흥이 안 되므로 직계 가족만 참석함.
-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품앗이의 일종임. 우리 집 제사에 참석해 주면 당사자는 그 집 제사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참석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제사에 참석하는 범위가 축소되었음.
 - 친척집 제사 참석은 당연하고, 제주도에서는 동네 이웃이나 친구 집 제사에도 참석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풍속임.

라) 배례 참여 대상자

- 원래 제사 때 여자가 배례하지 말라는 법이 없음. 여성들이 부엌에서 일하다가 옷을 갈아입고 참석하는 것이 불편하고, 바쁘기도 해서 젓방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져서 또 하나의 풍습이 되었음.
- 제를 지낼 때 제관이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은 아들, 손자 순으로 함. 즉 배례 순서는 ‘아들-장손-손자-며느리-사위와 딸-친손녀-외손자-외손녀’등으로 진행되는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
- 반면 제사 때 여성들은 배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간혹 딸이 부모님 제사 때 절을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는 정도임. 여성들이 절을 하지 않아도 흥이 되지 않으며, 집안 어른들이 여자들에게 절하기를 권하지도 않음.
- 여성들은 절을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의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관에 따라 여성들에게 아버지 제사 때는 절을 하라고 했음.

[아버지 세대는 안했었는데 저는 꼭 하라고 해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건데. 여기 모신 사람이 아버지 때문에 온 건데 아들들만 자식이나. 우리가 제관으로 올라가지만, 제관 역할해서 하지만 나중에 끝나면 하기 전에 끝나면 꼭...]

- 사례 2(남, 50대)

[딸들도 와서 하고 싶은 사람들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 하고. 제삿집에 와서 절을 하고 제사 다 지낸 다음 마지막에도 절을 한다.]

- 사례 4(여, 60대)

[우리 시어머니는 아이고, 여자 쇠로 못 나면 사람으로 난다. 부엌에서 일만 했다. 부엌에서 음식 다 만든 걸 젓방에 갖다 놓으면 남자들이 제사상을 차렸다. 제사상 차리는 데는 여자들 안 가.]

- 사례 8(여, 60대)

3) 제례 참여자의 역할

가) 여성의 역할

- 일반적으로 제사의례 절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남성들은 잘 모를 수 있음. 다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제사를 준비하는 등 어려운 삶을 기억하는 남성은 제례 절차를 이행하는 여성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절차 간소화를 주도하기도 함.
- 결국 제사음식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데 일부 음식은 자손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변용되고 있음. 이는 개인의 의지대로 변용되기는 어렵고 가족, 친척, 이웃들의 목인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누가 먼저 절차와 음식의 변화를 주도하는가가 중요함.
 - 어머니들은 제사음식 준비에 변화를 주고 싶어도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웃의 변화를 보고 수용함.

[조리법이 편리해지면서 여자들이 전부 담당한 것 같다. 그전에는 적꼬지 껌고 하는 것도 남자가 했었다. 우리 아버지가 마루에서. 돌화로에서 구웠다.]

- 사례 6(남, 60대)

- 어머니는 자식에게 제사를 물려준 이후에는 제사음식 준비에 관여하지 않고, 며느

리가 알아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경우 제사명절증후군이 약화될 수 있음.

- 시어머니가 제사할 때는 친척과 이웃에 나눠 줄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양이 많았는데 어머니의 생각을 거역하고 싶지 않아서 며느리도 적당히 양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음.
 - 어머니 세대는 제사에 참여하는 친척들에게 떡반을 싸 주었던 풍습이 남아있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함.

[많이 바뀐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리고 바꾸려고 하니깐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바꾸고 있어요. 음식 하는 걸 줄이고 싶어도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이왕 살아계실 때 맞춰드리자….]

- 사례 3(여, 50대)

- 제사명절 등 가문의 풍속을 유지하는데 여성들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며, 이는 친정 부모의 교육 덕분이기도 함. 어머니는 딸이 결혼해서 제사명절을 지낼 때 의례음식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신부수업을 시켜서 소위 시집살이를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줌.
- 이는 대부분 어머니들의 고정관념으로 박혀있음.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딸들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음식 준비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경험하고 몸이 익히도록 교육해 왔음. 이와 반대로 아들들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으므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도와주는 훈련이 안 되어 있음.
-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이 다른 것은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임. 시어머니 세대는 바다에서 물질하고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 안에서 제사음식 준비는 쉬운 일로 여겼음. 반면 며느리 세대는 물질과 밭일을 해 보지 않아서 제사준비가 힘든 노동으로 인식했음.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거는 물질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본인 스스로 없다 이거지. 물질하는 거 다음 밭에 가서 일하는 거. 그 밑에가 제사 준비하는 거….]

- 사례 2(남, 50대)

- 어머니들도 처음에는 제사 준비가 힘들었겠지만 오래 하다보니까 몸이 익숙해지고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여겼음.

[의무로 생각하셨던 거 같아요. 처음에 어머니도 처음에 힘드셨겠지. 근데 이게 당연히 해왔던 일이니까 어느 순간 습관처럼….]

- 사례 9(여, 50대)

- 제사음식을 만드는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집안도 있음.

[우리 아버님이 옛날 계실 때 귀신들 먹지 않아서 차리지 않아도 된다. 너네 먹을 거 해라. 우리 아버님은 많이 허지 말라 하고….]

- 사례 1(여, 50대)

- 제사음식 준비 때 시어머니들의 간섭이 며느리를 불편하게 하고, 여성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기름을 적게 부어라. 많이 부었네. 옆에 생기면 가위로 잘라라. 그런 거까지 일일이 지시를 하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음식 만들 때 정성을 들였냐, 안 들였냐? 어머니 기준으로 봤을 때 당신이 해왔던 거와 비교해서 비슷하면 좋은 거지….]

- 사례 9(여, 50대)

- 부모세대들은 제사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성을 들이고, 망자를 기억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념일로 여겼기 때문에 제사라는 명분하에 가족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인식해 왔음.
- 과거에는 친척과 이웃 간에 제사음식을 나눠먹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제사준비가 큰일에 해당했음. 그런데 점차 제사 참석 범위가 줄어들고, 제물이 간소화되면서 음식 종류는 줄어들고 있음.
- 또한 여성들이 직장생활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제사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여기는 추세임.

- 예를 들면 판매용 제사음식을 구입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시간 낭비하면서 집에서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불평이 있음.
- 일부에서는 모든 것을 사다가 제사를 지낼 것이라면 굳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자손으로서 정성이 부족하다는 뜻임.
- 30~40대 젊은 며느리들이 제사 명절 지내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격식에 맞는 음식 준비도 어렵고, 번거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나) 남성의 역할

- 과거에는 제삿날이 다가오면 채롱과 제기를 꺼내서 준비하고, 제숙과 적갈용 고기는 미리 준비해 두었음. 제사음식 중에 적류는 남성들이 담당할 임무였음.
- 제주지역에서는 1980년대 이후 부업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스가 보급되고 조리법이 편리해지면서 모든 음식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음. 이후 남성들이 역할을 포기하고 빠지면서 여성들에게 넘겨졌음. 즉 남성들은 제사의례의 대부분을 여성들에게 미루었고, 여성들은 의무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등 제사가 끝난 후 뒷정리가 힘든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남성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음.
- 따라서 제사의례는 남성가문의 핵심 행사인데 여성들이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있음. 여성들이 의례 진행을 거부하게 되면 전승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임.
- 사람에 따라서는 남성이 제상을 차리고 제를 지내는 제관 역할 자체를 위대하고 여겨서 이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으며, 여성들이 부업에서 제사음식을 만들고 젓방까지 음식을 가져가면 제관인 남성은 제사상을 차림.
- 여성들이 제사음식을 만들어서 놓아두면 남성들은 제사상에 진설하고 의례를 집행함. 제삿날 남성들은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가져가서 제사상을 차리는 역할을 담당함. 부득이하게 제관이 제삿날 참석하지 못할 경우 여성이 진설해도 흉이 되지 않음.

[여자들이 제사음식을 만들어서 젓방에 가져간다. 그러면 남자들이(제관) 제기에 음식을 담아서 진설한다. 해질녘이 되면 제상을 차린다.]

- 최근 들어 요리하는 남성도 많아지고 30-40대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추세이므로, 남성들이 제사 준비에 동참하게 되면 여성들이 제례 이행을 거부할 확률이 줄어들 것임.

[남자들이 적하고 같이 하는 집도 있고, 부엌에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 사례 6(남, 50대)

다) 제례는 가족 공동의 책무

- 제사는 단순히 하루 음식해서 노력 봉사하는 게 아니고 혈연공동체를 유지하는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제례 이행에는 남녀 불문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풍속을 보면 여성들에게 요구된 노동의 강도와 의무가 매우 높은 편임.
- 결국 여성들이 제사명절 지내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남성들이 협조해 주지 않고 여성(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가하기 때문임.

[그리고 힘들긴 합니다. 나도 제사 진짜 성의껏 해야지라고 해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나 손으로 다 만들어. 송편이고 뭐고. 그럴려면 진짜 동새벽에 일어나서 설거지까지 하면 한번 쉬지도 못해...]

- 사례 8(여, 60대)

- 제사 때 남성들은 제 시간에 퇴근하고, 여성들은 휴가를 받으면서까지 준비해야 하니까 부당하다고 여겨서 젊은 여자들은 제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 반면 제삿날이 되어도 사무실이 바쁘고 휴가 받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며느리들도 있음(주로 30-40대). 이럴 경우에는 시어머니 혼자 제사를 준비할 수 밖에 없음.
- 결국 제사의례 절차의 변형이나 제례음식의 간소화는 이를 집행하는 가족들의 형편에 맞게 변화하고 있음. 다만 남성(시아버지, 남편, 친척 남성들)들은 자신들의 역할도 없으면서 예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성들을 나무람. 그래서 제사의례 전 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면 전통을 고수한다는 입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음.

나. 제사의례와 성역할의 변화

1) 제례 계승에 대한 인식

- 젊은 세대들이 제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하기 때문임.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사의례가 전통이므로 유지하려는 의식이 있음.
- 50대 정도 되면 제사의례를 수용하는데 30~40대에서는 제사를 불편한 풍속으로 여기기도 함. 그래서 시부모들이 제사의례와 관련하여 며느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경제적인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고, 각자 사정을 고려하여 제사를 이행하고 있음. 과거에 비해 절차와 음식이 간소화되어서 부모세대들이 지낼 때에 비하면 편리해졌음.

[30대는 어리니까 지금 제사를 맡긴다 안 맡긴다, 아주 어쩔 수 없는 집안이나 그러겠지만 안 그런데는 그렇게까지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 사례 4(여, 60대)

- 제사의례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50대 여성들도 제사지내기는 부담스러워 하는데, 30-40대는 더 힘들어 할 것임.

[친척들이 다 오잖아요. 내 식구들끼리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주위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다 보니까 맛이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 할까 봐. 음식 못 차렸는가 그런 불안감도 있고...]

- 사례 3(여, 50대)

- 여성들이 결혼해서 손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준비하려면 긴장되고 어려워 함. 또한 시어른들이 칭찬해 주면 좋지만, 음식 솜씨에 대해 평가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제사도 싫고 시가 식구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요즘 젊은 세대는 제사명절 이행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고, 시가 어른들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는 것도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음. 제사는 절차와 음식의 양과 상관없이 여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임.

[난 벌써 설날 걱정돼. 솔직히 말해서. 제숙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래서 싫은 거. 간단히 식구끼리 모여 앉아서 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사 명절이 다가오면 울화증 생기고 나 혼자만...]

- 사례 3(여, 50대)

2) 제례 계승의 태도

- 시어머니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아들이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그 도움으로 집안이 유지되므로 며느리들은 당연히 남편과 가문을 위해 노력 봉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음.
- 이런 시각이 남아있는 경우 고부간의 갈등과 제사의례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례에 대한 세대 간의 시각차이고, 성 역할의 고정관념 결과이기도 함.
- 또한 제삿날 시부모는 며느리들이 인상을 쓰거나 일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복이 달아난다고 야단침. 제삿날은 즐거운 마음으로 경건하게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정성을 가르침.

[인상 찌푸리거나 이렇게 싫은 내색하면 복 도망간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심하게 나무랐던 거 같아. 그러니까 동서들이 남편과 싸우고 와도 표를 못내는 거야. 속은 부글부글해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거를 이용을 잘하는 거야...]

- 사례 10(여, 60대)

- 제삿날은 경건하게 지내겠다고 다짐해도 일을 하다보면 부아와 짜증도 나지만, 결국 자신들이 할 일이므로 정성을 다해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 많은 편임.

[그 제사음식 하면서 싸우고 하는 건 안하는 것만 못하지. 난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제삿날은 절대 웅심내지 말라 해.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큰 소리 내는 거 아니라고. 제삿날만은 참아야 된다 해...]

- 사례 8(여, 60대)

3) 제례 이행에 대한 시각차

- 여성(시어머니)들이 아들의 존재를 가치 있게 인식하고, 제사의례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을 지닌 경우 봉제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임. 즉 한 집안의 기제사를 받들음으로서 며느리의 역할과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음.
- 부모세대들은 제사 준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불평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음.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해서 했다. 그걸 막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는 안했다.]

- 사례 4(여, 60대)

-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긍지로 여겨서 나이가 많아도(90대) 제주로 쓰는 감주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정성을 보이기도 함.
- 이는 제사음식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참여해야 하고, 끝까지 제사에 동참한다는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이 경우 어머니는 중요한 제주를 만들어서 보냄으로서 자신이 동참도 하고 제사음식이 마무리된다고 여길 수도 있음.
- 제사의례가 아들로 이동된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 자신의 의례 주관자이니까 격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준비하고 싶어 함.
 - 시어머니는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아들집에 가서 음식 준비 과정을 관찰하고, 조리법에도 참견하기도 함.

[우리는 시어머니가 안 와야 좋거든. 오면 사사건건 저거 저렇게 한다. 왜 적은 누르지 않느냐, 왜 저거는 타게 하느냐? 우리 시어머니는 적을 이렇게 네모나게 해야 한다고. 근데 우리는 하다 보면 이거 올라오잖아.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그거를 쟁반 놓고 눌러서 그걸 다 펴야 해...]

- 사례 10(여, 60대)

- 어른들은 제사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불평하거나 불경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음. 그래서 제사를 잘 차리고 못 차리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화내지 말고 화목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야 좋다는 뜻임.
- 제삿날 다툼이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는 말이 있음.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차피 할 것이면 좋은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고, 조상을 위하면 자손들에게도 복이 온다고 믿음.
- 주변에서 제사 때 형제간에 싸움이 있거나 제사를 준비하면서 온갖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음. 여성들이어도 다 같지는 않은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왕 맡은 제사니까 정성껏 지내겠다는 사람들도 많은 편임.

다.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1) 혈연공동체의 영속성 유지

- 제사음식을 준비하려면 여성들의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시부모들이 바쁜 며느리(여성)들의 참석을 강조한 것은 이 날 하루만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집안의 가풍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였음.
- 시어머니가 혼자 제사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며느리들의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제사의례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우애와 돈독함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려는 의도도 있음. 결국 제사의례 전 과정을 통해 혈연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의식이 있음.
- 과거 제사 때는 다양한 음식과 쌀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례이기도 했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굳이 제사가 아니어도 날마다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과거처럼 여성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시대가 아님.
- 현대인들의 삶이 녹녹치 않아서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고 있으며, 거주 공간이 제주도를 넘어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제사 참석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부모님 제삿날을 기념하면서 가족의 날로 하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제사보다는 가족 간의 의미 있는 날로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저도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제사를 해 줄지 안 해줄지 내가 죽

으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그 날만이라도 기억해서 한 번 만나면 1년 내내 한 번 못 만날 수 있지만 하루 만나서 형제간의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요즘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 사례 9 (여, 50대)

- 지금처럼 제사 지내는 시간을 정하고, 의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형식만을 고집한다면 이 의례의 생명력은 약화될 것임.
- 미래는 제사가 불편한 날이 아니고 추모의 날로 기억하면서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날로 변모될 수도 있는데, 음식준비와 의례 절차를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제례는 전승될 것임.
- 전반적으로 50대~60대들은 제사가 자손들이 기억하는 가족축제의 날로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런 의식이 자식세대에 전해지면 제례는 변화되면서 전승될 것임.
- 제사의례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능했던 풍속인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예법을 지키고 유지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전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사의례가 어떤 의미로 기억해야 할 것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이걸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도 다지게 되고 결속력도 좀 생기고 이게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 사례 9(여, 50대)

- 부모세대는 제사는 당연히 지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부모 제사도 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됨. 요즘 부모들은 거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 즉 제사 풍속은 자신의 대까지는 하겠지만 자식 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임.

2) 제례의 계승 조건

가) 제례 계승의 한계

- 여성들이 제사 지내기를 싫어하는 것은 이 날 친척들이 모이면 각종 대화를 하게 되고, 불편한 말들이 오가면서 감정이 상하게 됨. 이는 의례가 있을 때만 가족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격렬한 말들이 난무하기도 함.
- 제사음식 준비가 힘든 것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음.
 - 시어머니의 말이 못마땅해도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제삿날이니까 뭐라 변명할 수도 없고, 남편도 아내 편을 들어줄 수 없는 현실임.
- 제사음식 준비가 편리해지고 간소하게 지내도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제사 자체를 싫어함. 본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잘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고, 큰일을 치러본 경험이 없기 때문임.
- 젊은 자녀들이 제사와 명절을 싫어하는 것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거나 부모가 준비하는 것을 보고 힘들 것이라 상상하기 때문임.
- 여성들은 자신들이 제례에 참여하거나 직접 주관할 때는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나이가 들고 자신의 며느리를 맞이할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짐. 그래서 제례 준비를 간소하게 하거나 약식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정리함.

[재산이나 물려주면 그 재산이라도 보고 해줄는지. 나 살아있을 땐 어른들 하던 대로 따라서 하는데 자식한테는 내가 살던 방식으로 하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 사례 3(여, 50대)

- 요즘은 한 자녀가 있는 집이 많아서 제사 때 같이 준비할 사람도 없으며, 60대 이상 부모세대들은 제사풍속을 유지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임. 앞으로 격식과 형식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예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여성들의 거부감을 낮출 수 있을 것임.
- 또한 자녀들이 외국에 살 수도 있어서 부모들이 마음을 비워야 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내주면 고맙지만, 반드시 지내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시

대가 되었음.

[제사해서 막 아이들한테 강조해 놓으면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마음의 부담이나 느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서 끝나 버려도 그러려니 해야지. 제사에 연연 해하지 않고….]

- 사례 8(여, 60대)

- 한편 자식들이 제사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기면 안 되므로 제사를 하지 않더라도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많은 편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통은 사라질 것이지만 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는 관점이 지배적임.
- 제사, 명절과 같은 의례가 소멸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자식세대들이 유지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었음. 그래서 제삿날 하루만이라도 형제들이 모여서 우애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사 하나로 인해서 애들한테 부담주고 싶진 않아. 난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강 살아도 좋고 네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데는 너 맘대로 가라. 제주도도 잡아놓고 나 제사명절 해주라고 잡아둘 건가? 그러잖아….]

- 사례 8(여, 60대)

나) 제례의 가치관 변화

- 50대 이상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제사의례를 집행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간혹 별초 때는 오지만 명절에도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부모제사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임.
- 일반적으로 제주 사회에서는 모듬별초 참석이 아주 중요한데, 이는 문중의 힘을 과시하고, 효도의 정도를 친척들에게 보여주는 것임. 그래서 다른 지방에 사는 아들들은 별초에는 참석하지만 제사는 불참해도 별로 흠이 되지 않음.
- 제사 명절 때 며느리와 손자들이 제주도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들 혼자 참석하는 것도 민망하고, 오지도 않음.

[아들이 벌초 때 왔으니까 8월 명절에 못 온다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그럼 너는 앞으로 제사명절은 안할 거냐? 그럴 수도 있지. 아빠,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 사례 10(여, 60대)

- 또 하나는 한 자녀만 있는 집이 많아지면서 양쪽 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제사와 명절은 남성 중심으로만 지낼 수도 없는 실정임. 딸이 결혼하면 친정부모 제사와 명절을 지내야 하는데 풍속 유지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 결국 제사의례가 유지되려면 모든 절차에 남성들도 동참해야 함.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면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의례의 공유가 강해질 것임. 또한 종교식 의례 이행도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야 조상 추모의 날로 여기고, 혈연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미국에 간 오빠는 외갓집 제사를 미국에 가져갔거든. 오빠는 여기 식으로 안하고 우리가 먹는 거를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지내겠다고 했다.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지 음식을 꼭 맞게 해 놓고 하라는 게 아니다. (...) 우리 어머니는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주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 사례 10(여, 60대)

- 결국은 부모세대들이 제사 예법을 고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현실에 맞게 비용과 제사 절차들을 허용한다면 그에 맞게 전통이 유지될 것임.
- 현재 어린 자녀들이 부모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일부 변형되더라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제사의례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임.
- 최근 들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음. 전통적인 관습에 얽매어 불평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제사 음식을 전부 사서 지내주는 것도 고마운 일로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음.

- 제사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음. 자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조상 제삿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집안 어른이 오늘 제사의 주인공 일대기를 말해주고, 그가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후손이 몇 명이고 누구인지 등을 설명해 주고 그를 기억해야 하는 의미를 전해주면 됨.
- 지금까지는 제사의례가 송고하게 계승하면서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여겼음. 그래서 대대손손 전승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사의례를 준수하라고 하니까 갈등이 생겼음.
- 반면 시대가 변하고 삶의 양식이 변화되면서 제사 풍속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망자를 기억하는 날로 남아있게 되면 제사의례는 살아남을 것임.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 “너희들이 바쁘면 부모님의 날을 정해서 집에서 만나든 식당에서 만나든. 오늘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인데 돌아가신 날을 알려주고, 살아생전에 한 일을 말해줘도 좋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등을 말해주면 아이들도 만나는 의미를 알게 되고 제사를 기억하는 것이 오래 유지될 것이다.]

- 사례 10(여, 60대)

- 제사의례의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는 변할 수 있고 형태자체가 변하는데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 제사의례의 계승은 장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족의 의식이 중요함.
- 남성들은 문중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제사명절과 벌초 등 통과의례 계승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음. 반면 여성들은 본인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고민함.
 - 부모들은 대부분 어렵고 힘든 일은 자신의 대에서 끝내고 자식에게는 힘든 일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강함.

3. 소결 및 시사점

가. 소결

- 제주지역의 제사의례 절차와 그에 따른 주례자들의 인식, 의례의 지속 여부와 변형 요인 등을 살펴보았음.
- 전반적으로 제례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면서 계승되고 있으나 사회변화와 삶의 조건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통과 의례 지속의 의미가 약화되고, 의례 이행의 의무감이 줄어들고 있음.
- 제주지역에서는 주로 부모가 70대로 접어들고 제례를 집행할 여력이 없게 되면 자식에서 넘겨주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또한 제례와 그에 필요한 재산 상속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재산이 없더라도 제례의 계승은 필연적으로 이어져 왔음.
- 제사는 제관을 기준으로 2대부터 3대까지 지내는 것이며, 제주지역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합제(아버지와 어머니의 제사를 같은 날 지내는 것)가 정착되고 있음.
- 제사는 남성 집안의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역할론은 배제된 채 여성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함.
- 제례를 이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의례를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제사 지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제삿날을 친척이 모이는 공동체 화합의 날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화는 유지될 것임.
- 현대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제삿날을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날로 삼고 제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나. 시사점

- 이 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제주지역 제사의례에 내재되어 있는 성역할과 향후 성인지 관점에서 의식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했음.
- 다만 면접 대상자가 소수이고, 다양한 세대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의례 특성상 전통성을 지니고 있어서 쉽게 변화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들의 직접 경험에 근거하여 논의하였음.
- 제사의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통과의례이며, 지금까지는 잘 유지되고 잘 유지되고 있지만, 향후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유지될지 아니면 소멸될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달려 있다고 봄.
- 따라서 집안에 따라 여성과 젊은이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집안은 의례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결국은 의례 주례자들 참여자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풍속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봄.
- 제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혈연공동체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이고 친척들을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삿날을 가족 모임의 날로 정하면 의미가 있고 변형되더라도 제사의례는 유지될 것임.
- 반면 제삿날이라고 해도 가족과 친척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퇴색해지는 것이니까 굳이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제사는 폐지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제삿날을 가문의 결속력을 다지는 날로 인식하게 되면 절차와 방법이 축소되고 변형되면서도 지속될 것임. 60대 이상 사람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거들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기에 참여하는데 그 이하 세대로 내려가면 이러한 전통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편임.
- 제례 이행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성역할론이 대두되는 것은 의례 시작에서 마침까지 여성의 참여와 관여가 두드러지기 때문임.
- 여성이 제례 주례자의 중심에 서게 되는 시기는 결혼 이후에 해당됨. 즉 결혼 후 시가 제사를 담당하게 되면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제례 이행 또한 여성과 남성의 역할 공유가 필요함.

제주지역 제레문화의 방향 모색

1. 연구결과의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정책적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가. 선행연구를 통한 제례의 변화 방향 모색

- 한국사회의 제례문화는 오랫동안 유교의 가부장적 지배질서를 담고 사회의 통합의 기능을 수행함. 제주지역의 제례문화 역시 이러한 제례문화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무속신앙과 결합하여 문전제와 같은 동반의례를 지내고, 제사를 물리기 위한 양자를 들이거나 제례의 형제분할 계승과 같은 제주지역 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은 제례의 절차와 형식면에서는 보조적 역할(현승환, 1997)을 수행하였지만 여성의 참여는 단순히 제물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사의 절차와 형식이 실현되는 구체적 과정이 여성의 주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제례의 전승에 그 기여도가 큼.
- 제례에 관한 연구들은 제례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특징으로 인한 갈등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제례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족의례이며, 제례의 형식과 절차 면에서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성역할을 강제함으로써 여성들에게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그 결과 조상을 기리고 가족공동체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례의 본연의 모습과는 달리 가족공동체 내에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건강한 가족관계와 친교를 해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제례를 둘러싼 남녀 간 성역할 문제를 검토하고 보다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시키는 작업은 제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제례를 불필요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 체험을 통한 안정감 확보와 가족 간의 화합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제례의 순기능을 보다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

나. 제주지역 제례 의식 실태조사 결과

- 제주지역 제례 의식 실태조사는 제사를 지내거나 이에 참석하는 제주도 거주 만 30세 이상 기혼 성인 남·여 40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제주지역 제례 실태의 변화
 - 제사의 절차와 형식은 다소 유연한 변화가 나타남.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사의 봉사 대수는 3대조까지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2대조 이하 봉사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제사지내는 시간도 자시(밤 11~1시)에서 벗어나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음. 또한 제사의 복장이나 제기의 사용에 있어서도 평상복을 입거나 일반그릇을 혼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도 전통제례 음식과 함께 고인이 즐기던 음식을 올리거나 가족을 위한 음식을 함께 올리는 경우도 많아 변화가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 제사음식을 집에서 마련하고, 제사음식 준비를 위한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 청소와 설거지 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제례 의식의 변화
 - 제례와 관련하여 남성과 60대 이상이 더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과 30대는 성역할 인식의 변화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임.
 - 제사의 기능에 대해서도 남성과 60대 이상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성과 30대와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제사와 관련하여 봉사 대수의 감소, 더 이른 제사 시간의 변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사의 지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50대 이상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여성과 40대 이하는 제사의 지속을 원하지 않는 비율도 40% 이상으로 나타남. 따라서 제례의 전승을 위해서는 여성과 다음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제사의 변화가 필요함.
 - 더구나 제사의 가장 힘든 점이 제사 음식 준비로 나타났고, 제사 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경우도 37.7%였으며,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 또는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아 제례의 전승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합의는 물론 성역할 인식을 포함하여 제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성역할과 성불평등 인식의 변화

- 다른 한편으로 제사 지내는 풍습을 성불평등한 문화로 바라보는 인식이 29.7%로 나타났고, 성불평등한 영역으로 시장 보기와 음식 만들기, 청소 및 설거지가 지목되어 주로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음.
-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 인식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은 여전히 일과 가정에 대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음. 특히 남성은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하면서도 이러한 공감이 실질적 참여나 성불평등 인식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태도를 보임.
- 제례에 관한 항목별 만족도 측면에서도 제사 횟수, 시간, 봉사 대수 등에 대한 변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의 감소와 제사의 수행 과정에서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노동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제사가 가정의례라는 점에서 제례문화의 계승과 발전의 근간은 가족구성원들 모두의 행복임. 즉 제사는 가족구성원인 남과 여, 세대와 세대 간의 합의를 필요로 함. 실제 제사의 수행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참여에 의해서 구현되며, 제사의 전승이 자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권위에 기댄 전통의 강요는 제례문화의 존폐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례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성불평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제례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며, 변화의 방향은 성평등적 관점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공유임.

-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왔고 제례 준비 과정 중 가장 부담이 큰 영역인 제사음식 준비과정의 공유는 성역할 인식의 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어 성평등 문화 확산을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례의 전승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례 및 의식 심층면접조사 결과

-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의례 및 의식에 관한 심층면접조사는 제사의례를 집행하고 있는 5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게 제사의례 이행 현황, 제사의례와 성역할의 변화, 제사의례의 지속가능성 등을 주제로 이루어짐.
- 전반적으로 제례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대물림되면서 계승되고 있으나 사회변화와 삶의 조건에 따라 점차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음.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통과의례 지속의 의미가 약화되고, 의례 이행의 의무감이 줄어들고 있음.
 - 제사는 남성 집안의 의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역할론은 배제된 채 여성이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함.
 - 제례를 이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는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의례를 수행하는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제사 지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제삿날을 친척이 모이는 공동체 화합의 날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화는 유지될 것임.
- 현대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도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일 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제삿날을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날로 삼고 제사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제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혈연공동체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요즘은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이고 친척들을 만날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삿날을 가족 모임의 날로 정하면 의미가 있고 변형되더라도 제사의례는 유지될 것임.
 - 결국 제삿날을 가문의 결속력을 다지는 날로 인식하게 되면 절차와 방법이 축소되고 변형되면서도 지속될 것임. 60대 이상 사람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보고 거들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기에 참여하는데 그 이하 세대로 내려가면 이러한 전통은 사라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편임.
 - 또한 성역할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여 성평등한 제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 공유가 필요함.

2. 정책적 시사점

가. 제주지역 제례의 현대적 의미

1) 조상에 대한 추모

- 제주지역은 제례의 절차나 형식 및 구성요소에 있어서 전통 지향적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탈전통적 변용 과정을 거치고 있음.
 - 전통사회에서 제례는 효의 의미가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추모의 의미가 더욱 강조됨.
 - 제주지역 제례에 나타난 추모의 의미는 조상을 기리는 것 외에도 조상숭배, 종교적 관념, 친목 도모의 관념, 친족 공동체 결속의 관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사후 자손의 봉사를 원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나 자손의 봉사가 효의 실천으로 이어지던 전통적 인식이 다소 희박해짐.
- 또한 제례의 전승적 의미에서도 제례에 대한 의미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전통적 성역할 인식과 제사절차 및 형식의 고수는 성과 세대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사의 절차와 형식의 전승보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제례문화는 자신의 혈연적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친밀감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동시에, 자기 존재의 혈연적 근원을 확인하는 의식을 통하여 삶의 영속성을 추구하는 행위이기도 함(박원재, 2005). 또한, 사회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도 수행함. 제례문화가 의미 있는 전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허용되고 은폐되고 있는 수직적 위계질서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민주적으로 근절하고 제례가 축제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함.

2) 가족 및 친족 공동체 유대 강화

- 제례의 전승은 여성과 남성, 부모와 자녀의 참여를 통해서 구현됨. 따라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조상제사를 가족과 친족이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함.
 - 혈통에 대한 의식이 점차 미약해져가는 현대사회에서 가족 결속의 기회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음. 따라서 제사와 같은 가족의례는 혈연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성과 세대 간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또한, 제례는 반복적 집합의식의 재생산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질서 유지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원에서 전통을 형성, 지속, 변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즉, 가족단위의 제례는 가족 공동체의 행동 양식과 가치를 형성시키고 이를 규칙적으로 행함으로써 자녀들의 가치체계를 사회화 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3) 제례의 주체자로서 성평등 인식 변화

- 제례 주체자로서 여성의 성역할 인식은 역사적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유교가 뿌리내리기 이전,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및 중기 무렵에는 아들 딸 구분 없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자녀균분상속이 행해졌으며, 조상제사에 있어서도 모든 자녀들이 동등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음. 당시의 이러한 제사 습속을 ‘윤희봉사’ 혹은 ‘돌림제사’라 함. 즉 오늘날처럼 장남이 조상제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상관없이 모든 자녀들이 1년 주기로 순번을 정하여 조상제사를 담당하는 것임.
 - 조상제사에서 여성은 제사준비뿐만 아니라 아헌을 비롯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예법이었음.
- 따라서 조상제사의 의례에 관한 남성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함. 오랫동안 성평등 및 성역할 인식에 관한 논의와 해법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은 남성의 소외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켰으며, 성평등 실현의 궁극적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음. 성평등 실현의 궁극적 해법은 남성의 참여에서 비롯될 수 있음. 따라서 의례와 더불어 제사의 준비에도 남성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례의 기본방향

1) 형식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 의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형성, 유지, 변화되므로 제례의 절차나 형식 등은 가

능한 모든 가족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례의 가장 기본적 성격은 형식성과 규칙적 반복성임. 따라서 지나치게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제례 본연의 기능이나 의미가 미약해질 수 있음. 특히 제례의 절차와 형식은 가족의례인 동시에 사회적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의례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러므로 제례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노력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례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2) 제례의 현대적 조화

- 전통적 성역할 인식의 변화와 성평등 인식의 확산은 사회의 발전에 따른 필요적 변화일 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조류임.
- 일하는 여성의 증가와 함께 가사에 있어서도 남녀의 동등한 역할이 강조됨. 가정 내 남편과 아내의 동등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동의하고 있지만 실질적 분담의 실행은 인식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여성이 제례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제례의 절차와 형식을 포함하여 제례의 전 과정을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함. 이러한 노력은 제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함.

3) 전통과 현대의 조화

- 제례의 변화 수용은 현재적 관점에 제한될 필요는 없음. 전통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와의 소통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는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재산의 균분상속, 여성의 아헌, 딸의 부모봉사 등 성평등적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를 통하여 제사 과정의 역할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제사의 절차와 형식에 대한 변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더불어 이미 과거에 통용되었던 제례의 변화는 오늘날 제례의 절차와 형식이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므로 제사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음.

- 제례의 절차와 형식에 관한 변화에 있어서도 제례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도움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봉사 대수는 조선시대 전기와 중기, 후기에 통용되었던 범위가 달랐고, 장자계승의 원칙도 조선시대 초기까지 형제가 돌아가면서 봉사하거나 딸이 봉사하는 경우도 발견됨. 즉 오늘날 제례의 절차와 형식이 다양한 변화를 거쳐서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변화를 거듭하는 중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3. 정책적 제언

-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제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가. 역사 속 제례문화의 성평등 사례 소개하기

- 오늘날의 유교식 제례문화는 오랜 변화를 거쳐 정착됨.
 -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은 제사에 참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예서(禮書)에서는 제사 준비 및 행례과정에서 여성도 남성들과 똑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자가례』 및 『사례편람』등 가례서에도 헌작, 진찬, 유식 등 의례절차에서 모두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고려시대에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아내도 재산분배권을 가질 수 있었고, 재산을 자녀에게 균등분배 하였으며, 자녀들이 돌아가며 부모를 봉양하였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 봉사도 자녀들이 함께 책임을 짐.
- 이러한 역사 속 성평등 사례는 제사 과정의 역할 공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제사의 절차와 형식에 대한 변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역사 속 성평등 사례의 발굴과 소개는 관 주도 형식의 홍보를 통해서 파급력을 확대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아직 제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세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현재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년층 대상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직접 역사 속 제례문화의 성평등 사례를 찾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파급력은 관 주도 홍보보다 다소 느리겠지만 인식의 변화에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임.

나.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지금까지 제사문화에 대한 지식은 남성 중심으로 전달되어 온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성평등 제례문화 담론의 확산을 위해 남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캠페인 활동 강화가 필요함.
 - ‘우리 집 제사 이야기(가칭)’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 공모전을 통해 현재 제주도 남성들의 제사 참여 방식과 성평등 인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 참여형 캠페인과 선도적인 남성 모임 등을 통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성평등을 실천하도록 함.
 -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을 위한 남성들로 구성된 실천 모임 지원 및 활성화
 - SNS를 통한 홍보 및 온라인 기반 참여형 캠페인 진행
 - 제주지역 제례문화 사이트 개설을 통해 제례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제례에 대한 여성과 남성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공간으로 운영

다. 남성 시니어를 위한 제례음식 요리교실

- 60대 이상의 남성들은 제례의 주례자와 참례자로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례의 전승에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례의 참여경험은 주로 절차적 형식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강하여 여성의 제례 준비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편임.
- 전통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행위는 여성의 몫이었으나 최근 요리하는 남성을 미디어에서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은퇴 후 아내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 및 독립적 삶을 위하여 요리를 배우거나 남성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요리교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음.
- 남성 시니어들에게 제례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제

례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례 전승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역할 인식에 대한 변화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음식 만들기의 기쁨과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뿐만 아니라 은퇴 후 노령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삶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음.
- 남성 시니어들의 성역할 인식의 변화와 이해는 가정 내 성역할 인식의 변화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 특히 이들이 가정 내 가부장적 권위의 실현체였다면 가정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의 추동체로 기능할 수 있음.

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 노력

- 제례를 둘러싼 성불평등 현상에 대한 사회적 담론화, 제주지역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TF) 구성
 - 각계 전문가, 여성·시민단체, 도정이 함께 제례문화 속 성평등 실천과제를 발굴·확산하여 성평등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
 - 공모사업을 통한 여성단체 지원 및 성평등 제례문화 확산 태스크포스 운영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 다양한 형태의 성평등 제례문화 관련 토크콘서트 등 소통프로그램 시행

마. 제주지역 여성 문화유산 계승과 보존

- 한국전통지식자원분류(kTKRC :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 Classification)에 따르면 전통지식은 크게 생업기술, 생활기술, 창조적 기술로 구분됨. 창조적 기술은 문화적 창조기술과 제도적 창조기술로 분류되며, 제도적 창조기술에 관혼상제, 가족제도 등이 포함됨. 제주지역 제례문화는 제주도민의 창조적 기술이자 무형의 문화임.
- 제주지역 제례문화는 제주 여성들의 지식과 기술이 체계화되어 있는 무형의 문화로서 가치가 있음. 따라서 제례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인식, 지식과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사해 제주지역 제례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전승시켜 나갈 것인지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여성사와 제례문화를 접목한 전시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양화하여 제주지역 여성의 문화유산 계승·발전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층 및 집단에 대한 제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 관련 성평등 제례문화 현장체험기관으로서의 민속자연사박물관 활용 추진

○ 제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 제주지역 제례의 역사와 문화 속에는 제주 여성의 삶과 정체성을 담지하고 있는 산물임.
- 제주 여성의 지혜가 체계화되어 있는 제례 관련 유형 및 무형의 유산을 발굴·조사
- 특히, 제주지역 제례 음식은 타 지역과 확연히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 제례 음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오롯이 제주 여성들만이 계승하고 있는 유산임. 이에 대한 고증을 통해 문화 콘텐츠로 개발 후 자원화 타당성 검토가 적극 필요함.
- 개발된 문화 콘텐츠는 여성 역사문화 교육과도 연계되어 제주지역 인문학 강좌나 각종 교양 교육 프로그램에 제공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경숙. 2010. “제주지역의 제례(祭禮)를 통해 본 가부장 문화 분석”. 미간행 논문.
- 김경선. 2008. “중가제례의 현황과 특징”. 「종갓집 제사,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7-55.
- 김미동·김해란. 2018. “1993-2016년 신문기사를 통해 본 명절스트레스 양상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107-134.
- 김미영. 2005. “조상제사의 실질적 주체: 제사와 여성”. 「제사와 제례문화」, 한국국학진흥원. 167-189.
- 김미정·최선영. 2005. “기혼여성의 자아와 가족질서의 균열-융합: 기혼여성들의 명절·제사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5: 133-187
- 김순중. 2014. 「명절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족가치관, 명절인식, 명절차례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희. 2014. “한국농촌주민의 의례와 종교생활의 변화-경기도 평택시 S마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0(1): 191-225.
- 김지혜. 2009. 「조선시대 제주지역 열녀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뒤르켐, 에밀(Emile Durkheim). 1992.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옮김. 민영사.
- 마르크스, 칼(Karl marx). 1992.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 서문”.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2」, 최인호 옮김. 박종철출판사: 474-491.
- 마르크스, 칼·엥겔스, 프리드리히(Karl Marx & Friedrich Engels). 1998. 「독일이데올로기」, 박재희 옮김. 청년사.
- 문숙자. 2006. “조선후기 제주 지역의 재산상속과 봉사 관행-분재기 분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1: 199-228.
- 문순덕. 2011. “통과의례”. 「제주여성사Ⅱ」, 제주발전연구원.
- 문순덕. 2013. “제례의 전승”. 「제주여성의 일생의례와 언어」, 인터북스.
- 문옥표. 1998.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제례(祭禮)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79.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47-174.
- 미야지마 히로시. 2014. 「미야지마 히로시의 양반」, 노영구 옮김. 너머북스.
- 박원재. 2005. “제례문화를 읽는 몇 가지 시선 : 유교와 제사”. 「제사와 제례문화」, 한국국학진흥

홍원. 9-32.

박종천. 2005. “우상숭배와 반인륜 사이에서: 제사와 종교”. 『제사와 제례문화』, 한국국학진흥원. 95-120.

박종천. 2010. “상·제례의 한국적 전개와 유교의례의 문화적 영향”. 『국학연구』, 17: 363-397.

심일중. 2016. “유교 제례에 담긴 조상 인식의 다면성 연구”. 『역사민속학』, 50: 7-47.

쓰하 다카시. 2007. “제주도 제사 계승의 중심성과 주변성”. 『한일공동연구총서』, 김우영 옮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78-96.

이삼식·박중서·고덕기·박인. 2000. 「제례 및 성묘 실태와 변화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이욱. 2011. “조상제사의 의미와 기억의 의례화”. 『국학연구』, 19: 473-501.

이정순. 2012. “조상제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 교회 영성 형성의 과제와 관련 하여”. 『신학과 실천』, 30: 67-90.

정희중. 2009. 「제주도 농촌사회 상례문화의 특징과 변화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윤·박찬식. 1998.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19: 199-218.

조세정·김종성·김성수·정진규·윤석준·김규필. 2016. “한국 기혼 남녀의 명절 스트레스 : 사회적 재적용 평가 척도를 이용한 스트레스 정도 비교”. 『가정의학』, 6(6): 592-597.

제주여민회. 2007. 「제주여성, 그 강인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차별 드러내기 - 개인의 일상경험을 중심으로」, 자료집.

제주유맥육백년사 발간위원회. 1997. 「제주유맥육백년사(濟州儒脈六百年史)」.

최규홍. 2016. “유교 제례의 본질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 -조상제사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85: 33-67.

피터슨, 마크(Mark Peterson). 2000. 「유교사회의 창출」, 김혜정 옮김. 일조각.

한경호. 2004. “조상제례와 농촌선교”. 『교회와 신학』, 58: 129-138.

현승환. 1997. “제주도 상, 제례의 절차와 신앙적 의미”. 『탐라문화』, 17: 171-191.

현혜경. 1999. “제주 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제주도연구』, 16: 179-225.

홉스봄, 에릭(Eric Hobsbawm) 외. 2004. 「만들어진 전통」, 박지향·장문석 옮김. 휴머니스트.

「朱子家禮」

「四禮便覽」

「增補四禮便覽」

「禮記」

「禮記訓纂」(淸 朱彬 撰 1996年 北京 中華書局 饒欽農 點校 排印本)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www.kosis.kr)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4(www.kosis.kr)

B. 제사에 관한 인식과 기능

Part_2. 인식과 기능

동의하시는 내용의 안에 ✓ 표기를 해 주십시오

문20. 다음은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언제나 장남(장손)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성은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지내는 것을 보고 배우고 도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준비 시 주부가 관장하고 며느리/딸들은 이를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현대생활에도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조상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추모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음식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계승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죽은 후에 자손이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주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친정부모(장인·장모)의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모시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지낼 때 여성인 자손이 참석하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다음은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상을 잘 섬겼을 때 후손이 복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집안의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제주도의 친척은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통해 결속되어 왔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집안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는 몇 대조까지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대조(부모님) ② 2대조(조부모님) ③ 3대조(증조부모님)
 ④ 4대조(고조부모님) ⑤ 기타(_____)

문23.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보통 몇 시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저녁 6-9시 ② 저녁 9-11시 ③ 밤 11- 01시
 ④ 주야 편리한 시간 ⑤ 기타(_____)

문24.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앞으로 계속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지내야 한다 ② 지내는 것이 좋다 ③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④ 지내지 말아야 한다

C.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에 대한 갈등 및 성불평등 인식

Part_3. 갈등 및 성불평등 인식

동의하시는 내용의 안에 ✓ 표기를 해 주십시오

문25. 지금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
- ② 횡수가 너무 많다
- ③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 ④ 돈이 너무 많이 든다
- ⑤ 거리나 시간 때문에 참석하기 번거롭다
- ⑥ 힘든 점 없다
- ⑦ 기타()

문26. 귀하는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수행한 후 가족(남편, 부인, 부모)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 ② 있다(☞ 문26_1번으로)

문26_1.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문에 집안(가족 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형제, 부자, 부부, 친척 간에 생기는 문제)

- ① 제사를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 ② 제사를 누가 지낼 것인가의 문제
- ③ 비용부담의 문제
- ④ 제사 절차나 형식에 대한 문제(종교적 갈등, 절차 상의 이견)
- ⑤ 기타()

문27. 귀하는 제사 지내는 풍습이 성 불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28. 귀하는 제사 문화 중에서 성 불평등한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장 보기 및 음식 만들기
- ② 제사 절차(절하는 것 등)
- ③ 제사 때 주요 대화에서 배제되기
- ④ 청소 및 설거지
- ⑤ 가족 및 친지들과의 만남과 대화
- ⑥ 기타()

문29. 귀하는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휴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휴가를 받았습니까?

- ① 있다(회)
- ② 없다

D. 여성 취업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 인식

Part_4. 성역할 인식

동의하시는 내용의 안에 ✓ 표기를 해 주십시오

문30. 다음의 각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31. 다음의 각 의견에 어느 정도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찬성	다소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야 가계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포함)에 대한 만족도

Part_5. 제사 만족도

동의하시는 내용의 안에 ✓ 표기를 해 주십시오

문32. 다음은 현재 귀하의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과 일치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는 것	①	②	③	④	⑤
2)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형식(방법)	①	②	③	④	⑤
3)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절차(순서)	①	②	③	④	⑤
4)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의 음식상 차리는 방법(진설법)	①	②	③	④	⑤
5)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맡아서 지내는 사람	①	②	③	④	⑤
6)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횟수	①	②	③	④	⑤
7)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시간	①	②	③	④	⑤
8)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는 조상님의 봉사 대수 범위	①	②	③	④	⑤
9)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신위(사진·지방)모시는 방법	①	②	③	④	⑤
10)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쓰는 제기(그릇)	①	②	③	④	⑤
11)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지낼 때 직접 참여하는 사람(성별, 세대)	①	②	③	④	⑤
12)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장소	①	②	③	④	⑤
13)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에 참석하는 친척범위	①	②	③	④	⑤
14)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입는 옷(복장)	①	②	③	④	⑤
15)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들어가는 제수비용	①	②	③	④	⑤
16)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준비하는 음식종류	①	②	③	④	⑤
17)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음식준비 방법	①	②	③	④	⑤
18)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를 지내고 난 음식 처리 방법	①	②	③	④	⑤
19)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가사노동 분담	①	②	③	④	⑤
20)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나의 역할과 지위(위치)	①	②	③	④	⑤
21) 제사(기제사, 차례, 종교의례 포함) 때 가족 간 친목	①	②	③	④	⑤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설문종료 후 기입할 것

면접원		면접일시	월 일 / (오전/오후) 시 분 ~ 시 분
응답자		연락처	() - () -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18년 12월 21일

발행인 이 은 희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Tel. 064)710-3482, Fax. 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처 (주)드림애드

ISBN 979-11-87026-35-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주지역 제례에 관한 연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jewfri@jewfri.kr 🌐 www.jewfri.kr



93330

9 791187 026358

ISBN 979-11-87026-35-8